

에콰도르

정보수정일자: 2014. 08. 30.

작성처: 키토무역관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kotra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 국가개요 / 1
- 정치사회동향 / 3
- 한국과의 주요이슈 / 13

II. 경제

- 경제지표 DB / 16
- 경제동향 및 전망 / 17
- 주요 산업 동향 / 21
-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 27

III. 무역

- 1. 교역동향**
 - 수출입동향 / 31
 -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 35
- 2. 무역관련 주요제도 및 절차**
 - 수입규제제도 / 38
 - 대한수입규제동향 / 47
 - 관세제도 / 48
 - 주요인증제도 / 52
 - 지식재산권 / 56
 -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 62
- 3. 무역환경**
 - 수출유망품목 / 72
 - 시장특성 / 73
 - 바이어 발굴 / 78
 -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 83
 -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 85
 - 수출 성공실패사례 / 87
 - 수출 시 애로사항 / 89

IV. 투자

1. 투자환경 및 동향

- 투자환경 / 91
- 투자 인센티브 제도 / 95
- 외국인 투자동향 / 100
- 한국기업 투자동향 / 102
- 한국기업 진출현황 / 104
-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 106

2.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 주요 투자법 내용 / 108
- 투자방식 / 109
- 투자진출형태 / 114
- 진출형태별 절차 / 116
-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 120
- 투자입지여건 / 121
- 무역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 124

3. 사업관리

- 노무관리제도 / 126
- 조세제도 / 139
- 금융제도 / 150
- 외환관리 및 자금조달 / 152

V. Business 참고정보

- 물가정보 / 155
-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 157
- 비즈니스 에티켓 / 158
- 이주정착 가이드 / 161
- 생활여건 / 165
- 취향정보 / 169
- 출입국 및 비자제도 / 171
- 관광, 호텔, 식당, 통역 / 172
- 출장 시 유의 및 참고사항 / 177
- 유관기관 웹사이트 / 179
- KOTRA 무역관 안내 / 182



자료원: EIU

I. 국가 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에콰도르(영어명: Republic of Ecuador/현지어: Republica del Ecuador)
위 치	남아메리카 서북부, 북쪽은 콜롬비아, 동/남쪽은 페루와 접경
면 적	283,561Km ² , 한반도의 약 1.3배, 남북길이 약 725km, 동서길이 640km 갈라파고스 군도 지역, 서부 해안(Costa), 중부 산악(Sierra), 동부 아마존(Oriente)
기 후	적도상에 위치하여 태평양 연안 저지대 및 아마존 지역은 고온 다습하나, 안데스 산맥 고지대는 연평균 기온이 13도 정도로 온난함. 해안지대: 연평균기온 25-31 ° C, 연평균 강우량 250-3000mm 산악지대: 연평균기온 13-18 ° C, 연평균 강우량 700-1500mm 밀림지대: 연평균기온 23-32 ° C, 연평균 강우량 3000-4000mm
수 도	키토(Quito; 고도 2,850m. 북부 산악지대)
인 구	16,023,932명 ('14년 CIA 기준)
주요 도시	QUITO (2,239만명), GUAYAQUIL (2,350만명)
민 족	메스티조 62%, 유럽계 7%, 원주민 25%, 흑인 3%, 기타 2%
언 어	스페인어(공용어) 및 11개 기타 부족어 (케추아, 슈아르 등)
종 교	가톨릭(약 90%이상)
건국(독립)일	1830년 5월 13일(스페인으로부터 독립)
정부 형태	대통령 중심제(임기 4년, 2회 연임), 단원제(의회임기 4년)
국가원수 (실권자)	○ Rafael Correa Delgado - 취임일: 2007년 8월 10일 - 2013년 2월 17일 3선에 성공, 2017년까지 임기 수행

자료원: 외교통상부 에콰도르 개황

나. 경제지표

실질 GDP	914억 달러
실질경제성장률	4.6 %
1인당 GDP	5,424.63달러 (세계은행 2012년 통계)
실업률 (연평균)	5.1 %
물가상승률	3.3 %
화폐 단위	US\$
환 율	US\$ (2000년 9월 이후 전반적인 경제 달러화 단행으로 미 달러 사용)

외 체	23,310 백만 달러
외환보유고	4,678 백만 달러
산업구조 (GDP 대비)	농업(6.5%), 산업(35.8%), 서비스업(57.7%) (2011년 기준, 자료원: CIA world factbook)
교역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246억 9천 3백만 달러 ○ 수입: 263억 3천 1백만 달러
주요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 원유, 바나나, 화훼, 새우, 참치, 어류 ○ 수입: 비 내구 소비재, 내구 소비재, 정제유, 농업용 기계, 일반산업용 기계, 수송기계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CIA world factbook, 중앙은행 수출입통계

다. 한-에콰도르 관계 (2014년 6월)

체결 협정	1983년 경제기술협력협정, 외교관 및 관용여권 사증 면제협정 1984년 어업협정 1985년 문화협정 2003년 EDCF 차관협정 2005년 KOICA 자원봉사자 협정 2008년 전력부-에콰도르 전력부간 협력 MOU 2009년 KOICA-에콰도르 국제협력처간 MOU 2011년 한- 에콰도르 교육협력 MOU 2012년 KOTRA-Pro Ecuador간 협력 MOU 2012년 이중과세방지협정, 항공협정
교역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3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 한국 수출: US\$ 48,399천 - 對 한국 수입: US\$ 919,924천 ○ 2014년 5월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 한국 수출: US\$ 21,369천 - 對 한국 수입: US\$ 321,283천
교역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에서 수입-자동차,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건설중장비, 화학원료 등 ○ 우리나라로 수출-새우, 동괴 및 스크랩, 어육, 커피, 수산가공품 등
투자 교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진출상사- SK건설, 포스코 건설, 삼성전자, LG 전자 등 ○ 국내 유치-全無
교민	1,200명 추정(2013년 기준)

자료원: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 에콰도르중앙은행(BCE)

2. 정치사회동향

가. 에콰도르 역사

1) 잉카 제국과 스페인의 정복

발전된 토착 문화를 바탕으로 번영을 누리고 있었던 에콰도르 지역은 15세기 잉카 제국에 편입되었다. 1534년 스페인 군대가 잉카 제국을 정복해 식민지 시대가 시작되었으며, 지배층은 스페인계 식민통치자들로 구성되게 되었다. 토착인들은 정복자들과 함께 건너온 새로운 질병의 유행으로 수가 급격히 줄었으며 'encomienda'라고 하는 노동 시스템에 강제 동원되어 스페인 영주들의 노예처럼 부려졌다.

2) 독립과 발전

1822년 독립군이 스페인 왕국군을 무찌름으로써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 대콜롬비아 공화국에 속하게 되었으며, 1830년 에콰도르 공화국으로 독립 국가가 되었다. 독립국가로 첫 발을 내디딘 에콰도르의 19세기는 잦은 지도자의 교체 및 지역간의 갈등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의 시대였다. 보수파였던 가브리엘 가르시아 모레노가 1860년대 가톨릭 교회의 지원 아래 국가를 통일하였다. 그 후 정치권력은 가톨릭 교회와 연대한 안데스 산악 지역의 지주들이 차지하였다. 19세기 후반 세계적으로 코코아 수요가 급증하여 코코아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해안 지방의 경제가 크게 발전하였고, 고산지대에서 해변 지역의 농촌지대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졌다. 또한 1895년 엘로이 알파로 대통령 통치 하에서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자유개방개혁이 이루어져 성직자의 권력은 약화되었고 금융업 등에 종사하는 자본가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1920년대 코코아붐 시대의 종말과 함께 다시 정치 불안이 가중되기 시작하였으며 1925년 쿠데타가 발생하였다. 1931년에서 1948년까지 21개 정부가 난립하고 모두 중도에 퇴진하는 등 정치 불안이 극심하였다.

2차세계대전 이후 농산품 시장의 회복과 바나나 수출산업 성장으로 에콰도르는 경제적, 정치적인 평화를 맞게 되며, 안정적 문민정부가 들어서 1948년부터 60년까지 세 명의 대통령이 국민에 의해 선출되어 임기를 끝마쳤다. 그러나 1960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쿠바혁명의 영향을 받아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면서 1972년에서 1979년까지 군사 독재가 이루어졌다. 군사 독재정부는 강력한 반공정책 속에서 1972년부터 석유개발을 본격화하는 등 경제 근대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제에 대한 국가의 관여 및 공공경제부문이 크게 확대되었다. 1970년대 후반 민주화가 이루어져 1980년대 및 1990년대 초반에는 평화적으로 정권이 유지되었으나 1990년대 중반부터 다시 정치 불안이 격화되었다.

3) 정치적 불안

해안 지방의 상업 중심지인 Guayaquil을 기반으로 하는 에콰도리안 롤도시스타당(Ecuadorian Roldosista Party)의 압달라 부카람이 1996년 소득분배 경제 및 사회 정책을 내세워 당선되었으나, 재임 기간 동안 파벌주의와 부패 문제로 국민의 반감을 사 이듬해 축출되었다. 뒤이어 국회의장인 파비안 알라르콘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1997년 5월의 국민 투표에 의해 정당성을 인정받았으나, 역시 1년 넘게 버티지 못하고 중도 축출되었다.

1998년 6월 국민민주당(Popular Democracy Party)의 하밀 마우아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마우아드 대통령은 영토 분쟁이 이어져 왔던 페루와 평화 조약을 맺는 업적을 남겼으나 금융위기로 인한 경제적, 재정적 어려움과 부정부패 스캔들 등으로 인기가 추락하였다. 2000년 1월 수도 키토에서 인디오들을 주도로 하는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여 의회 건물에 진입, 군사 정부를 선언하였으며 일단의 군 장교들도 이를 지지하였다. 이에, 마우아드 대통령은 도피하였고 공석인 대통령직을 부통령인 구스타보 노보아가 승계하였다. 국회 내의 어떤 정당과도 연계가 없는 무소속 출신의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를 안정시키는 것에 주력하였다. 그 중에서도 노보아 임시대통령은 마우아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미 달러 공용화폐화 정책을 펼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임시대통령으로써의 임기를 무사히 끝마쳤다.

2003년 7월, 2000년의 시위 결과 만들어진 군사 정부의 일원이었던 루씨오 구띠에레스가 반부패 및 좌익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워 당선되었다. 그러나 당선 후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미 달러화 통용 정책 고수, 미국과의 유대강화, IMF 등의 노선 수용 등의 다소 보수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결국 구띠에레스 대통령은 정책 노선의 차이로 인해 좌파 지지 기반을 잃고, 다른 정당과 제휴를 추진하기 위해 무리하게 대법원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2005년 야당 주도의 대규모 시위가 발생, 헌정질서 파괴를 사유로 탄핵되었다. 의회는 부통령이었던 알프레도 팔라시오를 대통령으로 임명, 별다른 개혁 성과 없이 임기를 끝마치게 된다.

4) 꼬레아 행정부

2006년 10월의 대통령 선거에서 팔라시오 행정부의 재무 장관이었던 라파엘 꼬레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꼬레아 대통령은 신헌법 제정을 위한 제헌 의회 소집, 정부의 부패 척결, 소득 불균형 및 빈곤의 퇴치 등 3대 주요 공약을 내세웠으며 '변혁 후보자'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부각시켰다. 같은 해의 총선에서 노보아 전대통령이 이끄는 국민행동제도개혁당(PRIAN, National Institutional Renovation and Action Party)이 가장 의석을 많이 차지하였고, 구띠에레스의 애국사회당(Patriotic Society Party)이 그 뒤를 이었다. 꼬레아 대통령이 만든 PAIS 연합당(Proud and Sovereign Fatherland)에서는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

2007년 3월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을 근거로 57명의 국회의원을 해임시켰으며, 국회의 정당성 및 권력이 크게 실추되어 2007년 10월 꼬레아 대통령의 PAIS 연합당이 61.5%의 의석을 차지하며 구성된 제헌 의회에 그 기능을 넘겨주었다. 2008년 신헌법 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헌법 개정에 들어갔다. 신헌법은 에콰도르 독립 이후 20번째 헌법이다.

신헌법에 따라 대통령, 부통령, 국회 및 지방 의회를 위한 선거가 꼬레아 대통령 임기 시작 2년만인 2009년 4월에 실시되었다. 꼬레아 대통령은 1차 선거에서 52%의 표를 획득하며 재선되었으며, 총선에서도 꼬레아 대통령이 이끄는 PAIS 연합당이 다수당은 아니나 가장 많은 의석을 차지하였다. 꼬레아 대통령은 그가 '시민의 혁명'이라고 명명한 정치적 프로젝트를 선언하였는데, 그 목표는 사회 정의의 실현과 자본에 대한 노동의 우위를 재천명하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꼬레아 행정부는 주택, 의료보험, 사회복지프로그램 등에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안전망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신헌법으로 인해 대통령 중임이 가능하게 된 꼬레아 대통령은, 2013년 2월 17일에 벌어진 대선에서 2위를 차지한 은행가 출신의 기예르모 라소 후보(득표율 22.68%)를 제치고 득표율 57.17%로 3선에 성공하였다.

나. 국가조직 구성 및 제도

에콰도르의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심제로, 현 대통령은 2007년 취임한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이다. 현 헌법은 2007년에 구성된 제헌위원회에 의해 쓰여졌으며 2008년 국민 투표에 의해 승인되었다. 2008년 제정된 신 헌법은 대통령의 연임 허용 및 권한 강화, 자원개발 부문에 대한 국가통제 강화, 국가에 유희농지 등의 몰수 등 권한 부여, 일부 불법 규제 외채 상환거부 허용 등을 골자로 하고 있어, 전반적으로 대통령 및 대통령 중심 행정부의 정치 및 경제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가능케 하였다.

에콰도르의 선거권은 16세 이상의 모든 시민에게 주어지며, 그 중 18세에서 65세 사이의 비문맹자 시민은 의무적으로 선거에 참여해야 한다. 시장, 도지사 및 지방 의회 의원은 직접 선출된다.

현행 에콰도르 헌법은 총 444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5권분립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선거부, 감사부)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보통 선거기능과 감사기능이 행정부 산하에 속해있는 3권분립제와 달리 에콰도르의 경우 이 두 가지 기능을 헌법적으로 독립시켰다. 선거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재판소로 이루어져있고, 감사부는 호민관(옴부즈만), 감사원, 은행보험감독원, 통신감독원, 기업감독원, 증권위원회 및 국민참여위원회(Cpccs)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히 Cpccs는 대법관(21명), 헌법재판관(9명), 선거재판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국가송무처장(Procurador), 중앙선관위원장, 호민관, 모든 감독원장의 선출을 관장하는데, 이 모든 요직의 선출을 공채형식으로 한다.

1) 행정부

행정부의 기능은 대통령에게 위임되어 있으며, 4년 연임이 가능하며 부통령이 대통령을 보조한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공공 행정에 책임을 지니며, 장관, 주 장관 및 공무원을 임명할 권한을 지니고 있다. 또한 행정부는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국무 총리, 대사 및 공사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국방과 경찰력 및 임명권 제반에 대해 절대적인 영향력을 지닌다. 행정부 내각은 137명 국회의원 중 76명으로 구성된다.

2) 입법부

입법 기능은 단원제인 국회에 의해 수행된다. 의석은 137석이며, 임시 위원회를 제외하고 13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 국회의원은 주 단위로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며 임기는 4년이다. 에콰도르 국회는 7월과 12월을 제외하고 1년 내내 열린다.

3) 사법부

2008년 신헌법 제정 이후 에콰도르의 사법부는 크게 바뀌었다. 사법부는 사법상의 수장과 행정상의 수장이 협력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새로운 사법부는 크게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9년 임기의 21명의 판사로 구성된 대법원이 있다. 대법원의 판사는 사법심의회에서 공채 형식으로 선발 절차를 거쳐 임명한다. 대법원장은 대법원 판사들 중 선출되며 임기는 3년이다. 둘째, 사법권의 행정 부서로서 사법심의회가 있다. 사법위원회는 9명의 인사들로 구성되며 감사부에서 역시 공채 형식으로 이들 인사들을 선발한다. 사법심의회는 6명의 법률 전문가와 3명의 경제, 행정 등 기타 유관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그러나 2011년 5월의 국민 투표로 꼬레아 행정부의 제안이 채택되어 사법 심의회는 조직 개편을 거치고 있다. 현재 입법부, 행정부 및 감사부에서 권력을 위임받은 '3부 위원회'가 개편 심의회 역할을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법적인 개정력은 없지만 헌법에 기반한 권리가 위반된 상황에 대해 헌법적인 조정을 담당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권위를 가진 유일한 기관이다.

4) 행정구역 구분

에콰도르의 정치 및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4개 지역(Regiones), 24개 주(Provincias)가 있으며 그 하부에 현(Cantones)과 농촌구(Parroquias Rurales)가 있다. 안데스지역(Sierra)은 10개 주, 해안지역(Costa)은 7개 주, 아마존지역(Amazonica)은 6개 주, 도서지역(insular)은 1개 주로 각각 구성된다.

꼬레아대통령은 생산성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부문의 참여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가계획개발처(SENPLADES)를 다시 설립하여, 경제 및 국가 전반에 관한 목표와 정책수립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꼬레아정부는 “국민복리계획”(el Plan Nacional para el Buen Vivir)으로 불리기도 하는 “국가개발계획”(el Plan Nacional de Desarrollo)을 새로 수립하여, 에콰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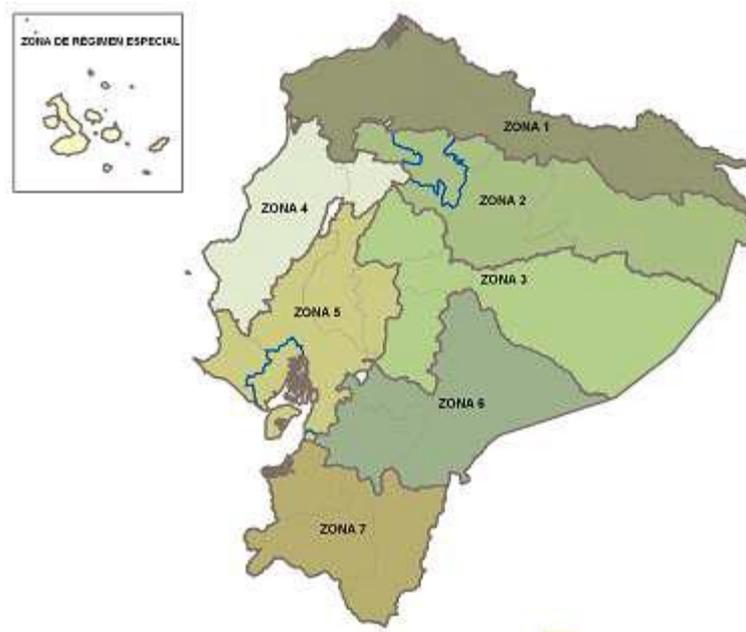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정책 및 공공투자관리 업무의 수행에 있어 기본지침으로 삼고 있다.

“국가개발계획”(2009-2013)에는 중앙정부의 행정권을 아래와 같이 7개 계획지역으로 구분하여 지방에 분권화하는 전략을 담고 있는 지방육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 지역 1: 행정중심 - 이바라(Ibarra)시
 - Esmeraldas, Carchi, Imbabura 및 Sucumbios
- 지역 2: 행정중심 - 테나(Tena)시
 - Pichincha, Napo 및 Orellana
- 지역 3: 행정중심 - 리오밤바(Riobamba)시
 - Chimborazo, Tungurahua, Pastaza 및 Cotopaxi
- 지역 4: 행정중심 - 시우다드 알파로(Ciudad Alfaro)시
 - Manabi, Galapagos 및 Santo Domingo de los Tsachilas
- 지역 5: 행정중심 - 밀라그로(Milagro)시
 - Santa Elena, Guayas 및 Los Rios y Bolivar
- 지역 6: 행정중심 - 꾸엥까(Cuenca)시
 - Canar, Azuay 및 Morona Santiago
- 지역 7: 행정중심 - 로하(Loja)시
 - El Oro, Loja y Zamora Chinchipe

이 밖의 지역구분으로는 과야quil(Guayaquil)현, 두란(Duran)현, 삼보론돈(Samborondon)현 그리고 키토 수도권구역(Metropolitan District)이 있다.

지방계획지역



자료원: 국가개발계획(2009, 2013)

이 같은 신 국가 모델에는 다음과 같은 4 가지 도전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 지역별로 상이한 세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정책의 지방화
- 세부적인 역할과 기능에 바탕을 둔 지역계획의 기준수립
- 국민복리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지역별 역동성 촉진
- 장기적 축적 및 재분배 전략; 더불어 지방지역에 대한 공공개입의 관리를 명료화하는 새로운 관리체계의 추진

5) 정부 부처

현 에콰도르정부는 국정조정관련 6개 부처, 행정기능별 21개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국정조정관련정부부처
사회개발조정부(Ministry of Coordination of Social Development)
전략조정부(Ministry Coordinator of the Strategic Sectors)
경제정책조정부(Ministry of Coordination of Economic Policy)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Ministry of Coordination of Production, Employment and Competitiveness)
안보조정부(Ministry of Coordination of Security)
지식조정부(Ministry Coordinator of Knowledge)

자료원: 에콰도르정부각의

행정기능별정부부처
교육부(Ministry of Education)
경제사회포용부(Ministry of Economic and Social Inclusion)
도시개발·주택부(Ministry of Urban Development and Housing)
외교·인권부(Ministry of Foreign Relationships, Human Movement)
재무부(Ministry of Finances)
체육부(Ministry of Sport)
관광부(Ministry of Tourism)
노동부(Ministry of Labor Relations)
보건부(Ministry of Public Health)
문화유산부(Ministry of Culture and Heritage)
환경부(Ministry of Environment)
전력재생에너지부(Ministry of Electricity and Renewable Energy)
비재생천연자원부(Ministry of Non Renewable Natural Resources)
정보통신부(Ministry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Information Society)
국방부(Ministry of National Defense)
농축수산부(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quaculture and Fishery)
운송·공공사업부(Ministry of Transport and Public Works)
내무부(Ministry of the Interior)

행정기능별정부부처
법사·인권·제례부(Ministry of Justice, Human Rights and Worships)
산업생산성부(Ministry of Industries and Productivity)
대외무역부(Ministry of Foreign Commerce)

자료원: 에콰도르 정부각의

다. 정치 안정도

현재 에콰도르는 상대적인 정치 안정기에 있다.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은 어떤 전임 대통령들보다도 높은 지지도를 누리고 있다. 꼬레아 대통령의 현금지원프로그램, 보조금 지급, 인프라 및 사회 프로젝트에의 막대한 지출 등의 소득분배적인 정책들은 저소득자 유권자층을 중심으로 강력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는 2010년 10월에 발생했던 경찰 폭동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약한 뿌리를 가진 민주주의로 인한 정치적 충성도의 급작스런 변화라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사회경제적 개혁의 느린 진척과 취약한 안보 상황, 자유주의 진영에서의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한 반발(특히 언론의 자유 침해), 그리고 석유 및 광산업에서 발생하는 환경적인 문제들을 둘러싼 인디오 그룹과의 갈등 등으로 인한 사회적 소요와 대중 불만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만약 유가가 급락하여 보조금 및 사회 프로그램 등의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잠재적인 정치적 불안정성의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꼬레아 대통령의 당선으로 2007년 이후 지속적인 정치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된다. 1996년-2006년 간 7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국이 혼란스러웠으나 현 대통령 집권 이후 안정된 개혁, 정책추진 여건이 마련되었다.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은 2013년 2월 3선에 성공하면서 2017년 까지 10년간 집권하게 되었다.

반면, 2014년 5월 대통령이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임기철폐를 선언하고 의회가 헌법개정을 위한 검토에 들어감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요인이 있다. 대통령 뜻대로 헌법개정이 이루어진다면 현 대통령은 임기 제한 없이 매 4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 따라 대통령 직을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여당인 PAIS 연합당(Alianza Pais)은 총 137개 의석 중 106석을 차지하고 있어 헌법개정을 위한 법적인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라. 대외 관계

에콰도르 대외정책의 기본 원칙은 타국의 국내 문제 불간섭, 민족자결, 주권평등,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의 국제법적 일반 원칙을 준수하며, 제국주의, 식민주의, 신 식민주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칙 아래 상호 존중 및 호혜원칙에 입각한 세계 모든 국가와의 외교, 통상 관계를 수립하며, 유엔 등 국제기구 및 역내 제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비동맹회원국으로서 비동맹운동의 목적을 견지하는 것을 정책적 목표로 삼고 있다.

1) 대 중남미 관계

일반적으로 안데안 공동체(CAN)를 근간으로 역내 기구인 미주볼리바르동맹(ALBA), 남미국가연합(UNASUR), 라틴아메리카통합연합(ALADI), 미주기구(OAS)에의 능동적 참여를 통한 우호협력관계 강화를 추구한다.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에콰도르의 외교정책의 중심이 미국, EU와의 교류에서 중남미 좌파정권과의 협력강화로 전환되면서 대 중남미 관계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다.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사망으로 3선에 성공한 꼬레아 대통령이 차기 지역 통합의 리더로 주목 받고 있어 꼬레아 대통령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현재 에콰도르의 미국, 유럽을 배제한 정치, 경제 정책방향이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며 좌파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브라질,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와의 협력 역시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 안데안 공동체

안데스 공동정체성을 기반으로 정상회의 및 외무장관회의를 통하여 공동체의 공동대외정책 방향 및 과정을 결정하고 조율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역내 평화와 안보 및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확보하고 회원국 간 정치적 연대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안데안 의회 및 재판소의 기능 확대 및 심화를 통해 공동체의 제도적 통합을 촉진하고자 한다.

2006년 페루, 콜롬비아가 미국과 독자적으로 FTA를 협상 타결하자 베네수엘라가 이에 반발해 안데안 공동체를 탈퇴하고 MERCOSUR에 가입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 때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페루, 콜롬비아 및 볼리비아를 중재하여 안데안 통합정신을 강화하고자 EU와의 정치대화, 협정 협상 및 FTA 협상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선언 및 안데안 무역 진흥법(ATPDEA)의 안데안 공동체 전 회원국에 대한 연장을 요구하는 대미공동서한을 제안한 바 있다.

□ 페루

1995년 이후 국경 분쟁으로 인해 페루와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했었으나 1998년 영구적 평화협정을 체결하면서 무역량이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 페루 선린우호정책을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저개발 지역인 페루와의 접경지대의 개발을 위하여 양국간 위원회의 설치 등을 통해 양자간 협력을 가속화하고 있다.

□ 콜롬비아

콜롬비아는 에콰도르와 전통적인 우방국이나 콜롬비아 내전으로 인한 에콰도르로의 난민 유입 문제, 콜롬비아 반정부 단체와 꼬레아 대통령과의 연대설로 불거진 외교적 갈등으로 관계가 악화되었다. 또한 2009년 초 에콰도르 정부는 무역불균형을 이유로 1346개 콜롬비아 수입 품목에 대해 특별 관세를 부과, 교역량도 크게 축소되었다. 그러나 콜롬비아와 에콰도르 양국

정상이 외교관계 회복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외교 및 통상관계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 베네수엘라

꼬레아 대통령은 에너지 국유화, 대미 FTA 반대, 사회복지부문 지출증대를 통한 빈민구제를 외채상환보다 우선시 하는 등 급진 좌파 및 반미 노선을 분명히 하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대통령의 지지를 받고 있다. 또한 차베스대통령 사후 선출된 마두로 대통령과도 돈독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석유관련 협력 의정서를 체결하여 베네수엘라가 에콰도르의 원유를 수입하고 에콰도르에 좋은 조건으로 정제된 석유를 공급하고 있어 정치적, 경제적으로 양국 간의 관계는 돈독하게 유지하고 있다.

□ 칠레

칠레와는 전통적 우호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오고 있다. 1995년 상품무역에서의 특혜를 위한 양자간 경제보완협정을 발효하였으며, 페루와의 해양경계선 분쟁에 있어 같은 입장을 공유하는 등의 친밀한 모습을 보였다. 석유, 해양수산, 관광, 마약, 문화, 과학기술 분야 등 다방면에서의 협력 관계 심화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볼리비아

역내 상대적인 약소국이라는 전통적인 친밀감을 바탕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안데안 공동체의 중소기업 지원 및 투자촉진 프로그램과 시장접근 확대 프로그램의 수혜국으로서 협조 관계에 있으며, 2년에 1회 개최되는 양국공동위원회를 운영 중이다.

2) 대미 관계

에콰도르는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우호 협력을 대외정책의 기조로 삼아 정치, 경제, 사회, 제반분야의 정책을 대미 의존관계 틀 내에서 추진해 왔으며 현재도 미국은 에콰도르의 최대 교역국이다. 그러나 꼬레아 대통령은 미군의 만타 공군기지 사용협정(미국이 마약단속 정찰비행을 목적으로 임대한 공군기지로 에콰도르에 위치, 2008년부터 계약 완료되어 미군 철수)갱신 불허 결정 및 대미 FTA 협상 반대 등의 반미 노선을 추진해 미-에콰도르 관계가 악화되었다. 미-에콰도르 FTA 협상은 2006년 이후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미국이 중남미 마약 생산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이 마약퇴치 노력에 협력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 무역 특례를 인정한 법안인 ATPDEA(Andean Trade Promotion & Drug Eradication Act)가 2006년 만료되었고 안데안 국가들이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2013년까지 연장되었으나 에콰도르 정부가 연장을 포기함으로써 양국간 통상관계 역시 다소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에콰도르는 이란과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미국과의 갈등을 빚고 있다. 2012년 에콰도르 정부가 폭로 사이트

위키리크스를 설립한 줄리언 어산지의 망명을 허용했고, 2013년 정보기관의 대규모 정보수집·감시활동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의 에콰도르 망명을 받아들인다는 정부의 발표로 미국과 관계가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3) 대아시아 관계

에콰도르는 태평양이사회(PBEC) 회원국인 점을 적극 활용, APEC 가입, 태평양 경제권의 참여를 통해 이들과의 경제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2004년 말레이시아 및 인도네시아 상주 공관 설치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하려 하며, 한국 등 아시아 국가들과 FTA 체결을 추진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석유 수출을 담보로 중국으로부터 차관 유입이 지속되는 등 중국과의 관계도 강화되는 모습이다.

마. 최근 이슈

□ 라파엘 꼬레아 대통령 3선 이후 정책방향

1996년-2006년 동안 7명의 대통령이 등장하며 정국이 혼란스러웠으나 현 대통령 집권 이후 안정된 개혁·정책 추진 여건이 마련되었고 소속당 PAIS 연합당(Alianza PAIS)은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90석(총 137석) 이상을 획득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원만한 정국운영 조건이 조성되었다. 꼬레아 대통령 취임 이후 제 1교역 파트너인 미국과는 2006년 미-에콰도르 FTA 논의를 중단한 바 있으며, 2013년-2017년 동안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또한, EU와의 FTA 협상 역시 정체돼 있어 통상확대를 위한 획기적인 조치가 요구되는 상황이고 베네수엘라, 이란, 중국 등 정치적 친분이 두터운 국가와의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집권으로 인한 정부 공공지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나 2012년 하반기 이후 정부는 수입쿼터 확대, 개인신용대출 억제정책 등을 통해 과열된 경기를 조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유가의 경우 현재 점진적인 안정화에 돌입하고 있어 정부의 투자 여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은 지속적으로 원유와 중국의 파이낸싱에 따른 정부 지출이 견인 할 것으로 전망되며 2014년은 국제유가의 완만한 상승, 국제경기의 안정화에 따라 성장요인이 있으나, 원유를 제외한 일반제품분야의 무역수지 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재정을 지속함에 따라 성장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임기 중 추진된 한국기업이 추진하는 에스메랄다스 정유소 개보수 등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는 정권이 유지됨에 따라 큰 변화 없이 추진되고 있고, 국가 생산기반시설 확대와 중공업화를 목표로 신규 정유소, 조선소, 철강 생산시설 건설 등의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아울러 부족한 전력 확충을 위해 발전소 건설 등도 활발히 추진될 예정으로, 우리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3.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개요

우리나라는 에콰도르와 1962년 공식 수교했으나 양국관계는 6·25 전쟁을 계기로 시작됐다. 6·25 전쟁 발발 시 에콰도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우리나라에 물자 원조를 제공했다. 그 뒤로 한국과 에콰도르는 제반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지속해 왔다. 특히 개발경제학자인 꼬레아 대통령은 한국의 성장 모델에 주목해 우리나라와 개발정책 경험을 공유하면서 통상, 투자 및 개발협력 등의 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

1) 경제

에콰도르는 한국의 세계 진출 역사에서 매우 의미 있는 나라이다. 1976년 국산 자동차 '포니'의 첫 수출국이자 대우건설이 첫 해외사업을 수주한 나라로서, 오늘날에는 한국산 스포츠유틸리티 자동차(SUV)가 현지시장의 3분의 2를 점유하고 매년 자국 총 수입의 약 3%(8억 달러)에 이르는 규모의 무역적자를 우리와의 교역에서 감수하고 있다.

꼬레아 대통령 정부는 우리나라와 극심한 교역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Esmeraldas 정유공장 개보수 사업, 전자통관시스템 구축 등 국책사업을 한국기업에 발주했는데, 1976년 대우건설의 도로공사 이후 30년간 한국 기업의 수주가 전무하였음을 고려하면 에콰도르 현 정부가 우리나라와 협력에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반증한다.

2012년 10월에는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어, 양국간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의지를 내비쳤다.

2) 에너지·자원

에콰도르는 석유, 구리 등 풍부한 광물자원과 단위면적당 세계 1위의 생물다양성을 갖고 있는 나라로서 우리의 미래 녹색성장 전략과 관련해 에너지, 자원 개발과 환경 등 주요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큰 나라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자원부국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이 저조했던 중남미 국가들(에콰도르를 포함)과 에너지·자원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기조 아래 제 1차 한·에콰도르 자원협력 위원회 개최(2008년), 중남미 경제협력 카라반 대표단 파견(2009년, 전략분야조정부, 광업석유부, 페트로에콰도르 등 방문), 에너지·인프라 사절단 파견(2011년) 및 에콰도르 구리광산 공동탐사 추진 및 유전광구 개발 참여 등 다양한 협력 창구를 마련하였다. 한전, SK 건설, POSCO 건설 등 다양한 한국 기업들이 에콰도르에 진출하여 수력발전, 태양력발전, 정유공사 등 플랜트 건설 및 자원개발사업을 벌이고 있다.

3) 기타

□ 문화

2011년 6월 한-에콰도르 문화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아직까지 협력이 저조한 방송, 교육, 스포츠, 청소년, 박물관 및 문화유산에 관한 교류 등 문화협력을 증진하기로 하였다.

□ ICT 산업

2011년 KOICA는 키토에서 남서쪽으로 800km 떨어진 에콰도르의 최대 도시인 과야킬시에 ICT 교육센터를 세워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했으며,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e-러닝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유엔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에 선정된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성을 인정, 한국 전자정부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적인 행정 구현에 힘쓰고 있기도 하다. 한편 에콰도르는 관세행정의 현대화를 위해 한국의 전자통관시스템을 수입하기로 2010년 결정, 2013년 2월 Ecuia-Pass(전자통관시스템)와 싱글윈도우 시스템(통관 단일창구)을 구축 완료하였다. 시스템 구축은 한국의 국가관세종합정보망운영연합회(KCingle-Cupia)가 담당하였다.

□ 교육

2011년 10월 설동근 교육과학기술부 제1차관과 에콰도르 고등교육과학기술혁신처 장관이 고등교육 및 과학기술 분야 협력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에콰도르 정부는 국가발전을 위해 추진중인 지식도시 건설사업과 유전학연구소 건설사업 등에 우리 연구기관 및 대학 지식층의 활발한 진출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환경

한국 산림청은 2012년 11월 15일 서울 국립산림과학원에서 한국-에콰도르 생물다양성 보전·산림복원 세미나를 열고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황폐산림 복구 등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2012년 6월 한국과 에콰도르가 맺은 양국 산림협력 양해각서의 후속 절차로 마련된 행사로, 참석자들은 양국의 산림복원 관련 정책과 정보를 공유하고 산림생물 다양성 보전 및 황폐산림 복구에 관한 구체적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에콰도르는 2011년 한국에서 열린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 10차 총회에서 한국과 양자회담을 갖고 자국의 고지대 황폐산림 복구 등의 사업에 한국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산림청은 에콰도르와의 산림협력이 가치 높은 생물 자원을 확보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할 바이오에너지 및 탄소배출권 확보 차원에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한국정부는 양국간 생물다양성 및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에콰도르령인 갈라파고스 제도 산타크루즈 섬에 1.5MW 규모의 태양광발전소와 에너지/생태 홍보관을 지어주기로 하기도 했다. 2014년 초 완공을 목표로 총 1천만 달러를 투입하는 이 프로젝트는 갈라파고스 지역의 전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갈라파고스 제도의 생물 다양성 및 환경 보호를 진작하기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 에콰도르 정부의 자연친화적 전력공급 정책 기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제발전경험 프로그램(KSP)

에콰도르가 수혜국 자격을 인정받아 한국은 2011년까지 예정되어 있던 경제발전경험 프로그램(KSP)을 2014년까지 연장하기로 공식 승인했다. 이 협력프로그램은 우선 산업분야의 프로세스, 기술 및 교육의 관점에서부터 근본적인 방침을 개발하는데 초점을 둘 것이며 또한 통상협정을 위한 타당성 공동연구를 실행하기 위한 재원도 포함한다.

II. 경제

1. 경제지표 DB

구분	지표	단위	2014년 6월 기준				
국가일반	인구	(명)	16,023,932명				
	면적	Km2	283,561 km2				
	한반도 대비면적	배	약 1.3배				
	지표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
대내 경제	경제성장률	%	3.0	7.8	5.1	4.5	4.6
	1인당 GDP	US\$	4,501	5,035	5,425	-	-
	명목 GDP	십억US\$	96.6	79.8	87.5	93.7	101.0
	정부부채/GDP	%	17.8	17.2	20.2	23.2	29.8
	소비자물가상승률	%	3.3	5.4	4.2	2.8	3.3
	민간소비증가율	%	5.3	6.2	4.0	4.3	-
	실업률	%	7.6	6.0	4.9	4.7	5.1
대외 경제	수출실적	백만US\$	18,137	23,083	24,654	24,693	6,603 (1~3월)
	수입실적	백만US\$	-19,641	-23,243	-24,584	-26,331	6,421 (1~3월)
	무역수지	백만US\$	-1,504	-161	37	-638	-202 (1~3월)
	외국인투자금액 (당해 분)	천US\$	163,046	641,583	591,315	702,823	-
	총 외채	백만US\$	14,963	16,497	16,931	19,263	23,310
	외환보유고	백만US\$	2,622	2,958	2,483	4,352	4,678
	이자율	백만US\$	526	571	705	681	758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년 6월 전망치), 에콰도르중앙은행(EBC)

2. 경제동향 및 전망

가. 에콰도르 경제 개관

구분	단위	2010	2011	2012	2013	2014(6월)
인구(백만)	백만 명	14.5	14.7	15.2	15.1	15.3
명목GDP	십억US\$	69.6	79.8	87.5	93.7	101.0
1인당GDP	US\$	4,501	5,035	5,425	-	-
실질 GDP성장률	%	3.0	7.8	5.1	4.5	4.6
소비자 물가상승률	%	3.3	5.4	4.2	2.8	3.3
실업률	%	7.6	6.0	4.9	4.7	5.1
수출	백만 US\$ (fob)	18,137	23,083	24,654	24,693	6,603 (1~3월)
수입	백만 US\$ (fob)	-19,641	-23,243	-24,532	-26,331	6,421 (1~3월)
대외부채	백만 US\$	14,963	16,497	16,931	19,263	23,310
외환보유고	백만 US\$	2,622	2,958	2,483	4,352	4,678

자료원: EIU country report (2014년 6월 기준), World Bank

에콰도르의 경제는 작지만 상당히 개방되어 있고,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대단히 높다. 석유 생산은 전통적으로 외국인직접투자에 강하게 의존하고 있는데, 석유 부문이 총 GDP의 14%~20%, 수출로 벌어들이는 소득의 절반 이상, 정부 수입의 20%~30%를 차지하고 있다.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니 국제 유가 변동 등 외부 충격에 취약하다는 점이 에콰도르 경제의 단점이다.

석유 의존도와 함께 에콰도르 경제를 외부 충격에 취약하게 하는 요인으로 두 가지를 더 들 수 있는데, 첫째 커피, 새우, 바나나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수출국임) 등 1차 산업에 지나치게 특화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가뭄,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 등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둘째 2000년부터 시작된 미 달러 공용 화폐화 조치는 거시경제안정에 상당 부분 기여하기도 했지만, 외부에서 발생한 충격을 통화 정책으로 대응하기 힘들게 함으로써 에콰도르 경제를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석유 수출가가 하락하고 석유 생산에의 외국인투자 감소로 인한 생산량이 감소함에 따라 경제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또한 에콰도르의 주요 외화수입을 차지하는 미국, 스페인 등에서의 해외 송금과, 석유수출로 인한 소득이 큰 폭으로

감소하여 재정상황의 악화를 초래하였다. 이에, 에콰도르정부는 2008년 말 디폴트를 선언, 국제 신인도가 크게 하락하였다.

2008년 이후 정부는 대외 부채 상환 및 경제 다변화에 힘쓰기 시작하였다. 수입을 줄이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 및 내부지향적인 경제개발전략을 2008년 신헌법에 포함시켰는데, 이러한 전략들은 선택적인 수입 대체 분야에의 투자, 고부가가치 산업 성장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산업 육성이 주요 비즈니스 지구가 아닌 외곽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동시에, 공공시설이나 인프라 등 전략적인 분야를 중심으로 국가의 경제에 대한 폭넓은 개입이 행해졌으며 정부 지출 및 투자가 크게 늘어 이를 위한 세제 확충 및 건실한 재정 운영이 경제 정책의 중요 포인트로 등장하게 되었다.

글로벌경제위기로 2008년 7.2%에서 2009년 0.6%로 떨어졌던 경제성장률은 2010년 글로벌 경제 환경이 호전됨에 따라 3.0%로 상승했으며, 2011년 7.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고유가, 공공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 및 경기 회복에 따른 내수 진작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성장률은 고유가로 인해 정부가 공공 부문에 지출할 수 있는 세입이 늘어난 데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가 폭락 등의 외부적 변동에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며 보아야 한다. 또한 꼬레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및 반기업적 정책으로 인해 석유산업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가 지연되었고 석유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어 단기적으로는 에콰도르 경제 전망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부정적인 실정이다.

그러나 2006년 평균 53만 6천 배럴에서 2010년 초 평균 46만 6천 배럴까지 떨어졌던 에콰도르의 일일 원유 생산량은 다시 안정적 증가세를 되찾아, 2012년 7월에는 2011년 2월 이후 최대치인 평균 50만 8백 배럴을 생산했으며 2017년에는 예전의 53만 배럴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장기적으로는 상황이 호전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꼬레아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 및 전략 산업 육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반기업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부 산업 부문을 중심으로 경제가 추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나. 부문별 동향 및 전망

1) 경제성장률

EIU 보고서에 의하면, 고유가와 정부 지출 증가에 힘입어 2011년 7.8%를 기록한 에콰도르의 경제성장률은 2012년에는 5.1%를 기록했다. 그러나 5.1%라는 수치는 2011년의 7.8%에 비하면 크게 감소한 것으로, 2013년에 4.5% 수준으로 둔화되었다. 이는 유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며 선거 특수로 인한 정부 지출 증가 및 경기 부양 효과가 효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 성장률의 증가는 글로벌 경제 위기 및 유로존 위기의 여파가 가라앉고 유가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2015년경부터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의 경제 다변화 정책 및 외국인투자유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반되지 못한다면 여전히 국제 유가 및 1차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 및 국제식량가격 등에 경제 성장률이 크게 요동칠 수 있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 물가상승률

에콰도르는 달러공용화 정책 도입 이전에는 물가상승률이 100%에 육박하는 등 인플레이가 경제성장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였으나, 2000년 달러 공용화 제도를 도입한 이래 물가상승률 하향 안정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2008년에는 국제 식료품 및 원자재 가격 상승, 상반기 중 내수 회복에 따른 소비 증가 등으로 2002년 이후 가장 높은 8.8%를 기록하였지만 2009년 이후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성장세 둔화 및 이에 따른 국내 수요 감소, 달러화 강세에 따른 수입단가 하락 등에 힘입어 물가상승률이 다시 하향 안정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코레아 행정부의 높은 정부지출과, 정치화되어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 조정을 마음껏 할 수 없는 통화정책의 한계 등은 여전히 잠재적인 인플레이율 상승 가능성의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향후 정부지출이 더욱 증가할 것 같지 않은데다가 정부의 기초 생필품 및 석유 가격에 대한 보조금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2013년부터 4%의 안정적인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대외 부문

에콰도르는 2003년까지 상품수지와 경상수지가 만성적인 적자를 기록해 왔으나, 원유수출 및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 등에 힘입어 2004년 이후 흑자로 반전하였다. 그러나 유가 안정세로 인한 석유 수출 소득의 감소 및 수출량의 증가를 앞지른 수입량으로 인해 경상수지는 2010년 적자로 돌아섰고 2012년에는 14억 9천 달러를 기록, 2013년에도 적자폭은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 외에도 서비스 부문에서의 높은 해외 의존도로 인한 서비스 수지 적자, 부채 상환금 및 외국 기업들의 높은 과실송금 비율 등이 소득수지 적자가 경상수지 적자의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외화 벌이에 두 번째로 큰 기여를 하는 해외근로자 송금으로 인해 소득이전수지의 흑자폭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수입대체 및 수출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무역수지는 적자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서비스수지 및 소득수지 적자 역시 구조적인 요인으로 인해 쉽게 흑자로 반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동향 및 전망

(단위: 백만 US\$)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무역수지	144	-1,504	-160	70	-638	-202	-337
상품 수출(fob)	14,412	18,137	23,083	24,654	25,693	26,781	28,659
상품 수입(fob)	-14,268	-19,641	-23,243	-24,584	-26,331	-26,982	-28,996
서비스수지	-1,283	-1,523	-1,563	-1,407	-1,502	-1,651	-1,634
경상이전수지	2,717	2,459	2,721	2,486	2,278	2,759	2,956
경상수지	297	-1,608	-225	-177	-1,290	-479	-928

주: 2013, 2014년은 EIU 예상치

자료원: EIU (2014년 6월 기준)

다. 경제정책

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유치하고자 하나 에너지 산업 등 전략적인 부문의 산업에 대해 국가의 통제력을 강화함에 따라 외국인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 인프라 부문 등 공공 부문에의 정부 지출은 지속될 전망이나 최근 수입 쿼터 범위 확장, 유동성 감소, 소비자 신용 구매의 제한 등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소비자 지출을 자제시켜 수입량을 줄이고 만성 무역 적자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1) 재정정책

꼬레아 대통령이 2013년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및 재정 확대 정책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유가 하락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 상황이 악화될 경우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힐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부는 2008년 디폴트 선언으로 국제 신용도가 낮아져 외부에서 돈을 빌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나 중국에서의 추가 차관 도입으로 단기적으로는 정부 지출을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콰도르는 러시아와 인도 등에서의 차관 도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재정 적자는 앞으로도 GDP의 4.5%~6% 수준으로 유지될 전망이며, 정부는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탈세 비율을 낮춰 조세 수입원을 확충하는 등의 조세 개혁에 힘을 쓰고 있다. 에콰도르의 공공 부채 수준은 신흥시장국가들의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낮은 국제신인도로 인해 외부자금 조달 경로가 제한되어 있다.

정부는 외부자금의 유치경로를 다변화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도하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8년만에 국채 재발행을 단행하였다. 재발행 액수는 총 20억 달러로, 이자율은 7.89%로 진행되고 있다.

2) 통화정책

2000년부터 달러화된 경제로 인해 통화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통화, 신용, 이자율, 재정 정책의 조정은 행정부가 전적으로 주관하고 있으며, 중앙은행(BCE, Central Bank of Ecuador)이 행정부의 명령을 받아 이를 실행하고 있다. 자국 통화가 없는 관계로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하지 못하고, 이자율 상한선을 거시경제의 안정을 위해 조절하기보다 정부의 명령에 따르고 있어 통화정책이 거시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적은 실정이다. 이자율은 2005년 수준 이래로 큰 변화는 없다.

3.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구조

산업별 규모 및 GDP 대비 비중

(단위: 백만 US\$,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농업, 목축업, 임업, 수렵	4331 (7.9)	4378 (7.8)	4578 (7.6)	4581 (7.2)	4848 (6.1)
새우 양식 및 어업	239 (0.4)	284 (0.5)	332 (0.5)	376 (0.6)	366 (7.4)
수산업(새우 제외)	363 (0.7)	350 (0.6)	371 (0.6)	385 (0.6)	421 (6.3)
광산업, 석유 채굴	5950 (10.9)	5958 (10.6)	6173 (10.2)	6264 (9.8)	6592 (5.2)
석유 정제	1049 (1.9)	803 (1.4)	906 (1.5)	780 (1.2)	633 (-25.1)
제조업(석유 정제 제외)	6533 (12.0)	6711 (11.9)	7029 (11.6)	7389 (11.6)	7944 (3.6)
전력, 수자원	685 (1.3)	688 (1.2)	884 (1.5)	924 (1.5)	1292 (4.4)
건설업	4494 (8.2)	4710 (8.4)	5725 (9.5)	6527 (10.3)	6997 (8.6)
서비스업	28699 (52.6)	29835 (53.2)	31778 (52.6)	33384 (52.7)	-
-도소매유통	5700 (10.4)	6162 (11.0)	6531 (10.8)	6726 (10.6)	6651 (3.3)
-숙박, 요식업	990 (1.8)	1064 (1.9)	1209 (2.0)	1312 (2.1)	1352 (6.3)
-운송업	3631 (6.7)	3752 (6.7)	4031 (6.7)	4263 (6.7)	4462 (5.9)
-우편 및 통신	1622 (3.0)	1655 (2.9)	1836 (3.0)	1965 (3.1)	2346 (8.0)
-금융업	1419 (2.6)	1495 (2.7)	1668 (2.8)	1739 (2.7)	1832 (0.9)
-전문, 기술, 행정 서비스	3360 (6.2)	3527 (6.3)	3767 (6.2)	3955 (6.2)	4121 (5.3)
-정부 서비스	3165 (5.8)	3234 (5.8)	3388 (5.6)	3703 (5.8)	3967 (4.1)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6월
-교육, 건강, 사회복지	4479 (8.2)	4487 (8.0)	4699 (7.8)	4989 (7.8)	5570 (4.3)
-기타 서비스*	4162 (7.6)	4281 (7.6)	4480 (7.4)	4584 (7.2)	4560 (2.1)
-가사	171 (0.3)	178 (0.3)	169 (0.3)	148 (0.2)	154 (0.7)
총 부가가치	52351 (96.0)	53724 (95.6)	57784 (95.4)	60618 (95.2)	64106 (4.5)
GDP의 기타 요소	2206 (4.0)	2444 (4.4)	2784 (4.6)	3054 (4.8)	2772 (4.6)
총 GDP	54557	56168	60569	63672	66879

주: * 행정, 국방, 의무사회보장제도 포함

**부동산, 오락, 레크리에이션 등의 서비스업 포함

() 안은 GDP 대비 차지 비중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2013년 기준

나. 농수산업

1차 산업 성장률

(단위: %)

1차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목축업, 임업, 수렵	0.8	0.4	0.6	5.9	0.1	6.1
새우 양식 및 어업	3.9	4.1	9.0	22.1	13.3	7.4
수산업(새우 제외)	9.8	-3.0	-1.4	6.2	3.8	6.3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에콰도르 국토 면적 1/3 정도는 농지이며 전체 노동 가능 인구 중 14%가 농업에 종사한다. 그러나 농업의 중요성은 계속 줄어들어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25%, 1990년대 14%, 2001년~2005년에는 8%로 감소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세계 최대의 바나나 생산국으로 국영 Corporacion Bananera Noboa 사가 가장 큰 바나나 수출업체이다. 바나나경작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20만 명이고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수출한다. 그 밖에 커피, 카카오 등도 주요 작물로서 해마다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장미 생산도 급증해 주요 수출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수출용 작물이 아닌 농작물의 경우에는 대부분 영세성을 보이고 있으며 생산성과 기계화 정도가 매우 낮다. 농민의 은행 대출 등 혜택은 매우 받기 어려우며 관개시설도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수산물의 경우 새우 양식 및 어업이 활발하다. 양식업은 Guayas, Esmeraldas 지역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1998년 세계 4위의 새우 양식국가로 올라섰다.

다. 석유 산업

에콰도르가 본격적인 석유개발을 시작한 것은 1970년대로서 역동적인 산업 개발을 추진한 결과 1990년대에는 1일 37만~38만 배럴의 석유생산이 가능하게 됐다. 송유관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에콰도르횡단송유관시스템(Sistema del Oleo ducto Trans Ecuatoriano: SOTE)으로서 1일 39만 배럴의 석유 운반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석유 생산은 아마존 유역에서 이루어지며 주요 생산석유는 Oriente (medium- heavy, medium-sour), Napo (heavy, sour)가 있다.

에콰도르는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석유수출국 중 하나이다. 2010년의 석유 수출량은 일일 285,000배럴에 달하였다. 석유 부문은 에콰도르 수출 소득의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세 수입원의 1/3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석유 수출국임에도 불구하고 정유시설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아 정유를 수입해야 하는 처지이다. 이에 따라, 고유가가 지속될 때 원유 수출가와 동시에 정유 수입가가 함께 상승하기 때문에 고유가 현상에서 오는 경제적인 이득이 크게 없는 편이다. 주요 정유시설은 북쪽 해안지역의 Esmeraldas 및 남쪽 해안지역의 La Libertad에 주로 위치해있으나 노후화했을 뿐만 아니라 석유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에콰도르는 현재 Esmeraldas 정유소 개보수 작업에 9억 8천만 달러를 투입하고 있다. 또한, 태평양 만타 지역에 120억 달러의 자금이 필요한 태평양정유소(Refinery of Pacific)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에콰도르는 OPEC(the Organization of the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에 재가입했는데, 이는 1992년에 OPEC을 탈퇴한 이후 15년 만의 복귀이다. 에콰도르의 석유 생산량 순위는 OPEC에서는 하위권으로, 하루 434,000배럴의 생산량 키퍼를 할당 받고 있다.

에콰도르의 석유 생산량은 2006년 이후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이는 꼬레아 정부의 에너지 국유화 정책으로 투자환경이 악화되었으며 2008년 디폴트 선언 이후 신규 외국인 투자 유치 및 차관 도입 등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원유 생산량은 5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증가한 에콰도르의 원유 수출의 상당량은 중국으로 가게 되는데, 이는 중국이 석유 수출 약속을 담보로 에콰도르에 차관을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석유 부존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2년 말 72억 1천만 배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남미에서 베네수엘라와 브라질 다음으로 3번째를 차지하는 부존량이다. 또한 생산량으로서는 남미에서 다섯 번째를 차지한다. 투자 환경의 악화로 2010년 486,000 배럴까지 떨어졌던 일일 원유 생산량은 2011년 소폭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조금씩 증가해

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석유 생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업은 국영 기업인 Petroamazonas이다. Petroamazonas는 국가 원유 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한다. 주요 외국인 소유 석유 회사로는 Repsol-YPF, Eni, 그리고 중국계 기업들의 콘소시움인 Andes Petroleum가 있다. 2010년 11월 에콰도르 정부는 새로운 화력발전자원법 아래 석유 회사들과의 계약을 재협상하였다. 새로운 법은 회사들에게 '서비스 동의(Service agreement)'를 강요하였는데, 새로운 법령 아래 석유 회사들은 생산한 석유의 일부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배럴당 일정 액수를 돈으로 받게 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 수입원을 확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Petrobras, Noble Energy 등 몇몇 외국 기업을 에콰도르에서 나가게 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동 법안을 비롯해 여러 민족주의적 정책들이 에너지 국유화의 기초를 보이고 있다.

원유 생산의 증가는 8억 5천만 배럴의 부존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Ishipingo-Tambococha-Triputini(ITT) 유전의 개발개발과 함께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5월 국가기업인 Petroamazonas는 에콰도르 환경부로부터 ITT 지역 유전개발에 대한 환경승인을 획득하였다. 2015년 연말부터는 ITT지역의 원유생산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 광업 및 반가공 산업

에콰도르에서 나오는 광물로는 금, 은, 동, 아연, 납, 철, 우라늄, 마그네슘, 황, 석회, kaolin 등이 있다. 건축 자재 채굴 산업도 활발한 편이다. 남쪽 지방인 Zamora-Chinchipe, El Oro, Azuay 등에는 금속 광물이 많아 광산이 집중되어 있다. 최근 Oriente지역에서 동 광맥을 발견해 수 개의 광산업체들이 탐사 중에 있다. 2013년 6월에 광업법 개정이 통과되면서 현재 금의 국제시세가 높아지면서 그 수익의 배분 문제로 8월에 Kinross사는 철수 예정이고 다른 회사를 찾고 있다.

마. 제조업

제조업은 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특히 1990년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급하게 철폐하는 바람에 국내 제조업계는 심한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좁은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에서 이제는 넓은 수출시장으로 눈을 돌린 국내 제조업체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러나 과거 경쟁국 업체보다 더 낮은 생산비라는 우월한 조건에서 생산하던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달러화(dollarization)의 결과 비용상승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조업체도 기업 영위에 필요한 신용 조달이 매우 어렵다. 미국과의 무역 의존도가 높은 탓에 지속되고 있는 달러화 약세에서 오는 수출 경쟁력의 증가라는 효과 역시 상쇄되어 제조업의 성장은 다소 저조한 상황이다.

제조업 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3.3	2.6	6.4	4.9	4.1	9.2	0.4	3.2	4.8	4.6	3.6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주요 수출품으로는 식료품, 음료, 담배, canned fish(특히 참치)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참치의 경우 미국과의 FTA를 이미 체결한 중미 지역업체 대비 가격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다. 1990년대 초 보세가공업(off-shore assembly for re-export) 진흥을 위한 법률도 제정했으나 그에 대한 투자는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Zofree(Esmeralda), Metrozona(Quito), Zorframa(Manabi)의 3군데의 수출 가공 지역이 있다.

바. 건설업

에콰도르 정부는 저임금, 비숙련 도시노동자는 주로 송유관 공사에 투입해 실업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OCP(Oleoducto de Crudos Pesados: 중유파이프라인)이다. 이 프로젝트를 실시함으로써 1998년~1999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2001년~2002년 건설분야가 20% 정도씩 성장할 수 있었다.

건설분야는 꼬레아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플랜트 건설 및 각종 인프라에 대한 대규모 투자로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높은 성장률을 유지하였다. 특히 2011년에는 21.6%의 괄목할 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는데, 이는 2011년 2월 중국의 최대 석유회사인 PetroChina와 계약 갱신과 함께 10억 달러, 같은 해 6월 중국개발은행에서 20억 달러, 7월 중국수출입은행에서 5억 7천 1백만 달러 등 석유 수출을 담보로 한 중국에서의 차관으로 건설 부문에의 정부 투자가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향후 선거 특수 및 꼬레아 대통령 재선 후 공공부문에의 투자를 확대하는 정책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건설업 분야의 전망은 좋은 편이다.

건설업 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1.0	5.2	8.6	4.6	1.0	8.8	7.0	4.9	21.6	14.0	8.6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사. 금융업

1998년~1999년 은행산업 위기로 은행 전반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었고 금융 서비스가 붕괴 상태에 들어가기도 했다. 달러화 이후 경제가 안정되고 금융 서비스 수요가 확대되어

2005년~2006년 사이 금융업 성장률이 20%에 달하였으나 인근 국가들에 비해 에콰도르의 금융산업은 아직 미개발 상태이다.

매년 은행저축이 늘긴 하였으나 아직 인접국들의 비하면 전체 GDP 대비 저축 비율은 23%로 낮은 편이다(브라질 30%, 칠레 50% 수준, 2010년 기준). 이렇게 금융산업이 침체된 것은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에콰도르의 1인당 소득은 2003년 \$1,890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4,010에 도달하여, 증가 추세를 뚜렷이 나타내고는 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PPP 기준으로는 2003년 \$5,210→2011년 \$8,310)

은행이 가장 중요한 금융서비스 기관이며 기타의 자본시장은 미개발 상태이다.

금융업 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0.5	9.6	22.1	19.9	2.9	6.4	3.0	5.3	11.4	4.2	0.9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아. 관광

관광은 석유, 바나나 다음으로 중요한 외화 수입원이다. 국토는 좁으나 비교적 다양한 지형으로 풍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갈라파고스 제도(Galápagos Islands)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로 손꼽힌다.

에콰도르 방문 관광객 수 추이

(단위: 명)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860,000	841,000	937,000	1,005,297	968,499	1,047,098	1,141,037	1,271,953	1366269

자료원: 세계은행

전 세계적으로 에코투어리즘이 각광받게 됨에 따라 천혜의 자연을 보유한 에콰도르의 관광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른 숙박업, 요식업 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3년 관광객 유입 수는 7.42%의 성장률을 보였다.

숙박, 요식업 성장률 추이

(단위: %)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6
3.3	4.9	6.0	7.8	2.1	5.3	5.3	6.7	13.4	12.0	6.3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4. 지역무역협정 체결현황

가. 개요

에콰도르의 무역협정은 주변국인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를 중심으로 한 안데안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콜롬비아, 페루의 FTA 확대(동 국가는 미국, EU, 한국, 중국과의 FTA를 추진)와 함께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2000년대말부터 EU와의 무역협정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정치상황과 EU와의 의견불일치로 협정이 지지부진해 왔다. 하지만 2014년 들어 에콰도르 정부는 연내 협정타결을 목표로 활발하게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협정추진의 배경으로는 2014년 12월 만료되는 EU특혜관세가 지목되고 있다. 저개발 대상국에 부여되는 EU의 특혜관세가 에콰도르의 경제성장과 함께 2014년 만료를 앞두고 있다. 특혜관세가 만료될 경우, 에콰도르는 농산물 수출 경쟁국가인 콜롬비아, 페루에 비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콜롬비아와 페루는 이미 EU와 FTA를 체결한 관계로 저관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이다. EU와의 무역협정 체결 추진과 함께 에콰도르의 대외무역정책 또한 크게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에콰도르가 속해 있거나 협상중인 지역무역협정은 다음과 같다.

1) 상호호혜적 협정

□ 안데안 공동체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Andean Community of Nations, CAN)의 일원이며, 안데안 공동체의 주요 목표들 중 하나는 자유무역지대의 수립 및 궁극적으로는 관세 동맹을 형성하는 것이다. 모든 품목에 대해 무관세를 보장하는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베네수엘라는 2006년 탈퇴)는 1993년 형성되었으며,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였다. 에콰도르와 페루는 국경 분쟁으로 2000년이 되어서야 FTA 관계가 정상화될 수 있었다. 역내관세철폐를 넘어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는 관세 동맹으로의 진화는 2002년에 마무리 짓기로 되어 있던 역외공동관세의 실행이 계속해서 연기되면서 교착 상태에 빠졌다. 2007년 8월 고위관세정책추진회(High Level Working Group on Tariff Policy)가 만들어져 2008년까지 모든 회원국들을 아우르는 관세 정책의 초안을 제출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그 뒤로 주목할 만한 진전은 없는 상태이다. 안데안 공동체와 베네수엘라 간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에 준하여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협정이 2011년 4월 만료됨에 따라 경제협력보완협정(Economic Cooperation and Complementarity Agreement)으로 대체되었다.

□ LAIA(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에콰도르는 1980년부터 라틴아메리카 통합 협회(Latin American Integration Association, LAIA)의 일원이다. LAIA의 장기 목표는 모든 회원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지대를 만드는 것으로, 회원국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멕시코, 파라과이, 페루, 우루과이다. 에콰도르는 LAIA의 회원국들 중 칠레, 쿠바, MERCOSUR(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멕시코와 부분적 무역 협정(Partial Scope Agreement)를 체결하였다. LAIA의 회원국들에 대한 에콰도르의 관세 감축은 세율에 있어서는 거의 무관세이며 대상 품목에 있어서는 최소 3.3%(쿠바)부터 99.4%(브라질)까지 다양하다. 칠레와의 부분적 무역협정은 230개 가량의 농업 생산품을 제외하고 있다.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베네수엘라가 MERCOSUR와 공동으로 체결한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에서 수입하는 물품의 약 1/5에 관세가 철폐되었고, 나머지 4/5는 최대 2018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또한 2011년 4월 에콰도르는 LAIA의 회원국인 과테말라와 부분적 경제보완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이 협정으로 인해 약 700개 품목에 대해 점진적인 무역 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민감한 커피와 바나나 등의 품목은 제외되었다.

□ 개발도상국가간 특혜무역제도 (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에콰도르는 개발도상국가간 특혜무역제도(Global System of Trade Preference among Developing Countries, GSTP)의 회원으로, 동 협정 회원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여섯 개 품목에 대해 기존 관세의 10~40%만큼 관세를 감축하고 있다. 한국도 동 협정에 가입되어 있다.

에콰도르 GSTP 관세 감축율

관세품목코드	품목	관세	
		기존관세율	GSTP 특혜 적용 비율
22.09.02.11	럼주	160%	10%
22.09.03.05	증류주	80%	10%
40.02.02.01	합성고무 polybutadiene-styrene(sbr)	10%	20%
40.02.02.02	합성고무 Polybutadiene(br)	10%	20%
56.01.03.00	폴리에스테르	15%	20%
85.01.90.00	차량, 발전기, 변성기 부품 및 액세서리	15%	40%

주: 특혜 적용 비율은 기존 관세액을 할인해 주는 비율로서 표시됨

자료원: WTO

□ 기타

2008년 5월, 에콰도르는 남미의 정치경제통합 이니셔티브인 Union South American Nations에 가입하였다. UNASUR의 회원국은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가이아나, 파라과이, 페루, 수리남, 우루과이다. 2009년 8월에는 경제, 정치, 사회적 통합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통합체인 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Nations of Our America(ALBA)에 가입하였다. ALBA의 회원국은 에콰도르, 안티가바부다,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쿠바, 도미니카, 니카라과,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이다. ALBA는 무역자유화보다는 사회복지, 물물교환, 상호경제원조에 초점을 둔 협력체이며, 현재 'SUCRE(Unitary System of Regional Compensation)'라는 새로운 지역 화폐를 도입하려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미화 1달러당 1.25 SUCRE의 환율이 적용되었으며 현재는 공동의 가상 화폐로 도입되었으나 향후에는 실제 화폐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0년 5월 베네수엘라와 에콰도르는 처음으로 달러 대신 SUCRE를 사용하여 무역 거래를 성사시켰다.

□ 협상중인 협정

에콰도르는 EU와의 무역협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4년 6월 양자간 3차협상이 이루어졌으며, 에콰도르는 2014년 연내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농산물,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지역명 사용권 분야의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반면, 미국과의 FTA 협상은 2006년 중단된 뒤로 재개되지 않고 있다.

터키와의 개발무역협정(Trade for Development Agreement)은 타결 직전 단계에 있으며, 전략적 혹은 잠재적 무역교역국들(중국, 한국, GCC, EFTA, 중앙아메리카 국가들)과의 특혜 협정이 검토되고 있다. 그리고 남미의 경제블럭인 MERCOSUR 가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MERCOSUR에 가입할 경우 독자적인 무역협정 체결이 불가능해 상기 협정 추진이 난관에 빠질 우려가 있다.

2) 일방적 특혜 협정

□ 일반특혜무역제도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Scheme)

에콰도르는 일반특혜무역제도(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Scheme, GSP)의 특혜사항을 호주, 불가리아, 캐나다, EU, 일본, 뉴질랜드, 러시아, 터키, 스위스,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EU와 미국의 GSP 적용이 수출 규모와 노동자 이동의 측면에서 에콰도르에게 유의미한 사항이다. 2014년 12월 31일까지 재연장된 상태이다.

□ ATPDEA(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

또한 에콰도르의 미국으로의 많은 품목들이 안데안 무역촉진 및 마약근절특별법(ATPDEA, Andean Trade Promotion and Drug Eradication Act)하에 무관세 혜택을 받았었다. ATPDEA는 미국이 중남미 마약 생산국(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 에콰도르 등)이 마약퇴치 노력에 협력하는 대가로 이들 국가들의 대미 수출품에 대한 수입관세 면제 등 무역특례를 인정한 법안이다. 에콰도르는 2013년 8월까지 동 법에 의해 관세혜택을 받아왔으나, 전 미국 정보국 직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을 둘러싼 양 국가간의 분쟁 시, 에콰도르가 일방적으로 ATPDEA 혜택을 포기함으로써 혜택이 종료되었다.

□ EU 무역협정

2014년 7월 11일 에콰도르-EU 간 통상협정이 최종 타결되었음. 현재까지 에콰도르 정부는 금번 협상결과에 대한 주요 내용 및 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발표를 하지 않고 있으나 에콰도르 언론들은 기 체결한 콜롬비아-EU 및 페루-EU간 통상협정 내용과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대외무역부 장관은 에콰도르 측에서 제기한 농업 및 지적재산권, 공공조달 등 민감한 분야에서 에콰도르의 이익을 최대한 지켜냈다고 평가함.

III. 무역

1. 수출입동향

가. 개요

에콰도르는 수출의 약 50%를 석유가 차지하고 있어, 국제 유가 변화에 따라 수출액이 함께 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에콰도르는 석유 정제 시설이 부족해 정유를 주변국(특히 베네수엘라)에서 수입하므로, 국제 유가와 수출액에 발맞춰 수입액 또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

에콰도르의 무역 수지는 2004년 이후 흑자로 돌아서 2008년까지 소폭의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수출 감소폭이 수입 감소폭보다 높아 적자로 돌아섰으며 2010년과 2011년에도 적자를 유지했다. 2012년에는 나아진 소폭 흑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연도별 수출입 추이

(단위: US\$ 천, %)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수출	13,863,058 (-26.33)	17,489,927 (26.16)	22,345,205 (28.30)	23,728,355 (6.19)	24,959,353 (5.19)
수입	15,589,892 (-19.83)	20,590,855 (37.01)	24,286,067 (20.66)	25,304,204 (4.91)	27,030,014 (6.82)
무역수지	-1,446,211	-2,711,149	-1,940,858	-1,575,848	-2,070,661

주: 괄호 안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1) 주요 수출입 품목

주요 수출 품목

(단위: US\$ 천)

순위	HS 코드	품목	2011	2012	2013	2014 (3월기준)
총계			22,345,205	23,728,355	24,959,353	6,421,436
1	2709	석유와 역청유(원유)	11,802,653	13,801,682	11,258,456	3,559,903
2	0803	바나나	2,246,350	2,174,706	1,951,889	692,514
3	0306	새우	1,176,453	1,605,810	1,417,953	723,956
4	1604	가공/저장처리된 생선	1,033,870	1,112,795	499,860	277,228

순위	HS 코드	품목	2011	2012	2013	2014 (3월기준)
5	0603	절화와 꽃봉오리	870,254	705,220	1,157,942	236,262
6	1801	카카오	679,902	450,675	718,775	143,740
7	71	진주/코인	471,652	396,300	311,845	205,877
8	1511	팜유	302,175	384,902	183,968	89,780
9	20	건과류/가공 과일	192,919	233,193	64,055	63,203
10	44	목재	153,846	193,243	59,669	60,596

주: 순위는 2014년 누계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에콰도르의 주요 수출 품목은 대부분 1차 산업군에 속하는데, 2012년 누계 기준 총 수출액에서 1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7.6%에 달하였다. 원유가 총 수출액의 50% 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바나나, 새우, 생선, 꽃, 의약품 등이 수출되고 있다.

주요 수입 품목

(단위: US\$ 천)

순위	HS 코드	품목명	2011	2012	2013	2014 (3월기준)
총계			24,286,064	25,304,204	27,030,014	6,421,436
1	2710	석유 및 역청유(원유 제외)	5,406,646	5,644,689	6,268,026	1,717,687
2	2707	고온 콜타르의 증류물	2,861,186	3,353,602	3,423,270	802,061
3	3004	의약품	2,211,013	2,277,840	2,702,305	526,627
4	8703	승용차	2,225,512	2,268,605	2,229,041	513,246
5	8704	화물용 자동차	1,063,632	1,055,514	1,138,146	279,352
6	2711	석유 가스와 기타 탄화수소 가스	953,134	985,266	1,025,876	229,144
7	8517	전화기	901,027	776,309	946,112	197,542
8	8471	컴퓨터	666,749	718,545	722,423	175,964
9	7304	튜브, 파이프	478,078	528,979	570,648	130,631
10	8528	텔레비전	382,907	419,853	503,922	128,081

주: 순위는 2014년 누계 기준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에콰도르 중앙은행(Central Bank of Ecuador)

에콰도르의 수입품 1, 2위는 정제된 석유이며 제조업이 발달되지 않은 탓에 자동차, 전화기, 컴퓨터, 텔레비전 등의 기계류를 많이 수입하고 있고 건설업 및 인프라 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건설용 기계 및 차량 등의 수입이 증가세에 있다.

2) 주요 교역 상대국

국가별 수출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순위	국가	2014 (3월 기준)
총계		22345.21	23728.35	24959.35	총계		660.94
1	미국	10006.4 (44.78)	23728.3 (44.78)	11109.0 (44.99)	1	미국	2,963,869 (44.88)
2	칠레	1724.356 (7.72)	1,989,350 (4.02)	2,458,921 (8.38)	2	칠레	561,169 (8.50)
3	페루	1473.870 (6.6)	1,990,932 (7.72)	1,882,575 (8.39)	3	페루	531,472 (8.05)
4	콜롬비아	1035.753 (4.64)	1,050,930 (4.58)	921,955 (4.43)	4	파나마	470,311 (7.53)
5	러시아	1023.209 (4.58)	690,573 (3.13)	812,756 (2.91)	5	콜롬비아	238,366 (3.61)
6	스페인	899.213 (4.02)	440,041 (1.86)	782,174 (1.85)	6	러시아	206,970 (3.13)
7	파나마	699.888 (3.13)	923,403 (4.64)	628,274 (3.89)	7	베트남	144,320 (2.19)
8	일본	580.380 (2.6)	656,651 (1.56)	570,157 (2.77)	8	독일	139,482 (2.11)
9	중국	491.941 (54.02)	391,382 (0.86)	570,017 (1.65)	9	네덜란드	123,061 (1.86)
10	베네수엘라	470.720 (258.89)	1,001,735 (6.60)	464,206 (4.22)	10	이탈리아	121,433 (1.84)

주: 순위는 2014년 누계 기준, 괄호 안은 총 수출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World Trade Atlas

에콰도르의 1위 수출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출액 대비 차지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2013년 기준 45%를 기록하였다. 그 뒤를 칠레, 페루, 콜롬비아, 러시아 등의 중남미 국가들이 잇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러시아가 5위를 차지하였고, 유럽에서는 스페인이 6위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 에콰도르 원유 수출국은 FOB 기준으로 미국(75.73%), 칠레(11.94%), 페루(11.25%), 파나마(4.88%), 일본(3.33%), 중국(2.05%) 등이다.

국가별 수입 현황

(단위: US\$ 백만, %)

순위	국가	2011	2012	2013	순위	국가	2014 (3월 기준)
총계		24286.06	25196.51	20418.87	총계		6421.43
1	미국	6117.657 (25.19)	6765.113 (22.75)	7,870,868 (29.12)	1	미국	1,954,625 (30.44)
2	중국	2289.826 (9.43)	2810.684 (13.75)	3,484,887 (12.89)	2	중국	827,206 (12.88)
3	콜롬비아	2220.918 (9.15)	2190.194 (-1.38)	22,962,334 (8.50)	3	콜롬비아	509,743 (7.94)
4	파나마	1979.878 (8.15)	1662.995 (-16.01)	1,824,857 (6.75)	4	파나마	364,790 (5.68)
5	페루	1141.929 (4.7)	1127.950 (-1.22)	1,119,790 (4.47)	5	한국	266,769 (4.15)
6	한국	938.079 (3.86)	925.333 (-1.36)	1,014,216 (3.75)	6	페루	250,193 (3.90)
7	멕시코	869.858 (3.58)	888.276 (2.12)	968,513 (3.24)	7	브라질	213,549 (3.33)
8	브라질	929.892 (3.83)	789.883 (-15.06)	876,072 (2.74)	8	스페인	205,041 (3.19)
9	일본	660.658 (2.72)	727.654 (10.14)	739,619 (2.33)	9	멕시코	198,691 (3.09)
10	독일	618.783 (2.55)	625.138 (1.03)	629,485 (2.22)	10	독일	147,642 (2.30)

주: 순위는 2014년 누계 기준, 괄호 안은 총 수입액 대비 차지하는 비중

자료원: World Trade Atlas

2013년 기준 에콰도르의 1위 수입국은 미국으로, 전체 수입액 대비 차지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한국은 2012년 기준 28위를 기록하였다. 2위인 중국 역시 수입액 대비 차지 비중이 점점 증가하여 13%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웃 국가인 콜롬비아, 파나마, 페루, 멕시코 등이 따르고 있다. 한국은 에콰도르의 6위 수입국이다.

2. 한국과의 교역동향 및 특징

가. 교역 규모 및 특징

한-에콰도르 교역 규모

(단위: US\$ 천, %)

구분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03	178,088	6.3	257,667	-18.3	-79,579
2004	263,020	47.7	443,838	72.3	-180,818
2005	344,301	30.9	28,797	-93.5	315,504
2006	386,086	12.1	12,931	-55.1	373,155
2007	428,595	11	23,277	80	405,318
2008	626,426	46.2	25,957	11.5	600,469
2009	438,410	-30	10,053	-61.3	428,357
2010	887,194	102.4	12,254	21.9	874,940
2011	886,612	-0.1	30,634	150	855,978
2012	856,768	-3.4	39,507	29	817,261
2013	919,924	7.4	48,399	22.5	871,525
2014(1월~5월)	321,283	-22.7	21,369	9.7	299,914

자료원: 한국무역협회

주: 2014.06. 확인 기준정보, 증감률은 전년동기대비

양국간 교역은 한국의 에콰도르로의 수출이 수입을 훨씬 상회하는 비대칭적인 구조이다. 교역 규모 및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글로벌 경제위기가 닥쳤던 2009년을 제외하고는 점점 증가 추세에 있다.

나. 주요 교역 품목

1) 한국의 에콰도르로의 수출

한국의 에콰도르로의 주요 수출품

(단위: US\$ 천,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3		2014(1월~0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919,924	7	321,283	-22.7
1	7,411	승용차	237,918	-6	77,066	-29.9
2	7,420	자동차부품	107,848	8.2	48,564	8.6
3	2,140	합성수지	82,400	79.6	32,283	-18.8
4	7,412	화물자동차	71,001	-28	19,646	-16.6
5	411	참치	9,733	-54	18,179	-
6	7,251	건설중장비	25,270	-4	12,553	-4.2
7	3,203	타이어	17,423	-7.4	9,264	23
8	2,190	기타석유화학제품	15,059	16.1	8,660	53.9
9	7,111	원동기	27,899	7.4	8,505	-39.6
10	2,289	기타정밀화학원료	23,800	-18.8	8,479	-4.2

주: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14년 금액 기준

자료원: KITA

한국과 에콰도르는 상호보완적인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교역 잠재력이 크다. 한국은 에콰도르에 공산품을 수출하고 에콰도르는 한국에 농수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수출품 중에서는 특히 자동차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은 편인데, 2011년 한 해 에콰도르가 수입한 승용차(HS 코드 8703) 중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1위를 기록하였다. (2위는 일본으로 24%의 비중을 차지함)

2) 한국의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

한국의 에콰도르로부터의 주요 수입품

(단위: US\$ 천, %)

순위	품목코드	품목명	2013		2014(1월~05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48,399	22.5	21,369	9.7
1	421	새우	32,920	39	12,980	5.9
2	6221	동괴및스크랩	5,167	-18.8	3,665	72.7
3	6211	알루미늄괴및스크랩	496	-21.5	1,133	448.3
4	451	어육	4,168	42.20	1,122	-36.7
5	469	기타수산물가공품	749	-22.9	510	138.2
6	125	견과류	702	1.1	434	63.1
7	5900	기타생활용품	714	-17	340	24.1
8	6,184	고철	0	-	208	-
9	151	커피류	1,030	-23.10	176	-75.1
10	131	식물성유지	170	119	125	-26.4

주: MTI 4단위 기준, 순위는 2014년 금액 기준

자료원: KITA

한국의 에콰도르로부터의 수입은 대부분 농수산물로, 새우가 가장 많이 수입되고 있으며 동괴 및 스크랩, 어육, 커피, 수산물가공품, 견과류, 과일 등이 수입되고 있다. 에콰도르의 최대 수출품인 석유는 수입되고 있지 않다.

3. 수입규제제도

가. 개관

에콰도르 정부는 2010년 이후 관세 및 비관세 장벽들에 대해 상당한 개혁을 단행하였다.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개혁은 평균 관세율의 인하, 정부조달체계의 투명성 및 절차의 간편성 확보, 정부의 경제에 대한 더 깊은 개입, 새로운 생산 인센티브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동시에 외부 경제에 휩쓸리지 않고 고유의 경제사회개발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전략적 분야에 대해(예를 들면 에너지 자원) 수입 대체 및 국유화를 실시하고 있어 수입 규제 정도가 낮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수입 금지 및 제한, 반덤핑, 세이프가드 등의 수입규제조치가 행해지는 수준도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는 추세이다.

나. 수입금지품목

에콰도르 정부에는 건강, 안전, 환경상의 이유로 몇몇 품목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금지된 품목은 HS 코드 10자리 분류 기준으로 총 130개이며, 다음의 품목들을 포함한다.

품목명	HS코드
화학 약품 중 일부	28~29, 30~39 등 다양
중고 의류 및 신발	6309
중고 타이어	4012
중고 자동차*	87
중고 엔진 중 일부	8407, 8408
중고 자동차 부품(재가공된 부품 일부 제외)	8409
CFC를 사용하는 냉각, 냉동 기기	8418 중 일부

주1: 해당 HS코드의 모든 제품이 금지된 것은 아니며,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위원회 (COMEXI)에 문의

주2: * 중고 자동차 중 기부의 형태로 들어오는 특수 목적의 차량(앰블런스, 의료 차량, 도로 청소 차량, 소방차 등은 제외)

자료원: WTO trade policy review Ecuador 2011

다. 수입제한품목

에콰도르의 수입허가제도 아래 현재 HS 코드 10자리 분류 기준으로 1,364개 품목이 수입허가 혹은 라이선스를 요구하고 있다. (위생 및 식물 위생(SPS) 검역을 포함하면 2,260개 품목) 수입허가제도는 특정 수입품의 유입이 에콰도르의 다양한 법 조항들을 어기는 것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지침들을 따른다.

- 제품이 인간, 동물, 식물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아야 한다.
- 마취성 및 항정신성의 물질은 법적인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
- 균용이 아닌 무기 및 폭발물은 평화와 공공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아야 한다.
- 차량은 공공 고속도로에 손상을 줄 정도로 무거워서는 안된다.
- 전기와 관련된 설비는 에콰도르의 배전망과 호환되어야 한다.
- 통신 기기는 에콰도르의 통신 네트워크 망과 호환되어야 한다.

수입 라이선스는 안데안 공동체로부터의 몇몇 농산품들을 제외하면 원산지에 관계 없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수입허가의 발행은 수입품의 종류와 그 사용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관에서 담당한다. 수입업자들은 담당 기관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라이선스 발급 과정을 수행해야 하며, 발급된 라이선스는 차후 대외무역위원회에 의해 인증 받게 된다. 에콰도르 당국은 2013년 3월 싱글윈도우/윈스톱 전자 통관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구축되면서 모든 기관이 전자상으로 연결되어 수입허가발급 과정이 간편화되고 일원화되었다.

수입허가가 필요한 품목 및 담당 기관

품목군 (HS 2자리 기준)	HS 코드	허가 품목 개수	허가 내용	담당 기관
살아있는 동물과 동물성 제품				
살아있는 동물	01	34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육류와 식용 설육	02	63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어패류	03	1	위생 등록	MSP
낙농품, 조란, 천연꿀	04	24	위생 등록	MSP, MAGAP
기타 동물성 생산품	05	11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INP, AGROCALIDAD, MAGAP
채소				
산수목, 꽃	06	2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채소	07	5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과실, 견과류	08	1	위생 등록	MSP
		7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SP
커피, 차, 향신료	09	24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곡물	10	2	인증	MAGAP
		31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곡물의 분과 조분밀 가루, 전분	11	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채유용 종자, 인삼	12	56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CONSEP
식물성 엑스	13	1	수입 허가	CONSEP

품목군 (HS 2자리 기준)	HS 코드	허가 품목 개수	허가 내용	담당 기관
유지				
동식물성 유지	15	2	인증	MAGAP
		15	위생 등록	MSP, MAGAP
		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가공식품 및 음료				
육, 어패류 조제품	16	34	위생 등록	MSP
당류, 설탕과자	17	18	위생 등록	MSP, MAGAP
코코아, 초콜렛	18	1	인증	MAGAP
		14	위생 등록	MSP
		2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MAGAP
곡물, 곡분의 주제품과 빵류	29	23	위생 등록	MSP
채소, 과실의 조제품	20	71	위생 등록	MSP
기타의 조제식료품	21	37	위생 등록	MSP
음료, 주류, 식초	22	31	위생 등록	MSP
조제사료	23	5	인증, 제품 등록	MAGAP, AGROCALIDAD
		4	위생 등록	AGROCALIDAD, INP, MAGAP
담배	24	5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광물성 제품				
토석류, 소금	25	4	수입 등록	MIPRO
		1	위생 등록	MSP
광물성 연료, 에너지	27	5	수입 허가 및 제품 등록	CONSEP, AGROCALIDAD
화학품				
무기화학품	28	25	수입 인증, 수입 라이선스, 수입 허가, 제품 등록	CC.FF.AA., CEEA, CONSEP, AGROCALIDAD, MSP
유기화학품	29	177	수입 인증, 수입 라이선스, 수입 허가, 제품 등록	CC.FF.AA., MIPRO, CEEA, CONSEP, AGROCALIDAD, MSP
의료용품	30	10	제품 등록	AGROCALIDAD
		58	위생 등록	MSP, CONSEP
염료, 안료, 페인트잉크	32	3	수입 허가	CONSEP
향료, 화장품	33	1	수입 허가	CONSEP
	33	16	위생 고시 및 위생 등록	MSP
비누, 계면활성제,	34	10	위생 등록	MSP, MIPRO

품목군 (HS 2자리 기준)	HS 코드	허가 품목 개수	허가 내용	담당 기관
왁스				
카세인, 알부민, 변성 전분, 효소	35	1	제품 등록/위생 등록	MSP, AGROCALIDAD
		1	위생 등록	MSP
화약류, 성냥	36	13	수입 인증	CC.FF.AA.
각종 화학공업생산물	38	46	수입 라이선스, 수입 허가, 제품 등록	AGROCALIDAD, MIPRO, CONSEP, MSP
플라스틱, 고무와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40	2	위생 등록	MSP
원피와 가죽				
원피와 가죽	41	6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펠프, 종이, 지판				
지와 판지	48	3	위생 등록	MSP
식물과 그 제품				
건, 건사, 건직물	50	9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양모, 수모	51	74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면, 면사, 면직물	52	129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4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	AGROCALIDAD
마류의사와 식물	53	28	수입 허가, 수입업자의 등록	CONSEP, MIPRO
인조필라멘트섬유	54	79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인조스테이플섬유	55	123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워딩, 부직포	56	33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양탄자	57	21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특수직물	58	42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침투, 도포한 직물	59	28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편물	60	43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의류	61,	133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62	122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기타섬유제품, 냅마	63	67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신발류				
신발류	64	31	수입업자의 등록	MIPRO
석류와 유리				
유리	70	1	위생 등록	MSP
기계				
보일러, 기계류	84	22	수입 라이선스	MIPRO

품목군 (HS 2자리 기준)	HS 코드	허가 품목 개수	허가 내용	담당 기관
탈 것				
일반차량(철도차량 제외)	87	1	수입 인증	CC.FF.AA.
선박	89	1	수입 인증	CC.FF.AA.
광학기기				
광학, 의료, 측정, 검사	90	9	수입 라이선스	CEEA
정밀기기		4	위생 등록	MSP
무기				
무기	93	69	수입 인증	CC.FF.AA.
기타				
완구, 운동용구	96	1	등록	MIN. TUR.
주: AGROCALIDAD: Ecuadorian Agency for Agricultural Product Quality Assurance under the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quaculture, and Fisheries CC.FF.AA: Joint Command of the Armed Forces. CEEA: Ecuador's Nuclear Energy Commission. CONSEP: National Council for Control of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INP: National Institute of Fisheries. MAGAP: Ministry of Agriculture, Livestock, Aquaculture, and Fisheries. MIN. TUR: Ministry of Tourism. MIPRO: Ministry of Industry and Productivity. MSP: Ministry of Public Health.				

자료원: WTO Trade Policy review Ecuador 2011에서 재인용

라. 수입규제조치

1) 반덤핑 및 상계관세

반덤핑과 상계관세조치의 법적 기반은 WTO의 관련 조항들, 2010년 제정된 생산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법(2010 Organic Code of Production, Trade and Investment), 기본법 실행을 위한 규제시행조치(2011년 대통령령 No. 733), 안데안공동체 결의 283, 456, 457 등이다. 반덤핑과 상계관세 시행은 대외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며, 2011년 하반기부터 에콰도르 외교통상부(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Trade, and Integration)에서 수입품의 덤핑 및 보조금 수혜 여부의 조사를 책임지고 있다. 안데안공동체 수준에서는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이 동 조사를 시행한다.

2012년 12월 기준으로 현재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여되고 있는 품목은 없으며, 가장 최근의 반덤핑 관련 조사로는 2010년 9월 시작된 칠레와 오만에서의 폴리프로필렌 필름에 대한 반덤핑 혐의 조사가 있었으나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2) 세이프가드

세이프가드조치의 법적 기반은 2010년 제정된 생산무역 및 투자에 관한 기본법(2010 Organic Code of Production, Trade and Investment), 기본법 실행을 위한 규제시행조치(집행명령 No.3497, 원산지에 상관없이 세이프가드가 발동됨을 명시), 안데안공동체 결의 No.452(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 중 두 나라 이상에서 수입품에 의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때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안데안공동체 사무국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함을 규정), 카르타헤나 협약의 6장(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이 화폐 평가절하로 인한 경상수지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또는 국내 산업이 수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을 때 다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 또한 안데안공동체 결의 474번에 명시된 리스트의 농산품들에 대해 세이프가드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함) 등이다. 세이프가드조치의 시행은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에서 담당하며, 외교통상부에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다.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에콰도르는 가정용 수도꼭지/콕스/밸브, 식물, 도자 제품, 중국으로부터의 식기 및 부엌용품, 윈드실드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행하였다. 2010년 10월, 3년 동안 윈드실드의 수입에 대해 개당 미화 12.72달러의 특별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다. 동 조치는 칠레, 페루 등의 개발도상국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의 제품에 대해 적용된다(개발도상국 중 콜롬비아는 예외적으로 적용됨). 안데안공동체 수준에서는 칠면조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2010년에 실시되었고, 2011년 5월 양파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사무국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다.

에콰도르는 농산품에 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Agriculture)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항 아래 HS 8자리 분류 기준으로 7개의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최근 시행 중이거나 조사 중인 조치는 없다.

국내법과 WTO, 안데안공동체의 조항들에 적법한 방식으로 에콰도르는 2009년 7월부터 2010년 7월 사이 경상수지 적자 해소를 목적으로 많은 품목들에 대해 양적 제한과 추가적 관세 부과 방식으로 세이프가드조치를 실시하였다. 동 조치는 계획된 대로 2010년 7월을 기준으로 종료되었으나, 앞으로 경상수지 적자가 위험 수치를 넘어설 경우 이러한 세이프가드 조치가 다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3) 최근 수입규제조치

에콰도르 정부는 2012년 6월 11일 대외무역위원회(Comité de Comercio Exterior, COMEX)를 통해 자동차, 휴대전화 수입상품에 대한 쿼터제와 관세 조정안을 내용으로 한 수입규제조치(고지)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치는 기업별 연간 수입량(쿼터)을 규정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자동차, 휴대전화기, 가전제품, 주류, 담배 등을 포함한 100가지 이상의 수입상품에 대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였다.

수입규제안 주요 내용

- 원산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목을 대상으로 적용
- 휴대전화기 수입쿼터 도입 및 제한
 - 2012년 총 휴대전화 수입쿼터로 33개 수입업체에 대해 195만 대, 1억 4300만 달러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의 쿼터가 차면 추가수입 불가. 해외여행객의 휴대전화 허가 개수 개인 당 1개로 제한, 특송을 통한 휴대전화 유입 금지
- 자동차 수입 쿼터 축소
 - 2012년 총 수입쿼터로 38개 수입업체에 대해 4만 8179 대, 5억 2934만 달러 쿼터를 배정. 각 기업은 배정받은 쿼터 중 하나로 쿼터가 차면 추가수입 불가
- 가전제품 및 각종 잡화 관세 인상
 - 텔레비전, 카메라, 세탁기, 담배, 가방 등 100여 가지 이상의 수입상품 관세가 5%~20% 정도 상향 조정됨.

대외무역위원회는 동 조치의 배경으로 자동차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폐 휴대전화 증가로 인한 환경 파괴를 들었으며 법적 근거로 WTO, 안데안공동체 및 1980 몬테비데오 조약의 '국민 보건을 위한 수입 제한 인정' 항목을 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명분은 불공정무역행위라는 외부 비판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실제로는 해외 거주민 본국 송금액 감소, 원유 수출 감소로 인한 경상수지 악화를 만회하려는 의도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번 조치의 영향으로 자동차 수입쿼터가 감소하여 한국산 자동차의 대 에콰도르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2년 6월 기준 한국은 에콰도르 승용차 수출 중 33.56%를 차지하는 1위의 수출국이다. 또한 휴대전화에 대한 수입 쿼터가 신규 도입되어 한국 휴대전화 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휴대전화기와 자동차 수입업체의 경우 수입쿼터의 감소에 따라 이미 할당량을 초과하였거나 얼마 남지 않은 소규모 업체들이 하반기 수익에 큰 타격을 입고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도산할 우려가 있다. 그 과정에서 수입쿼터 총량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대형업체만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가전제품은 관세 상향조정으로 인한 즉각적인 시장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에콰도르 내 특별한 수입대체 상품이 존재하지 않기에 전체 판매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을 것이나, 전반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시장에서 고가 정책을 펼치는 한국 제품들에 대한 선호도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 관세 인상과 감축 책정된 수입품목의 쿼터제는 시장에 공급 부족과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주류와 가전제품, 휴대전화기, 컴퓨터, 카메라와 같은 첨단기술품목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주요 수입품목의 관세 조정안 (상품가격당 관세율)

품목	관세 조정안	품목	관세 조정안
휴대전화기	이전: 15%	자동차	이전: 40%
	이후: 15%, 쿼터제 도입		이후: 40%, 쿼터제
카메라	이전: 0%	세탁기	이전: 15%
	이후: 25%		이후: 25%
텔레비전	이전: 5%	오디오	이전: 5%
	이후: 5~20%		이후: 20%
주류	이전: 20%	담배	이전: 15%
	이후: 알코올 도수당 \$0.25		이후: 20%
면류 (스파게티 등)	이전: 20%	가방	이전: 20%
	이후: 30%		이후: 30%

자료원: 에콰도르 대외무역위원회(COMEX)

규제안에 따른 공급 부족은 수입업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휴대폰 및 가전제품 소매상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될 것이며, 시장이 정상적으로 공급하지 못하는 부분을 대형 밀수업자들이 채우게 될 가능성이 많다. 수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심할수록 비정형 시장의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수입쿼터제 관련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쿼터
 - 적용 대상이 되는 HS코드를 지정하고 가격과 대수를 통한 이중 기준이 적용됨을 명시
 - WTO, CAN, 그리고 1980년 몬테비데오협정에 따라 에콰도르가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 본 규제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 수입 쿼터는 관세청의 주관 하에 매년 자동 갱신됨.
 - 관세청은 수입쿼터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감시하며, 쿼터의 초과분은 유통이 불가함.
 - 기업별로 정해진 쿼터는 제3자에게 양도 불가
 - COMEX와 INEN(기술표준원), MIPRO(생산산업부), MAE(환경부)는 120일 이내에 기술과 환경적 표준을 새로이 정립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함.
 - 장애인, 외교차량은 쿼터에서 제외됨.

- 수출을 목적으로 한 완성차 공정 과정의 차량은 국내 유통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규제 조치에서 제외됨.
 - 신규 브랜드의 차량 수입을 원하는 업체의 경우 COMEX에 보고 후 승인 및 쿼터 배정을 득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업체의 재정, 납세능력 등의 검증 과정이 수반됨.
 - 고지 시행은 관보 고시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쿼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됨.
 - 관세청(SENAE)은 개별 수입업체당 쿼터를 배정함.
- 휴대폰 쿼터
 - 연간 휴대폰(HS 8517.12.00.90)의 수입 총량을 제한하며 규제안은 수량과 금액의 두 가지 조건으로 규정됨. 수입업자들은 국내 상업 행위의 권리를 득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의 조건을 지켜야 함.
 - WTO, CAN, 그리고 1980년 Montvideo 협정에 따라 에콰도르가 조약을 체결한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함.
 - 본 규제안의 효력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지됨.
 - 쿼터는 관세청의 주관 하에 매년 자동 갱신됨.
 - 환경부, 생산산업부는 COMEX의 조정하에 2013년 1월까지 휴대폰 재활용 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휴대전화 업체의 동 정책 시행여부에 따라 수입량 쿼터의 증감이 가능함.
 - 관세청은 수입 쿼터의 이행을 즉각적으로 감시하며, 쿼터의 초과분은 유통이 불가함.
 - 기업별로 정해진 쿼터는 제 3자에게 양도 불가
 - 특송, 개인소지 등으로 유입되는 것은 불가하며, 적발 시 반송 명령
 - 입국자는 세관이 정하는 개수만 소지하여 입국 가능
 - 고지 시행은 관보 고시 다음날부터 적용되나, 쿼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

4. 대한수입규제 동향

가. 개요

2014년 8월 기준 에콰도르의 한국 특정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다만, 2012년 6월부터 휴대폰 및 자동차 수입에 대해 에콰도르 수입업체별로 쿼터를 지정하고 초과 분량은 유통을 금지하여 한국 기업의 수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5. 관세제도

가. 개요

에콰도르 헌법에 따라 관세 분류 및 관세율의 개정은 행정부에 일임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일부가 안데안 공동체에 넘어간 상태이다. 안데안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에콰도르는 이론상으로는 관세율 및 관세 분류 체계를 안데안 공동체의 회원국들이 공동으로 결정한 역외 공동관세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실질적으로는 에콰도르뿐만 아니라 다른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들은 역외공동관세를 적용하기는 하나 많은 예외 조항들을 두고 있다.

관세는 에콰도르의 가장 주요한 수입 규제의 도구이자 중요한 조세원이다. 2010년 관세수입이 총 조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3.3%였다. 2010년에 이루어진 관세 개혁으로 인해 2007 HS 분류체계에 기반한 NANDINA(안데안 공동체의 공동 세관분류시스템)가 도입되었고 평균 관세율은 2005년의 11.4%에서 2011년 9.3%까지 감소하였다. 동일 기간 동안 공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0.6%에서 7.6%로 감소하였으나, 농산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16.7%에서 19.6%로 증가하였다. 또한 53.3%에 달하는 품목군의 관세가 2005년의 38.7%에서 0~5%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관세율의 하락이 수입규제의 완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평균 관세율이 떨어진 대신 관세 산정이 복잡해지고 다른 세금들로 그 기능이 분산되었는데, 예를 들어 특정 품목에 대한 증가세들과 복합세들이 신설되었다. 현재 에콰도르는 17개의 증가세와 10개의 복합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의 관세는 경사관세(傾斜關稅, tariff escalation)의 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경사관세란 원자재에는 관세를 거의 부과하지 않고 가공도가 높은 품목일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구조를 말한다. 이러한 구조 탓에 평균 관세가 낮을지라도 공산품 위주로 수출되는 한국 같은 경우 적용되는 실제 관세율은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나. 관세 산정

에콰도르의 관세는 CIF 값(Cost, Insurance and Freight, 보험 및 운송료가 포함된 수입가)을 기준으로 거래가격법(transaction value method)을 이용하여 산정된다. 거래가격법을 이용한 관세 산정이 불가능할 때는 '관세 산정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Customs Valuation)'에 규정된 5개의 대안적인 방법을 이용해 산정하게 되며, 협약에 명시된 순서대로 우선 적용하게 된다(5항과 6항은 수입업자의 요청과 세관의 승인 하에 순서가 바뀔 수 있음). 안데안 공동체는 관세 산정에 있어 최소 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세관 통과와 관세 산정에 대한 통제는 위험 평가 시스템에 의해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신고된 가격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었을 때, 수입업자는 이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됨과 함께 두 가지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첫 번째는 관세청의 합리적인 의문을

합당하다고 인정하고, 관세청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해당 품목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 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낸 후 세관을 통과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신고된 가격을 적용하여 세금을 낸 후, 신고가로 산정된 세금과 세관 당국에 의해 결정된 가격의 차액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30일짜리 개런티를 제출하는 것이다. 2010년 4월~2011년 사이 세관에 신고된 건수 중 1.3%가 “합리적인 의심” 통지를 받았으며 세관 당국은 이러한 경우의 40%가 저가신고(under-invoicing)과 관련된 것이었다고 밝혔다.

품목군별 관세율 및 수입액

(단위: %)

품목군	최종양허관세			최혜국대우 시행관세			수입	
	평균 관세율	면세율	최대 관세율	평균 관세율	면세율 *	최대 관세율	총수입 대비 비중	면세율 **
Animal products	29.2	0	86	28.8	7.1	86	0.2	28.4
Dairy products	40.9	0	72	31.8	0	54	0.0	0
Fruit, vegetables, plants	23.8	0	30	20.1	14.9	30	1.1	8.7
Coffee, tea	26.9	0	30	24.5	0	30	0.3	0
Cereals & preparations	28.7	0	68	21.1	15.8	68	3.3	9.8
Oilseeds, fats & oils	28.8	0	39	13.3	27.3	32	2.2	2.2
Sugars and confectionery	34.1	0	45	12.1	34.4	30	0.3	18.1
Beverages & tobacco	26.2	0	30	23.4	5.9	30	0.4	9.8
Cotton	18.0	0	20	4.0	40.0	10	0.2	1.0
Other agricultural products	19.1	0	45	5.4	63.6	45	0.7	49.4
Fish & fish products	28.8	0	36	24.1	13.2	30	1.6	94.9
Minerals & metals	20.3	0	30	6.5	60.4	30	20.3	78.4
Petroleum	13.6	0	25	4.8	51.2	10	8.9	97.2
Chemicals	11.1	0	25	3.2	75.3	20	15.9	48.4
Wood, paper, etc.	23.5	0	30	13.6	17.7	30	3.1	51.4
Textiles	27.9	0	30	16.2	10.8	30	2.7	22.7
Clothing	30.0	0	30	10.0	0	10	0.5	0
Leather, footwear, etc.	24.3	0	30	10.0	29.4	30	2.1	16.9
Non-electrical machinery	20.0	0	30	3.4	74.1	30	13.9	76.7
Electrical machinery	22.6	0	30	7.3	61.6	30	8.3	60.1
Transport equipment	23.4	0	40	9.0	32.5	40	11.1	17.1
Manufactures, n.e.s.	24.1	0	30	14.3	41.2	30	2.9	71.4

주: 최혜국대우 시행관세는 2011년 산정 기준, 수입은 2010년 기준

* : 해당 품목군 중 관세율이 0인 품목의 비중을 나타냄

** : 수입된 금액 중 면세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원: 에콰도르 관세청 2011

다. 원산지 규정

에콰도르의 원산지 규정 제도는 2005년 이후 개정된 바 없다. 에콰도르는 안데안 공동체와 LAIA 제품에 대해 특혜 원산지 규정을 부여한다.

안데안 원산지 규정 제도에 따르면, 안데안 공동체 밖에서 들여온 재료가 포함된 제품의 원산지는 생산 및 가공 공정의 결과로 HS 4단위 이상의 관세 분류가 바뀌었는지의 여부, 혹은 역외 원자재의 CIF 가치가 수출품의 FOB 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나타내는 역내 가치의 투입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에콰도르의 경우 역내 가치의 투입 정도가 수출품의 FOB 가치 중 적어도 40% 이상을 차지해야 안데안 공동체 원산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안데안 공동체 안에서 에콰도르와 볼리비아는 특혜를 수여 받고 있는데, 다른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들이 이들 두 국가에 상품을 제조하여 무관세로 수출하려면 역내 가치의 투입 정도가 50% 이상이어야 한다.

몇몇 품목들은 특수 원산지 규정을 따르는데, 기본적인 원산지 규정의 기준보다 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원산지가 결정된다. 품목 추가 및 삭제는 사무국이 직접 발의하거나 회원국의 요청으로 결정된다. 현재 이 특수 원산지 규정을 따르는 품목에는 자동차, 화학제품, 채유씨 제품(oilseed products) 등이 있다.

LAIA는 회원국들로 하여금 각자의 규정을 따르거나 혹은 LAIA의 일반 원산지 규정을 자유롭게 따르도록 하고 있다. LAIA의 일반 원산지 규정은 안데안 공동체의 원산지 규정 기준을 거의 비슷하게 따르고 있다.

1) 기타 세금

반덤핑이나 상계관세 등의 조치 외에도 에콰도르 정부는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국내 산업과 경쟁하게 되는 수입품에 국내 제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한 수입품들은 12%의 부가가치세, 0.5%의 아동발전기금세(Children's Development Fund)의 대상이 되며 이 세금들은 CIF 가치를 기준으로 부과된다. 25%~110%까지 부과될 수 있는 특수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 ICE tax)도 있는데, 이 세금은 주로 사치품을 위시한 특정 수입품에 선택적으로 부과되며 CIF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상기한 세금들은 에콰도르 국내 기업들에게도 적용되는 사항이지만, 에콰도르 기업의 경우 이러한 세금들은 비용으로 책정되어 소득세의 대상이 되는 이윤에 포함되므로 추후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공제가 가능하다.

품목별 특수소비세율

품목명		특수소비세율
GROUP 1		
담배		150%
맥주		30%
소프트드링크		10%
증류주(맥주 제외)		40%
향수		20%
비디오 게임		35%
소화기(小火器), 스포츠용 총기, 군수품		300%
백열전구		100%
GROUP 2		
TYPE 1 (3.5 톤 미만의 탈 것)	\$30,000 미만의 봉고차, 밴	5%
	\$20,000 미만의 자동차	5%
	\$20,000~\$30,000의 자동차	15%
	\$30,000~\$40,000의 자동차	25%
	\$40,000 초과하는 자동차	35%
TYPE 2	제트기, 프로펠러 항공기, 헬리콥터(상업용 여객기, 화물, 서비스 항공기 제외); 오토바이, 4륜차(전 지형 차량, ATV) 요트, 고급 선박	15%
GROUP 3		
케이블 TV		15%
카지노 서비스, 게임실, 기타 도박 관련 서비스		35%
GROUP 4		
연간 \$1,500를 초과하는 사교 클럽 멤버십 서비스		35%

자료원: 미 에콰도르 대사관 Doing Business in Ecuador 2011

6. 주요인증제도

가. 개요

에콰도르의 국가표준인증은 에콰도르표준기구(INEN)에 의해 공인화되며 일반적으로 국제적 관행을 따르나, 국제 표준과 요구 조건 등이 완전히 동일한 국내 표준은 3.6%에 그친다. 에콰도르품질위원회(CONCAL)가 어떤 품목들이 의무적 표준 준수의 대상이 될 것인지를 결정한다. 2008년 12월~2009년 1월에 에콰도르품질위원회는 표준 준수에 요구되는 조건들과 의무 표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품목들의 리스트를 갱신했다. 이 리스트에 실려 있는 품목들은 세관 통과를 위해 INEN-1 인증을 획득하여야만 한다. 이 리스트는 www.inen.gob.ec에서 확인 가능하다.

에콰도르인증기구(OAE)는 표준인증을 승인하고 공인한다. INEN-1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표준 준수사항 증명서를 OAE에 제출해 승인을 받은 후에 INEN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주요 인증 별 현황

1) 강제인증

□ RTE INEN

INEN에서 발행하는 기술규정(Reglamento Tecnico Ecuaterlane)으로 해당되는 품목을 에콰도르 표준에 맞게 승인하는 것이다. INEN이 기술 관련 규제의 새로운 사항 혹은 개정된 사항의 공지를 담당하고 있다. 이 기술 규제들은 'Ecuador's Official Gazette' 저널을 통해 발간된다

2) 임의인증

□ NTE INEN

INEN에서 발행하는 에콰도르표준(NORMAS TECNICAS ECUATORIANAS)으로 각 품목을 에콰도르 표준에 맞게 승인하는 것이다.

다. 그 외 인증 규제

1) 농수산물 관련 인증

에콰도르 농업부(MAGAP) 산하 기구인 농산물품질보증기구(이하 AGROCALIDAD)에서는 위생 및 식물위생 허가(SPS permit)를 관리한다. AGROCALIDAD는 2008년 12월부터 구 기관인 SESA를 대신해 동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WTO의 회원국으로서, 에콰도르는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적용에 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을 준수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위생 및 식물위생 인증 획득은 적절한 문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한 간섭이나 이의 제기 없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예외적으로 쌀, 옥수수, 콩 등 특정 물품의 수입은 농업부(MAGAP)에서 관리하며, 지역 농산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수입 쿼터를 비롯한 여러 보호 장벽을 두고 있다.

AGROCALIDAD는 안데안 공동체 수준에서 만들어진 안데안 위생 표준을 따른다. 역외 수입품에 적용되는 표준들은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에 적용되는 표준과 다를 수 있다. 안데안 공동체는 표준 인증에 대한 규제 사항들을 WTO의 표준과 맞추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특정 인증 관련 규제들이 역외 국가(안데안 공동체 비회원국)에만 적용되는 경우들이 있어 WTO의 방침과 어긋나는 일이 빈번하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동물, 동물성 제품, 식물, 식물성 제품들의 수입은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과 비회원국 간에 다른 표준을 요구하게 되어 있다.

AGROCALIDAD는 또한 각 품목이 위험 분석을 거쳤다는 것과 원산지가 동물성 전염병 혹은 특정 외래종 식물이 없는 지역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증명서를 요구한다. 국제식물보호협회(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uncil, IPPC)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수입국은 외래 전염병 혹은 병해충의 도래를 방지하기 위해 자체 병해충위험분석(Pest risk assessment, PRA)를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본래 목적과는 달리 PRA가 국내 생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는 사례들이 보고된 바 있다.

2) 적합성평가

적합성평가는 에콰도르표준기구(이하 INEN)에서 에콰도르인증기구(이하 OAE)의 지원을 받아 담당한다. 표준 준수의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들은 적합성 인증(INEN-1)을 취득하기 전에는 에콰도르 세관을 통과할 수 없다.

INEN은 냉장고, 조리용 레인지, 전구 등 특정 품목의 적합성 평가에 사용될 수 있는 세 개의 실험실을 승인하고 있으며, 적합성 평가가 필요한 제품의 '적합성평가절차(PECs)'를 고시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월 말 자동차 타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적합성평가절차를 고시하였다.

INEN에서 지정한 적합성 인증이 필요한 제품 군은 다음과 같다.

- 자동차
- 냉장고
- 조리용 스토브와 레인지
- 타이어, 듀얼 에어백
- 발전기
- 직물, 의류, 신발, 액세서리의 라벨
- 포트랜드 시멘트, 철봉, 튜브, 파이프 등의 건설 원자재
- 안전유리, 스파크 플러그, 브레이크 패드 등의 자동차 구성품
- 브레이크오일, 윤활유
- 도자 식기 및 부엌용품
- 피임약/기구

3) 포장 및 포장용기

식품 포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 포장 용기는 내용물에 적합한 형상, 용량 및 봉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단, “적합한”의 구체적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
- 포장 용기는 내용물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관련하여 올바른 재료로 제작되어야 한다.
- 포장 용기는 제품의 수명기간 동안 내용물의 보호, 보존 및 적절한 식별을 보증하여야 한다.

가공식품용 포장 및 포장 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에콰도르 기술표준”(Normas Tecnicas Ecuatorianas, NTE)이 정한 각 제품별 또는 제품군별 조건에 따라야 한다. 한편, 고품 폐기물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모든 포장 및 포장용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재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라벨링

INEN은 제품의 라벨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모든 라벨은 스페인어로 기재되고, 기업명, 전화번호, 주소, 등록번호, 원산지, 단위, 순중량 및 보건기록(필요 시)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레이블에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품명
- 성분을 기재하되 구성비율이 높은 것부터 기재
- 상표
- 물품 포장단위 표시
- 상호명
- 국제 단위체계에 의한 純 내용물 단위

- 보건등록번호
- 제조일
- 최대소비기간
- 저장방법
- 소매가격
- 원산국 및 도시
- 기타 보건 당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알코올 음료의 경우 알코올 도수, 제품의 성질 및 구성물에 따른 주의사항이 필요한 경우 그 주의사항 등
- 유전자재조합 여부

이러한 라벨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에콰도르에서 판매하기 위해 사용될 새로운 라벨에 기재된 위와 같은 모든 정보를 첨부하여 원산지증명서와 그 사본을 INEN 에 제출하여야 한다.

□ 관련기관안내

- 에콰도르표준기구(INEN)
 - INEN은 표준과 인증을 담당하는 공식 정부 기관이다. INEN은 국제표준기구(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 ISO), 판아메리카 기술표준위원회(Panamerican Technical Standards Commission, COPANT), 인터아메리카 도량형 시스템(Interamerican Metrology System, SIM), 국제법적도량형기구(The Organisation Internationale de Metrologie Legale, OMIL)의 회원이다.
 - <http://www.inen.gob.ec/>
- 농산품품질보증기구(AGROCALIDAD)
 - 위생 및 위생허가 인증 및 농수산물 인증 관련 담당 기관이다.
 - <http://www.agrocalidad.gob.ec/agrocalidad/>
- 에콰도르인증기구(OAE)
 - 적합성 평가를 마친 제품의 인증서가 유효하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고 공인화 하는 기관이다.
 - www.oae.gob.ec/

7. 지식재산권

가. 개요

배포 및 생산 라이선스는 에콰도르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에콰도르 내에서 배포 및 생산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것(혹은 직접 회사를 세우는 것)은 수출에 비해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첫째, 에콰도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관세 없이 판매할 수 있다. 둘째, 에콰도르에서 생산하는 기업은 최소 역내가치투입 기준을 만족시켰다면 안데안공동체의 회원들에게 더 낮은 관세에 판매할 수 있다. 많은 기업들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기보다는 라이선스 취득을 더 선호하는데, 이는 에콰도르 비즈니스 시장의 특이성과 법제의 잦은 변화(특히 세제)가 투자 소득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회사들이 에콰도르 내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라이선스를 취득하여 다국적기업에게 로열티를 받는 형식으로 에콰도르 시장에 진출한다.

라이선스 취득은 자동차, 의류, 신발, 신용카드, 전자기기, 패스트푸드, 의약품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외국 기업들은 라이선스 취득, 투자(회사 설립), 수출 중 하나를 선택하는데, 일반적으로 라이선스 취득과 투자/수출을 병행하지는 않는다. 에콰도르의 주력산업 중 하나인 꽃 산업은 예외인데, 대부분의 기업들이 기술 라이선스를 취득한 후 투자를 통해 농장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나. 법적 기반

에콰도르의 라이선스는 안데안협정 결의문 345(새로운 식물 품종 관련), 351(작가의 권리, 저작권), 486(산업적 재산권), 그리고 지식재산권법(No.320, 1998년 제정)에 명시되어 있다. 지식재산권은 특정 분야에서 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에콰도르는 문학 및 예술 작품의 보호를 위한 베른 협약, 제네바 음반 협약 및 산업적 보호를 위한 파리 협약을 비준하였다. 또한 에콰도르는 무역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WTO 협약(WTO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을 지키겠다고 공표하였다.

지식재산권법의 규제사항들은 1999년 초부터 효력을 발휘하였다. 지식재산권법은 특허, 상표, 산업적 디자인과 모델, 저작권, 식물 품종에 관한 특허권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동 법은 또한 그 상표가 얼마나 알려져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에콰도르 밖에서 등록된 상표권을 인정한다.

에콰도르는 2000년 10월부터 특허협력조약(Patent Co-operation Treaty, PCT)을 지키고 있다. PCT에는 특허적용관리시스템을 간편화하려는 목적 하에 123개의 회원국이 가입되어 있다. 특허 출원은 에콰도르 지식재산권기구(Instituto Ecuatoriano de la Propiedad Intelectual, IPEI)가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특허, 상표 및 저작권에 대한 보호는 법적으로는 잘 구비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잘 되고 있지 않다. 법은 산업적 디자인 및 영업 비밀(información no divulgada)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으나, 산업적 디자인과 영업 비밀은 등록될 필요는 없다. 저작권 역시 등록될 필요 없다.

다. 지식재산권 보호 현황

국제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1999년 교육법의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교육법의 특정 조항(78항)이 몇몇 교육기관들에게 공짜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조항을 개정하려는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복제는 지식재산권 보호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연합(Business Software Alliance, BSA)과 국제데이터협회(International Data Corp, IDC)가 2011년 5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에콰도르의 불법 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은 2010년에 67%에 달하였으며 불법 복제품의 상업적인 가치는 총 7천 9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1천 4백만 달러가 증가하였다.

에콰도르는 미국무역대표부의 'Special 301 Watch List'에 올라 있는데, 이는 에콰도르의 약한 지재권 제도를 반영하는 것이다. 에콰도르는 2003년 특히 의약품 분야에서 낮아진 지재권 보호 수준에 대한 평가로 인해 이 리스트에 오르게 되었다. 동 리스트에는 에콰도르 외에 28개국이 올라 있다.

지식재산권법의 집행은 국가 경찰과 에콰도르 관세청의 책임 아래 있으나 실질적인 실행력은 약한 상황으로, 지재권 위반에 대한 감시 및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지재권 보호는 특히 의약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불법 복제된 의약품이 생산, 수입되고 있다. 2009년 10월 꼬레아 행정부는 의약품 특허 제도를 의약품 의무 라이선스 제도로 대체함으로써 고유 의약품의 국내 개발 및 생산을 장려하고자 하였으나, 현재까지 발급은 한 건에 그치고 있다 (2010년 4월 항레트로바이러스제 라이선스).

라. 법적 분쟁

라이선스와 관련, 기업들은 형사재판보다는 민사재판을 주로 이용한다. 예비적 금지 명령은 판사 혹은 판사 대리가 지재권 침해 현장을 실제로 목격할 수 있는 경우 민사 시스템을 통해 일주일내 한해 내려진다. 라이선스 발급자와 취득자 모두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발급자와 취득자 모두 IEPI에 등록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콰도르 법은 라이선스 취득자는 IEPI에 등록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IEPI에 등록되어 있는 편이 조치 시행 촉진 측면에서 권고된다.

에콰도르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위해 특별히 만들어진 지식재산권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분쟁 사건을 민사 혹은 형사 재판으로 넘기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을 추구한다. 상공회의소 같은 중재 기관 역시 지재권 관련 분쟁에 개입할 수 있다. 미 무역대표부에서 발행된 2011년 Watch List에 따르면, 에콰도르는 1998년 지식재산권법에서 요구하는 지식재산에 특수화된 법원을 만들지 않은 상태이다. 지식재산권법의 319항 및 326항에 따르면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자는 3달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으며 1,314달러 이상 13,145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동일한 처벌이 거래 비밀, 산업 비밀 혹은 기밀 정보의 누설, 습득, 혹은 사용, 그리고 브랜드명 및 상징물을 약간만 변형하여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도 적용된다(지식재산권법 320항). 지식재산권법 321항에서는 상업적 이름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행위에 1달 이상 2년 이하의 징역과 657달러 이상 6,572달러 미만의 벌금이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다.

마. 지식재산의 등록

IEPI의 가이드라인은 지식재산권법(No.83, 1998)의 36항, 37항, 44항에 기초하고 있다. 이 조항들은 특허 신청서가 IEPI의 산업재산국(Director nacional de Propiedad Industrial, DNPI)에 제출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DNPI는 신청서에 수정 사항이 필요할 경우 60 영업일 내에 지원자에게 고시하며, 지원자는 60일 안에 이에 대해 답변해야 한다. 최초 평가에서 신청서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서의 초록이 산업재산관보(gaceta de Propiedad Industrial)에 실리게 된다. 새로운 특허에 반대하는 사람/조직이 있다면, 관보에 실리고 나서 60 영업일 안에 소송해야 한다(지원서에 대한 검사가 필요할 경우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음). 신청자는 이의가 제기된 날(한 번 갱신될 수 있음)로부터 60 영업일 안에 자신의 신청서의 합당성을 지지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그 후 DNPI는 60 영업일 내에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특허를 승인할 지, 거부할 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청자는 지역행정분쟁재판소(District Tribunal of Administrative Dispute), 혹은 형사/민사 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이상과 비슷한 승인 절차는 상표, 디자인, 산업적 모델/드로잉에도 적용된다. 저작권 신청서는 IEPI의 저작권부 (National Department of Copyright)로 넘어가며, 식물 특허 신청서는 IEPI의 식물특허부(National department of Patents for Plant Matter)로 넘어간다. 인간에 의해 변형되지 않은 야생종은 식물 특허 등록을 승인 받을 수 없다. IEPI는 효율성 향상과 조직 개선에 힘을 쏟고 있으며 절차들의 자동전산화도 시작 단계에 있다. 등록 절차는 3주 정도 걸린다.

바. 행정적 규제

투자진흥보장법(Law on Investment Promotion and Guarantees)의 4장에 따르면, 브랜드 라이선스, 특허, 실용 모델, 산업 디자인, 상호 혹은 상업적 슬로건 등과 관련된 계약 및 기술 이전과 관련된 일반적인 모든 계약은 산업 및 생산성부(Ministry of Industries and Productivity)에 등록되어야 한다. 이 법은 미등록 혹은 지연된 등록에 대해 조건이나 처벌 사항은 정해두고 있지 않다.

카르타헤나 조약 결의문 291은 기술 이전과 관련된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결의문은 회원국에게 자국법을 통해 기술 이전에 관한 계약 조항들에 대해 규제할 수 있는 자유를 부여한다. 12항과 13항에 따르면 모든 상업적 이름과 로고, 산업적 디자인, 특허, 사용 패턴 및 기술 계약과 상표 관련 계약의 수입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사전 승인은 산업및생산성부(Ministry of industries and Productivity)가 담당한다. 라이선스 동의와 기술 이전의 승인은 관계자(당사자)의 신분/국적/주소, 수입된 기술의 이전 방법, 기술 이전의 각 요소들에 대한 계약 가격, 계약 조건의 결정 등의 정보를 요구한다.

등록되거나 등록 과정 중에 있는 상표 소지자는 서면 동의서를 통해 라이선스를 양도할 수 있다. 이 동의서는 IEPI에 등록되어야 하며, 등록 없이는 제 3자의 라이선스가 법적 효력을 잃을 수 있다.

□ 특허

- 산업적 적용이 가능한 ‘발명’의 수준이 되어야 새로운 것(Novelty)으로 간주됨.
- 유형 및 기간
 - 발명의 보호를 위한 특허: 특정 제품 혹은 과정에 대해 출원 가능. 20년간 유지되며 갱신 불가
 - 산업적 드로잉과 모델에 대한 특허: 특허와 저작권이 혼합된 유형으로 10년간 유지됨.
- 특허 취득이 불가능한 것
 - 발견, 과학적 이론과 수학적 방법론, 자연에 이미 존재하는 물질
 - 문학, 예술적 작품, 그 외의 미적 창조물
 - 지적 활동을 위한 계획, 규칙, 방법. 게임 혹은 경제적/상업적 활동
 - 정보를 제시하는 형태
 - 공중질서 혹은 공중 도덕을 지키기 위해 상업적 생산이 지양되어야 하는 발명품
 - 사람 혹은 동물을 치료하기 위한 진단법, 치료법과 수술법
 - 인간 복제 과정, 신체와 그 유전적 아이덴티티, 산업적/상업적 목적으로 인간의 태아를 이용하는 것
 - 상당한 의학적 도움 없이 고통을 유발하는 동물의 유전자 변형
 - 고대의 지식, 과학, 기술
 - 에콰도르 생태계의 유전자

- 요금
 - 특허 등록: \$136(산업재산권 관보 게재까지 포함)
 - 타이틀 발행: \$204
 - 연간 유지비: 첫해에는 \$104, 7번째 해~20번째 해까지 \$572로 증가
 - 의문의 여지가 있는 발명의 특허 출원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경우 \$169에서 \$964까지 소요될 수 있음.
 - 특허 출원을 위한 개인 변리사 고용 시 약 \$500 소요
- 의무 라이선스
 - 지식재산권법의 154항은 의무 라이선스 발행의 조건들을 설정하고 있다. 대통령은 공공 이익, 비상 사태 혹은 국가 안보를 위해 특정 특허에 대해 의무 라이선스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로열티를 비롯한 소유주의 권리들은 보호된다.
 - 에콰도르지식재산권기구(IEPI)는 특허소유주가 특허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권을 남용하여 자유 경쟁 원칙이 훼손되었다고 사법적으로 선언되었을 경우, 특정 특허에 대해 의무 라이선스를 명령할 수 있다.

□ 디자인

산업적 디자인과 모델은 특허와 같은 법적 틀 안에서 다루어진다. 새로운 디자인과 산업적 모델은 등록될 수 있다. 전적으로 기술적이거나 기능적인 측면에서만 혁신이 이루어진 경우, 혹은 모델의 최종적인 사용을 변화시키지 않는 디자인 변화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다. 디자인과 산업적 모델 등록의 절차는 특허 취득에 관한 법에 기재되어 있다. 디자인과 산업적 모델 인증서는 신청일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된다. 디자인 혹은 산업적 모델 분류는 로카르노 협약(1968)의 국제 분류를 따른다.

□ 상표

- 유형 및 기간
 - 제품 혹은 서비스를 구별하기 위한 사인, 그래픽 재현이 가능하고 충분히 독특한 사인, 집단적 상표, 서비스 마크, 상호, 지리학적 지표, 독특한 외양
 - 상표는 10년간 유지되며 유효기간 만료 6달 전부터 만료 6달 후 사이에 갱신이 가능
 - 상호의 경우 기간의 제한이 없으며 등록도 불필요함.
- 법적 효력
 - 상표는 등록 없이 사용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등록되어야 함.
- 등록이 불가능한 상표
 - 상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습득되고 사용되는 것을 상표 소유자가 방지할 수 없는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의 기능적인 선천적 특성에 내재되어 있는 상품의 형태 혹은 일반적인 상품 및 그 용기의 형태

- 상품이나 서비스에 기능적 혹은 기술적인 편의를 부여하는 상품의 형태
 - 상품이나 서비스의 고유한 혹은 기술적인 이름이거나 비즈니스에 사용되는 사인
 - 법이나 공중 도덕에 위배되는 상표
 - 상표가 다루는 서비스나 상품의 특성 혹은 사용법에 관해 대중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는 경우
 - 무기, 깃발, 공식 문장, 법화 지폐 혹은 기타 공식적인 상징을 복제하거나 모방한 상표
 - 제3자의 권리를 해하는 상표
 -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인식되고 있는 이름을 취하는 경우
- 요금
 - 상표 등록: 하나당 \$116~\$336
 - 상표 등록을 위해 개인 변리사를 고용하는 경우 \$250~\$300 소요

□ 저작권

- 유형 및 기간
 - 저작권과 작가의 제반 권리는 작가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사망 이후 70년 동안 유효하며 갱신될 수 없음
- 법적 효력
 - 저작권 보호를 위해 등록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등록 시 더 높은 수준의 법적 확실성을 확보할 수 있음.
- 저작권 등록 가능한 재산
 - 문학 혹은 예술 분야에서의 모든 독창적인 작품: 책, 책자, 인쇄물, 편지, 기사, 소설, 이야기, 시, 연대기, 수필 등
 - 명시 선집, 편집본, 데이터베이스 등 작품들의 모음집
 - 극작품, 뮤지컬, 안무 및 판토마임, 음악적 작곡
 - 영화 작품
 - 조각 및 회화, 그림, 석판화 등
 - 프로젝트, 플랜, 청사진 및 디자인
 - 그래픽 일러스트레이션
 - 사진 작품
 - 변안/개작한 작품, 번역한 작품, 정보에 대한 갱신 및 주석
 - 컴퓨터 프로그램
- 요금
 - 문학 작품은 \$4, 컴퓨터 프로그램은 \$6, 다른 유형의 작품은 모두 무료

8. 통관절차 및 운송제도

가. 통관

1) 통관 절차

화물의 수입항 도착→보세 지역으로 화물 반입→수입 신고, 납세 신고→세관에 의한 심사, 검사→관세 등의 납부→수입 허가→보세 지역으로부터 화물 반출→수입자 화물 인수의 수순으로 이루어진다.

에콰도르의 통관 절차는 느린 수준으로, 당국에 따르면 2004년 12월 세관 통과에 평균 11.6일이 소요되었으며 그 중 약 3.5일 정도가 세관 신고에 소요되었다. 약 6일 정도가 화물의 도착과 세관 신고의 접수 사이에 경과하였으며, 남은 2.2일은 관세의 납부 및 보세 지역에서의 화물 반출에 소요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관세청이 시행하는 물리적 검사의 빈번함, 너무 많은 업체들의 통관 관여(예를 들면 선적 회사, 검사 회사, 보관 회사, 통관대행업자 등), 법적으로 통관 절차가 너무 길어졌을 때 관세청에 부여되는 페널티가 없다는 점 등이 느린 통관 절차의 이유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에콰도르의 세관 근대화 노력이 그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전자통관 시스템(UNI-PASS)을 수입하여 싱글 윈도우/윈스톱 세관 시스템(ECUA-PASS)을 구축한 것이 그 예이다. 자동 검사/측정 시스템 및 통관 절차의 진보 등으로 세관에서의 물리적 검사는 2003년 70%에서 2011년 34.9%로 감소하였고, 2010년 기준 전체 수입품의 11.6%가 세관 정보가 전자상으로 전송되고 확인되는 자동화된 검사를 거쳤으며 전체 수입품의 44.8%는 수입 관련 서류에 대해서만 물리적 검사를 거쳤다. 또한 통관에 걸리는 시간은 2007년의 11.9일에서 2011년 1월 6.5일로 감소하였다. 전체 수입에 걸리는 시간 및 요금은 29일/컨테이너당 1,332달러였다.

□ 선적전검사

2008년 이전까지 선적 전 검사는 원산지에 관계없이 FOB 기준 \$4,000 이상의 모든 제품에 대해 의무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에콰도르 관세청에서 승인한 4개의 검사 회사(Bureau Veritas, COTECNA, ITS, SGS)가 원산지에서 검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2008년 이후 관세청의 수입위험분석/평가 시스템이 이 선적 전 검사를 대체하게 되어 선적 전 검사는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선적 전 검사를 맡아 하던 네 회사들은 현재 관세청 소관인 (도착 후) 수입 검사를 커미션을 받고 진행하고 있다.

□ 수입 신고

모든 에콰도르로 수입되는 물품은 수입 신고를 거쳐야 하며, 이 신고는 SICE(Interactive Foreign Trade System)의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 관세청으로 보내진다. 유기세관법(Organic Customs Law) 아래, 수입 신고는 상품의 도착 7일 전부터 도착 후 15영업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수입 신고 시 운송 관련 서류 (선하증권/항공화물증권 혹은 항공화물송장), 상업 인보이스, 보험정책, 안데안 가치 신고서 (Andean value Declaration)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 원산지 증명서(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관세 특혜를 적용 받고 싶을 때), 수입 라이선스, INEN-1 기술표준인증서 등은 품목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2007년 이후부터 수입업자/수출업자의 중앙은행 등록은 불필요하게 되었다.

유기세관법은 수입된 제품이 세관 통과를 마치기 전까지 세관 당국에서 인정한 보세창고에 보관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보관된 상품은 무게에 따라 요금이 부과된다.

□ 세관 검사

선적 전 검사 증명서와 함께 들어온 물품들은 임의 체크 시스템에 따라 물리적 검사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 임의체크시스템은 관세청에 의해 결정된 위험 프로파일에 기반하여 작동한다. 수입품의 물리적 검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요구된다. 수입업자가 수입 신고에 대한 세관의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을 경우, 세관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선적 전 검증이 의무 사항이 아닌 수입품의 경우, 수입업자가 요구했을 경우, 자유지대(free zone), 자유무역항, 경유항 등의 조세자유지대(tax haven)에서 온 수입품일 경우, 그리고 “에콰도르 관세청 이사회에서 결정한 기타 등등의 다른 경우” 물리적 검사를 받게 된다. 추가로, 공공 재정개혁법은 관세나 VAT가 면세되는 물품의 경우 도착지에서의 물리적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검사를 실시하는 기관은 에콰도르 관세청과 민간 검사 회사들이다. 2003년 수입품의 약 70%가 물리적 검사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관세청의 세관 효율화 노력에 의해 30%~40%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이다.

2) 수입 형태별 분류

□ 소비를 위한 수입

외국 또는 특별경제개발구로부터 수입된 물품이, 모든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납부하고 기타 통관규정상 의무와 요건을 이행한 후 정해진 방법에 따라 관세구역 내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경우의 절차를 말한다.

□ 동일형상 재수출을 위한 임시 수입

이는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제한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받은 상태에서 관세구역 내로의 반입을 허가하는 절차이다. 따라서 이러한 수입물품은 관련규정 22에 의거 정해진 기간 내에 정상사용 상의 자연감모를 제외한 어떠한 형상의 변경도 없이 그대로 다시 재수출되어야 한다.

□ 적극적 가공을 위한 임시 수입

이는 보완적 재화의 형태로 적극적 가공작업에 사용된 이후 재수출할 것을 조건으로,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면제한 상태에서 관세구역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산업설비들은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의 규정을 이행한다는 보증이 있는 경우, 이러한 수입절차에 의거, 상시 운전을 승인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절차의 적용으로부터 획득된 보완적 재화는 해당 보완적 재화에 사용된 수입부품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고 수입절차를 “소비를 위한 수입”으로 변경할 수 있다.

□ 면세수입물품의 대체

이는, 이미 자유롭게 유통되고 있고 과거 수출된 최종재화를 획득하는데 사용된 것과 종류, 품질, 기술적 특성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의 경우, 수수료를 제외한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면제받고 수입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절차이다

□ 세관 통제하의 변형

이는 수입물품이 그 종류 또는 상태를 변형시키는 가공작업에 투입되는 경우, 관세, 세금, 할증세 등을 면제하여 관세구역에 수입을 허용하고, 추후 가공작업을 거쳐 완성된 제품이 소비를 위한 수입으로 전환되면 새로운 품목분류에 해당하는 관세, 세금 및 할증세를 납부하게 하는 절차이다.

□ 보세창고(Depósito aduanero)

이는 수입된 물품을, 보관 목적으로 인정되고 허가된 특정장소에 일정기간 동안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관하게 하는 제도이다.

□ 동일형상 재수입

이는, 한번 수출되었던 물품에 대해 관세, 세금 및 할증세 등을 면제하여 “소비를 위한 수입”을 허용하는 절차이다. 이 경우 수입되는 물품은 외국에서 어떠한 형상의 변화, 가공 및 수선을 거치지 아니한 상태여야만 하며, 수출 시 부여되었던 조건부 세금 및 수수료 면제 또는 보조금 등의 환불에 따른 지급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3) 간이 통관제도

다음과 같은 경우, 관세청장은 직권으로 간소화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 국제무역전시회

이는, 기 인가된 전시장 등 시설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시할 목적이나 시음·시식, 판촉 및 장식 등을 위한 목적의 물품은 관련 규정의 요건과 형식을 갖춘 경우, 무역관련 세금의 납부를 일시 유보한 상태에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세관 통과(Customs Transit)

이는, 물품이 하나의 지방 사무소에서 해외의 최종 목적지로, 세관의 감독하에 운송되는 절차를 말한다.

□ 화물반송(Back Shipment)

세관절차 또는 도착지 배정 등을 위해 일시 장치 중인 물품은 이 절차에 따라 관세구역으로부터 반송될 수 있다. 물품이 세관절차에 따라 이미 신고되었다 하더라도, 세관당국이 관세분류를 새로운 번호로 변경할 것을 결정하여, 기존 분류에서는 법적 규제사항이 없었으나 새로운 분류에 따른 사전 통제서류 등 새로운 규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물품은 반송될 수 있다.

반입된 물품이 범죄와 관련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는 반송이 허용되지 않는다. 수입금지 품목의 경우는 강제적으로 반송 처리되며, 다만 의류, 단기 멸실 우려 품목 및 교육 기자재 등은 사회정책 담당부처로 귀속된다. 이는 현행 법규정에 의한 간소화 절차에 따라 집행된다.

□ 환적(Transfer)

이는, 도착한 운송수단으로부터 인계된 물품이 관세구역 내에서 다른 선박 등으로 옮겨져 선적되는 절차로서, 환적 절차는 세관의 감독에 따라 이뤄지며 규정에 따른 간소화 절차에 의거, 집행된다.

□ 예외적 절차

- 일반우편에 의한 수출입
- 관세가격이 규정에 정해진 한도 이내에서 우편물로 소비를 위한 수출입이 이뤄지는 경우는 관세청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제협약의 기준에 준한 간소화된 형태로 통관 처리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우편물의 경우는 일반 관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특급우편 또는 택배에 의한 수출입
 - 서류, 물품 등이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르고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며 특급우편으로 발송된 경우, 관세청장이 정한 규정에 따른 간소화된 형태로 통관 처리된다.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 특급우편물의 경우는 일반 관세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 국경무역
 - 국경의 국내 주거지역에서 소비될 물품이 국제협약의 규정에 의거, 교환될 경우, 관세청이 정한 지역적 범위 내에서 무역관련 세금과 형식을 면제하여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 여행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한 차량
 - 이는, 현행 법령이 정한 기간 및 조건의 범위 내에서 여행자가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차량을 반입하는 경우 세금을 면제한 상태로 반입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 기타 예외적 절차
 - 여행객의 수하물, 가재도구 및 선용품과 기용품은 현행법령 및 관세 담당부처의 해당규정에 의거,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반입이 허용된다.
- 절차의 변경
 - 무역관련 세금을 면제받는 절차에 의거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은 인정된 기간 내에 다른 절차에 의한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법적 요건의 이행 이전에 절차의 변경은 권한 있는 담당 공무원이 승인하여야 한다. 단, 소비를 위하여 수입 신고된 물품은 다른 절차를 적용하도록 변경되는 것이 금지된다.

나. 운송

1) 육상운송

□ 도로

에콰도르는 총 43,197Km의 자동차 도로망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6,467Km는 포장도로이다. 도로운송은 에콰도르의 주요 운송수단이며 전국에 영업망을 가진 다수의 트럭 운송업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에콰도르 도로망은 해안선을 따라 다음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를 기본으로 구성된다.

- La Tola, Lagarto, Montalvo, Rocafuerte, Rio Verde, Camarones, Tachina 및 San Mateo.

기타 도로는 다음과 같다.

- Esmeraldas-Atacames-Sua-La Union-Muisne 간 도로
- Santo Domingo de los Colorados 및 Quito 를 향하는 Esmeraldas-Rosa Zarate (Quininde)간 도로. 이 도로는 La Independencia 에서, San Miguel de los Bancos 및 Pedro Vicente Maldonado 를 경유하여 Pichincha 지방에서 나오는 신도로와 합류한다.

□ 철도

에콰도르는 총 966Km 이상의 철도망을 갖추고 있는데 해안지역과 고지대(Sierra 지역)를 연결해주며, 주로 여객수송용으로 이용되고 국유화되어 있다. 철도망은 다음과 같다.

- Quito - Machachi - Quito
- Quito - Boliche - Quito
- Machachi - Boliche - Machachi
- Alausi - Sibambe - Alausi
- Ibarra - Salinas - Ibarra
- Duran - Yaguachi - Duran

2) 해상운송

에콰도르의 항만시스템은 7개의 국영항만과 일반화물 및 유류전용의 민간항만 10개로 구성되어 있다.

□ 과야킬항(Port of Guayaquil)

과야킬항은 에콰도르 대외무역물동량의 70%가 처리되는 주요항구로 1959년-1963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과야킬항은 지리적 위치의 이점으로 인해 특히 태평양 연안지역으로의 해상운송에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남미화물을 집하하여 파나마 운하를 경유, 남미대륙의 동해안과 유럽 및 아프리카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매우 편리하게 이용된다.

에콰도르의 항만 관련 법규는 민간기업들이 제한 없이 항만사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에콰도르는 항만과 세관을 모두 현대화하는 계획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항만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고 있다.

과야킬항은 국제무역의 발전에 걸맞은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과야킬항에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선박 및 화물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가 모두 제공되고 있다. 이들은 항만당국의 감독하에, 공정한 경쟁 속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사용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

- 지리적 위치
 - 과야킬항은 남미 서부해안의 위도 2° 16' 51" S, 경도 79° 54' 49" W 에 위치하며 과야킬시의 도심에서 남쪽으로 10Km 떨어진 Estero Salado 강의 삼각주에 있다.
- 특징 및 부두
 - 과야킬항은 컨테이너, 건화물, 냉장화물 등을 처리, 보관할 수 있는 창고서비스를 비롯해 각종 화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현대화된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다. 과야킬항의 재원을 보면 총면적 200헥타르, 부두 총 길이 1,625미터로 전체 부두는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 있다.

다목적 화물용	잔교(pier) 수	5	제1선창고	4
	총 길이	925 m	제2선창고	20
	하역 에이프론 너비	30 m	위험화물창고	4
컨테이너 터미널	선석(berth) 수	3	컨테이너 적재모듈	7,500 TEU급 4개
	총 길이	555 m	화물집하 및 분산용 창고	각 7,200 평방미터급 3개
	하역 에이프론 너비	30 m	갠트리크레인	40톤급 1개
	컨테이너터미널	2	컨테이너 갠트리크레인	2
벌크 화물 터미널	잔교(pier) 수	1	벌크화물 선적 및 하역용 유압설비	1
	총 길이	155 m		
	사일로수	3 (각 6,000 M/T)		
	곡물 창고	1 (30,000 M/T)		
액상화물 용 탱크	저장면적	4,278 m ²		
	저장용량	30,000 M/T		
	액상화물금속제탱크	3 (각 3,200 M/T)		
식물유 탱크	저장용량	240톤		

□ 에스메랄다스항(Port of Esmeraldas)

에스메랄다스항은 태평양 연안에 위치한 항구로 각종 규격의 선박이 선적 및 하역작업을 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 상업항구 설비는 적절한 안전과 보안을 위해 담장으로 차단된 지역 내에 있으며, 석유가 수출되는 중심항구이다. 이 항구의 주요설비 및 특징은

다음과 같다

- 포장접근도로.
- 소형 및 대형 자동차 주차시설
- 내부 순환 포장도로.
- 출입통제
- 구내의 완전한 차단
- 완벽한 공공서비스 인프라: 전기, 전화, 상수도 및 하수도
- 행정 및 서비스 관련 건축시설
- 컨테이너 야적장
- 3 개 부두: 주부두, 서비스 부두 및 Ro-Ro 부두

이 항구의 계획면적은 약 40헥타르, 수심 11미터로, 향후 부두, 교통로 및 창고(유개, 무개 포함) 등이 늘어날 수도 있다. 기존의 항구설비는 아직 최대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이는 항구의 현재 물동량이 설비용량에 못 미치고 있고 일부 서비스의 아웃소싱으로 유희설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 만파항(Port of Manta)

만파항은, 경쟁력 있는 항구로 개발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가장 발전 잠재력이 큰, 중요한 항구이다. 간조 시 운하시설 없이도 자연적 수심이 12미터에 달해, 연중 대형선박의 접근이 가능하며, 25 해리 이내에 대양으로 나갈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만파 항의 목표 중 하나는 에콰도르 최고의 국제 컨테이너 화물 환적항이 되는 것이다. 이 밖에 만파시는 항구에서 5Km 미만의 거리에 국제공항이 있어서, 안토노브 등 대용량 수송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남미 최적의 교통거점이 되고 있다. 또한 만파항으로부터 도심으로 이어지는 수 Km 이내에 두 군데의 대규모 저장시설을 갖춘 창고지역이 있다.

자연적수심 12m 의 개방항구로서, 내부접안면적 300 헥타아르의 국제부두 및 평행식 부두에 선박이 접안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며 1년 365일 가동되고 있다. 부두로부터 150m 까지는 수심이 15m, 400m 까지는 18m 로, 에콰도르에서 가장 수심이 깊은 항만의 하나이다. 이 항구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교통로는 키토와 과야킬로 이어지는 “11월 4일路”와 기타 강변도로 등이 있다.

만파항은 에콰도르 해안의 주요항구들과는 물론이고 남미·북미의 서해안과 아시아, 대양주, 대서양 등의 항구들과도 운송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만파항은 과야킬로부터 190Km, 키토로부터 400Km, 남쪽의 페루 국경으로부터 466Km, 북쪽의 콜롬비아 국경으로부터 687Km 떨어져 있다. 만파항은 75 에이커의 ZOFRAMA 와 18 에이커의 만파 자유지역으로 이뤄져 있다.

□ 볼리바르항

볼리바르항은 바나나 수출의 90%를 처리하고 있는 항구이다. 에콰도르와 페루가 지난 1988년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양국간 교역은 급증하였는데, 그때부터 볼리바르항의 통과화물이 크게 늘어났고 특히 페루북부에서 북미 또는 유럽시장으로 운송되는 화물이 많다.

에콰도르와 페루가 구성한 “양국민간투자촉진협회”(Grupo Binacional para la promocion Inversion Privada, GBPIP)는 양국간 육로 및 해상 교역을 증진하기 위해 페루의 파이타항과 에콰도르의 볼리바르 항을 양국간 항만 중심축으로 만들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엘오로 지방의 볼리바르항은 함벨리 군도에 의해 보호되고 정박장에서 대양까지의 거리가 4.5해리에 불과한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에콰도르 제 2의 항구가 되고 있으며 전세계 항구와 연결되는 파나마운하와 불과 13 마일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세계의 바나나 자본들이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항구가 되고 있다.

볼리바르항은 27,104 m²의 창고 및 야적장을 갖추고 있는데, 이중 10,152 m²는 다목적 화물용이며 14,592 m²는 바나나 적재용이고 나머지 2,360 m²는 벌크 화물용이다.

3) 항공운송

에콰도르는 키토, 과야킬, 만파 시에 있는 국제공항 3개를 포함하여 매우 우수한 항공 운송망을 갖추고 있다.

□ 마리스칼 수꾸레(Mariscal Sucre) 키토국제공항

수도인 키토시에서 약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2013년 2월 20일 운영을 시작하였다.

신공항은 구공항의 약 12배에 해당하는 부지에 연간 5백만 명의 여객과 25만 톤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여객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1,000대의 주차 공간 및 시간당 최대 12대의 항공기 이착륙 가능 시설을 갖추어 고도 2,100m 지점에 위치한 신공항에서는 100% 화물 선적운송이 가능해 질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키토 항공화물 수송에 90%를 차지하는 화훼분야 물동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2007년부터 키토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외국 관광객 수가 연 47만 명에서 점차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1만 명을 기록, 키토 관광청은 현대적 시스템 및 편의시설 완비로 이러한 국제적 수요 증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 증가 효과 기대하고, 신공항이 구공항보다 고도가 낮은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국제선 운항 시 과야킬 또는 인근국가 공항 등 1개 공항을 경유하여 재주유가 필요했던 노선(뉴욕, 시카고, LA, 멕시코시티, 부에노스아이레스, 상파울로)의 직항이 신설되었으며, 유럽지역 직항노선 증설 계획도 논의

중에 있다.

이로 인해 현재 신공항이 위치한 Tababela 지역인근에 편의시설 전무하여 향후 호텔, 외식, 여가(렌트차량), 화물 업종 관련 기업 등의 인근지역 진출 및 관련 편의시설 건설 등으로 신공항 인근 지역 주민은 물론 키토시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구공항에서 23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공항으로의 승객 및 물류 이동을 위해 다양한 민간업체 서비스가 개발 될 것으로 예상된다.

□ 호세 호아킨 데 올메도(José Joaquín de Olmedo) 과야킬 국제공항

과거 시몬 볼리바르 공항으로 불렸던 이 공항은 리모델링 공사를 거쳐 2006년 7월 27일 운항을 재개하였다. 활주로는 그대로이나 각종 관련시설들은 모두 최신의 현대식기능으로 교체하였다. 국제선 및 국내선이 기항한다.

과야킬 시의 북쪽 시경계선 내에 위치한 이 공항은 해발 6m, 참조기온 31℃이며, 15개의 항공기 기착장, 8개의 화물 수송기 기착장(원격), 7개의 다목적 항공기 기착장을 갖추고 있다. 활주로 길이는 2,790미터이며 너비는 45미터이다.

□ 엘로이 알파로(Eloy Alfaro)국제공항

마나비(Manabi) 지역의 만파시에 위치한 이 공항은 에콰도르의 국제여객 및 화물수송에 있어 키토공항과 과야킬공항의 보완적·대체적 기능을 하고 있다. 활주로 길이 2,854미터, 너비는 45미터이다.

엘로이 알파로 공항은 1994년 3월 15일 국제공항으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에콰도르 정부는 1999년 미국 정부와 엘로이 알파로 공항의 일부를 미군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정을 체결하였다. 2009년 만료된 이 협정에 따라 미국정부는 지난 2000년 활주로의 탄성 개선, 현대식시각 AIDS(조명)과 최신 VOR(무선보조장치) 설치 등 약 6,000만 달러 규모의 개·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2001년 10월 공사가 완료된 후, 엘로이 알파로 국제공항은 항공기 운항 성능의 99.9%를 발휘할 수 있는 에콰도르 최고의 공항으로 부상했으며 브라질 마나우스와 만파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축이 되는 인프라건설의 일환으로 활주로 확장공사가 기대되고 있다.

4) 내륙수로운송

에콰도르는 선박 운항이 가능한 수개의 하천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에는 태평양 연안의 과야킬 만으로 흐르는 26,000km 의 과야스 강과 준설이 필요치 않을 만큼 수심이 깊은 다올레 강, 빈센스 강 등이 포함된다.

9. 수출유망품목

가. 개요

에콰도르는 최근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있고 집중 투자분야는 인프라 건설, 보건, 의료, 교육이다. 정부지출로 인한 인프라 건설 부분이 활발해지면서, 건설장비(유압브레이커, 포크레인 등), 건축자재 등의 수출이 활발해질 예정이므로 관심을 가지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에콰도르는 2011년 신차 수입시장에서 현대는 전체의 10.6%로 2위를 차지하고, 기아는 8.6%로 3위를 기록하며 한국 수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40%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산 자동차가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향후 A/S용 자동차 부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에콰도르의 의료 장비업은 한국 제품의 가격과 품질에서 경쟁대상이 됨으로써 의료소모품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앞으로 전망 높은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 광섬유, 석유화학 제품은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에콰도르로 수출이 부진한 품목은 고관세로 인한 원단, 의류/신발, 식품 관련 제품이다.

에콰도르 수출유망품목

유망품목	유망품목 선정 사유 및 시장동향
의료기기	한국산 의료기기에 대한 인식이 높음. 이미 정부병원(보건소 등)에 보급된 제품도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유럽산 대비 뒤지지 않는 품질에 알맞은 가격으로 관심이 큼.
의약품	2014년 3월 에콰도르의 한국 KFDA에 대한 에콰도르 자동인증 승인조치로 한국산 제품 등록기간 단축, 시장진출환경이 개선됨.
폴리우레탄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	2013년 12월 플라스틱 제품, 화장품, 개인위생용품(비누 등)에 대한 적합성인증서 제출 의무조치에 따라 관련제품 국내 생산 증가.
Pressure Vessel, 파이프 등 원유개발/플랜트 관련 제품	산유국으로 원유개발/생산을 위한 수요 상존. 또한 120억 규모의 정유소 신설 추진 중으로, 관련제품 수요 확대 예상
전력기자재	2016년 8기의 신규 수력발전소 가동 예정(총 2,300MW 이상)으로 배전, 송전망 확충 활발. 전력기자재 수요 확대

10. 시장특성

가. 개관

1) 지역환경에 따른 성향차이

에콰도르는 키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간지역과 과야킬을 중심으로 한 해안지역 사이에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해발 2,850m의 산악지역에 위치한 수도 키토는 보수적인 성향을 띠며 피친차주의 주 행정도시로서, 정치와 문화의 도시이다. 반면에 해안지역의 상업 무역 도시인 과야킬은 개방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

이러한 성향은 사업가들에게도 나타나는데, 키토 지역의 사업가는 사회적인 엘리트들로, 더 보수적이고 공식적이며 거래에 있어 신중한편이다. 반면, 과야킬 지역의 사업가들은 더 기업가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비교적 열려 있는 편이며,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어 소비의 도시라고 볼 수 있다.

2) 중산층은 전체인구의 45% 차지

소비자가 욕구 충족을 위해 제품을 선택하는 행동양식은 변화한다. 품질보다는 가격인하를 추구하기도 하고, 특히 낮은 수준의 사회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특정 제품의 소비에 제한이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구매력 있는 계층은 항상 존재한다.

에콰도르의 소득 수준별로 계층을 알아보면 빈민층은 최근 10년간 55%에서 26%로 줄었고, 중산층은 14%에서 35%로 증가하였다. 즉, 에콰도르 인구 45%에 도달하는 525만 명이 오늘날 도시에서 풍족한 문화적 조건, 경제적 안정을 누리며 사는 사회계층인 중산층이라고 한다. 이는 소득수준별로 4개의 사회계층으로 정의를 내리는 데 빈민층은 월 1인당 120달러 이하의 수익을 얻는 층이고, 취약층은 120-300달러(1인당/월), 중산층은 300달러(1인당/월), 상류층은 평균 1,500달러(1인당/월) 이상의 수익이 있는 층으로 에콰도르 인구 2%에 해당된다.

3) 늘어가는 소비지출

에콰도르 소비자들이 물품 구매 시 선호하는 슈퍼마켓과 쇼핑센터가 전국 각지에 새로 문을 열고 있는데, 특히 인구가 많은 대도시에서 집중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소비자들이 최근, 이러한 슈퍼마켓 및 쇼핑센터를 자주 찾는 이유는 이 곳이 넓은 공간에 조명시설이 잘 되어 있으며 접근성도 좋고 상하기 쉬운 식료품의 냉장시설 등 위생 및 품질표준이 만족스러운데다 매력적인 상품진열과 현대식 정보통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등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중간 소득층 이상의 소비자들이 이러한 슈퍼마켓을 즐겨 이용하는데, 판매량을 기준으로 전통시장에서의 소비는 전체의 71%, 슈퍼마켓에서의 소비는

전체의 29%로 나타나고 있다.

에콰도르 소비자가 지출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품들은 휴대폰, 인터넷, 알코올제품, 담배, 유료 TV, 영화관, 패스트푸드 등이다.

나. 시장 규모

에콰도르 시장은 현재 1천 5백만 인구로 비교적 작다. 민간 수요는 전체 GDP의 46.8%이며 주로 가계 소비이다.

에콰도르 인구 표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5월)
인구 (백만)	13.8	14.0	14.3	14.4	14.6	14.8	15
실업률 %	7.3	8.5	7.6	7.5	7.4	7.3	5.58

에콰도르인은 주로 해안과 시에라(안데스)지역에 밀집해 있으며 도시 인구는 전체인구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연간 2.3% 비율로 도시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경제 활동은 키토와 과야킬 두 주요 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키토에는 중앙정부, 공공기업, 글로벌기업 및 기타 에콰도르 기업들의 본사가 위치해 있고 과야킬은 주로 항구(무역)와 관련된 사업활동을 하며 바나나, 카카오, 새우 등의 수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다.

다. 주요 유통구조

에콰도르에는 동네가게나 재래시장 등 전통적 유통망과 최신식 쇼핑몰 및 슈퍼마켓 등 현대적 유통망이 공존하고 있다.

각 지역에는 식품이송 터미널이 있어서 전국의 각 도시에 있는 모든 시영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에는 과일, 채소, 쌀 등 가계용 기초품목 및 대량 소비품목의 종류별로 수 개의 소매상들이 모여 있다.

또한, 고객의 소득수준에 따라 구분되는 대형 유통채널이 있는데, 고소득층을 주 고객으로 하는 “수페르막시(Supermaxi)” 등 대형슈퍼마켓, 중·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미꼬미사리아또(Mi Comisariato)”, 저소득층을 고객으로 하는 아끼(AKI), 띠아(Tia), 산따클라라(Santa Clara) 등이 있다.

식품, 의약품 및 생활용품(Hardware) 업계의 시장 집중화 현상은 줄어들고 보다 경쟁적인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다만 좀더 많은 자원을 가진 업체가 그에 합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상점주인들은 이러한 동향 변화에 가장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매우 전문화된 상점만이 생존하고 있으며 그렇지 않은 상점들은 사라지게 될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소비재 부문의 경우, 유통업체들은 산악지역과 해안지역 모두에 있어 비교적 발달한 물류체계를 갖추고 있다. 에콰도르에서 무역은 GDP의 19.5%를 차지하며 전체인구의 11%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인데 유통부문은 규모가 적고 집중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1) 제품

대형 유통업체들은 종종 수입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경우가 있다. 수입상품은 시장에서의 좋은 이미지, 소비자 신뢰도, 품질 및 기타 포장 등으로 인해 국내산에 비해 경쟁우위를 가지고 있다.

2) 판매전략

유통업자 또는 도매상은 고객에게 공급할 판매경로를 설계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유통집단과 하청업체를 보유하고 있어 크리스마스시즌과 같은 특수 판매기간에 이들을 활용하고 있다.

3) 판촉

유통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상점들은 할인, 시식/시음, 재고처리용 쿠폰 등 각종 판촉 행사를 실시한다. 소형 유통업체 및 도매상은 제조업체의 자금지원으로 마케팅 활동의 중간자역할을 할 뿐이다. 소매상들은 재고가 남은 경우 판촉행사의 주체가 된다.

4) 가격 및 마진

유통업체들은 특히 수입의 경우 상품을 대량으로 구입하며 평균 5%까지의 할인혜택을 얻는다. 유통업체들은 보통 약 10%의 판매이익률을 적용한다. 이는 다소 낮은 것처럼 보이지만 대량구매와 그에 따른 할인으로 낮은 이익률을 보전할 수 있다. 수입상품의 경우에는, 이익률이 독점판매권을 행사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 30%를 초과한다. 공동으로 유통하게 되는 경우는 가격이 묵시적으로 결정된다. 소매업체들은 20%~50%의 판매마진을 적용하고 있다.

5) 유통단계의 금융

공급업체에 대한 대금지급은 보통 30일 이상의 후불이며, 수입의 경우는 외상기간이 좀더 길어서 90일~120일 후불이다. 이때 적용되는 금리는 유통업체와 구매자에 적용되는 은행간 금리이다. 구매자는 종종 개별 신용도에 따라 신용한도를 설정하게 되며 금리 등에 있어 우대를 받기도 한다.

최종 소비자가 얻을 수 있는 신용혜택은 많지 않다. 신용카드에 의한 구매 또는 회원제 카드에 의한 할인혜택 정도이다

라. 중간 유통채널

에콰도르 시장은 제조업체와 소비자 사이에 2단계의 중간 유통채널을 가지고 있다.

1) 제1단계의 중간상: 수입업자-유통업자 및 도매상

수입업자-유통업자는 독자적인 위험부담을 가지고 자신의 비용으로 거래하기도 하며 다른 업체를 대리하여 거래하기도 한다. 1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가진 수입업체는 음료, 식품, 자동차, 기기, 생활용품, 향수, 화장품 등 매우 폭넓은 상품군을 취급한다. 이보다 규모가 작은 수입업체는 여러 개의 보완적 상품 분야에 특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재와 식품, 건설자재와 생활용품, 의약품과 화장품 등이다.

모든 수입업자는 상품을 지역별 유통업자와 소매업자에게 공급한다. 이들은 그 재무적 역량, 자원의 가용성 및 지급능력 등으로 인해 제 1단계 중간상 가운데 가장 강력한 집단이다. 에콰도르 시장은 가격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이 요구된다. 그 노력의 초점은 그들의 공급품에 대하여 매우 경쟁적인 가격을 얻어내는데 놓여 있다.

제1단계 중간상의 두 번째 형태는 도매상이다. 도매상은 지역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공급하며 식품 및 소비재 유통에 특화하고 있다. 도매상은 수입업자 집단보다 수적으로 더 많으나 그만큼 힘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도매상은 보다 분산되어 있는 하부구조라 할 수 있으며 규모가 매우 큰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제조업자와 소매업자에 대한 교섭력도 그만큼 작은 것이 사실이다.

2) 제2단계 중간상: 소매상

소매상은 매우 세분화되어 있으며, 전체의 95%가 단일 판매창구를 가지고 있다. 소매상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 상점: 주민 10만 명 당 210개의 점포밀도
- 체인점: 도시지역 중산층 이상 인구의 85%를 차지함.
- 대형점: 에콰도르 시장에 처음 진출한 하이퍼마켓의 특징을 가짐.
- 비공식소매점: 에콰도르 전체인구의 60%에 해당하는 중산층 이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며 전국에 넓게 퍼져 있음.

이 밖에 본사를 대리하거나 본사가 직영하는 대리점 형태의 소매상도 있다. 주로 기계산업, 목재산업, 건설, 농업 및 식품산업에서 자주 나타난다. 공식 통계는 없지만, 대리점 비중은 매우 높다. 대리점은 한 두 라인으로 운영되고 단순히 재고관리만 하기도 한다. 대리점 형식의 소매상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문제점은 A/S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는 상품브랜드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또 하나의 소매상은 최근 약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프랜차이즈점이다. 에콰도르에 진출한 외국계 프랜차이즈는 약 30개로 이중 90%는 미국계 기업이다. 프랜차이즈의 진출 속도는 느린 편이며 대부분은 패스트푸드 산업에 속해 있다. 그러나, 드라이클리닝-“Martinizing”, 구두수선-“Heel Quick”, 민간우편-“Post Net”등의 프랜차이즈도 있으며, 의류부문에서도 “Benetton” 등의 브랜드가 프랜차이즈로 들어와 있다.

(자료원: PRO ECUADOR)

11. 바이어 발굴

가. 코트라 바이어 찾기 서비스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요청에 따라 전세계 해외 무역관에서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바이어 정보를 유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의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고객 의뢰 시점에 해외 무역관에서 바이어를 접촉, 발굴하여 KOTRA수출전문위원과 고객이 공동으로 확인 후 고객이 거래알선을 추진하는 서비스임. ○ 정보내용은 고객의뢰 품목 현지시장 핵심 포인트, 시장동향요약, 관심바이어 (1개사 이상) 및 잠재바이어(3개사 이상)로 구성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어 찾기 서비스는 국내생산제품의 바이어 발굴인 경우 가능하며 제품에 대한 영문카탈로그 혹은 영문 홈페이지를 보유한 경우에 이용 가능함. ○ 모든 조사는 현지 무역관의 사전검토 후 진행되며 사전검토 및 조사 중 다음과 같은 사유로 조사가 거절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국가의 직, 간접적인 수입제한 품목인 경우 - 해당 국가의 시장성이 미약하거나 거래의사를 가진 바이어가 거의 없는 경우 - 해당 무역관의 지사화 품목인 경우 - 3개월내 동일품목으로 조사가 기 진행된 경우 ○ 이 서비스는 정확한 바이어 정보전달을 위한 것으로 바이어의 한국으로부터 수입을 보장하는 서비스는 아님.
문의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TRA 사업안내: 1600-7119 ○ 에콰도르의 경우 현지 키토 무역관의 Q&A 게시판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ww.kotra.or.kr에서 '해외조직망 바로가기', '키토무역관' 클릭

나. 현지 기관 접촉

1) 지역별 상공회의소

- 키토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Quito)
 - 주소: Av. Republica y Amazonas, Edf. De las Camaras, Pisos 5 y 6, Quito
 - 전화번호: (593-2) 244-3787
 - 팩스: (593-2) 243-5862
 - 이메일: ccq@ccq.org.ec
 - 홈페이지: <http://www.lacamaradequito.com/>

- 과야킬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Guayaquil)
 - 주소: Av. Francisco de Orellana y Miguel H. Alcivar, Edificio Centro Empresarial "Las Cámaras", Piso 2-3, Guayaquil
 - 전화번호: (593-4) 259-6100
 - 이메일: info@lacamara.org
 - 홈페이지: <http://www.lacamara.org/website/index.php>

- 꾸엥까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Cuenca)
 - 주소: Av. Federico Malo 1-90 y 12 de Abril, Edf. de las Camaras, Piso 2, Cuenca
 - 전화번호: (593-7) 284-2772
 - 팩스: (593-7) 284-2772
 - 이메일: info@cccuenca.com.ec
 - 홈페이지: <http://www.cccuenca.com.ec/>

- 암바토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Ambato)
 - 주소: Montalvo 630, Ambato
 - 전화/팩스: (593-3) 282-6507
 - 이메일: camcomam@uio.satnet.net
 - 홈페이지: <http://www.ccca.fin.ec/>

- 만타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Manta)
 - 주소: Avenida 2da., entre Calles 10 y 11, Edf. Banco del Pichincha, Piso 1, Manta
 - 전화/팩스: (593-5) 621-306, 626-516, 613-553
 - 이메일: direccion@ccm.org.ec
 - 홈페이지: <http://ccm.org.ec/>

- 마찰라 상공회의소 (Cámara de Comercio de Machala)
- 주소: Rocafuerte y Buenavista, Edf. Camara de Comercio, Piso 2, Casilla 825, Machala
- 전화/팩스: (593-7) 930-640, 934-454; Fax: (593-7) 934-454
- 이메일: ccomach@ecua.net.ec

2) 산업 협회

- 의약품 판매자, 수입업자, 수출업자 협회 (Association of Ecuadorian Distributors, Importers, and Exporters of Medical Products, ASEDIM)
- 주소: Av. Portugal No. 448 y Catalina Aldaz, Quito
- 전화: (593-2) 333-1520 / 333-1169 / 225-2164
- 이메일: asedim@cablemodem.com.ec
- 홈페이지: <http://www.asedim.com/>

- 섬유산업협회 (Association of Textile Industrialists, AITE)
- 주소: Av. Amazonas y Av. Republica, Edificio Las Camaras, Piso 8, Quito
- 전화: (593-2) 245-1350 / 245-1286
- 홈페이지: <http://www.aite.com.ec>

- 자동차산업협회 (Automotive Association, AEADE)
- 주소: Nuñez de Vela E3-13 y Avenida Atahualpa, Edificio Torre del Puente, Piso 10, Quito
- 전화: (593-2) 226-9052 / 226-9056 (담당자 Oscar Calahorrano)
- 팩스: 226-4927 / 226-9055 (담당자 Oscar Calahorrano)
- 이메일: ocalahorrano@aeade.net(담당자 Oscar Calahorrano)
- 홈페이지: <http://www.aeade.net>

- 과야킬 건설업 협회 (Chamber of Construction of Guayaquil)
- 주소: Centro Empresarial "Las Cámaras". Av. Fco. de Orellana y Miguel H. Alcívar, Torre Institucional. Piso 7. Guayaquil
- 전화: (593-4) 268-1460
- 이메일: servicios@cconstruccion.net
- 홈페이지: <http://www.cconstruccion.net/portal/>

- 키토 건설업 협회 (Chamber of Construction of Quito)
- 주소: Psje. Juan Pablo Sanz e Iñaquito Edf, CCQ, Quito
- 전화: (593-2) 2432-369/370/773
- 이메일: informatica@cconstruquito.ec
- 홈페이지: <http://www.camaraconstruccionquito.ec>

- 화석연료산업협회 (Ecuadorian Association of Hydrocarbon Companies, AIHE)
 - 주소: Av. Amazonas N37-102 y Unión Nacional de Periodistas, Edificio Puerta del Sol, Piso 8, Quito
 - 전화: (593 2) 226-1270
 - 팩스: (593 2) 226-1272
 - 이메일: aihe@aihe.org.ec
 - 홈페이지: <http://www.aihe.org.ec>

- 프랜차이즈협회 (Ecuadorian Franchising Association, AEFran)
 - 주소: Pradera N30-258 y Mariano Aguilera. Edificio Santorini, Piso 2 Of. 2A, Quito
 - 전화: (593-2) 255-4653 / 254-1257
 - 담당자: Guido Santillán (개인전화 099844730)
 - 이메일: expo@aefran.org
 - 홈페이지: <http://www.aefran.org/>

- 프랜차이즈협회 (Ecuadorian Franchisors' Association)
 - 주소: Av. Diego de Almagro 2033 y Whymper (Esq.) Edificio Torres Whymper, Piso 5, Oficina 502, Quito
 - 전화: (593-2) 252-6846, 256-7263
 - 홈페이지: <http://www.asofranquicias.com/>

- 호텔협회 (Hotel Association of Ecuador)
 - 주소: Quito, América N38-80 y Diguja
 - 전화: (593 2) 245-3942 / 244-3425
 - 이메일: ahotec@interactive.net.ec
 - 홈페이지: <http://www.hotelesecuador.com.ec>

- 광업협회 (Mining Chamber of Ecuador)
 - 주소: 12 de Octubre y Lincoln, Edificio Torre 1492, Piso 12, Oficina 1203, Quito
 - 전화: (593-2) 298-6624 / 298-6625 / 298-6626
 - 팩스: (593-2) 298-6627
 - 이메일: info@cme.org.ec
 - 홈페이지: <http://www.cme.org.ec>

- 전국기업인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Entrepreneurs)
 - 주소: Av. Amazonas N25-23 y Colón Edif. España piso 6, oficina No. 67. Quito
 - 전화: (593-2) 290-2608
 - 팩스: (593-2) 223-8507
 - 홈페이지: <http://www.ande.org.ec>

- 플라스틱협회 (Ecuadorian Plastics Association)
 - 전화: (593-4) 285-0683 / 285-1069
 - 이메일: aseplas@espol.edu.ec
 - 홈페이지: <http://www.aseplas.org>
- 민간은행협회 (Private Bank Association)
 - 주소: Av. República de El Salvador y Suecia, Edificio Delta 890, Piso 7, Quito
 - 전화: (593-2) 246-6670 / 246-6671 / 246-6672
 - 팩스: (593-2) 246-6701 / 246-6702
 - 이메일: abpe1@asobancos.org.ec
 - 홈페이지: <http://www.asobancos.org.ec>

3) 기타 유관기관

- 에콰도르수출업자연합 (Ecuadorian Federation of Exporters)
 - 주소: Edif. Torres Del Nte. Torre B. Piso 5 Ofic. 501, Guayaquil
 - 전화: (593-4) 268-7242
 - 홈페이지: <http://www.fedexport.com>
- 생산고용경쟁력부 (Ministerio Coordinador de Produccion, Empleo y Competitividad)
 - 주소: Av. La Coruna N2558 y San Ignacio. Edificio Altana Plaza Piso 4, Quito
 - 전화: (593-2) 381-5600
 - 홈페이지: <http://www.mcpec.gob.ec/>
- 프로에콰도르 (Institute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Investments)
 - 주소: Av. Francisco de Orellana, Edif. World Trade Center, Torre A, piso 13, Guayaquil
 - 전화: (593-4) 259-7980
 - 홈페이지: <http://www.proecuador.gob.ec/>
- 외교통상통합부
 - 주소: Carrion E1-76 y Av. 10 de Agosto, Quito
 - 전화: (593-2) 299-3200
 - 이메일: webmast@mmrree.gov.ec

12. 상관습 및 거래 시 유의사항

가. 주요 국제 대금결제 방식

1) 선불방식(Pago anticipado)

수입업자가 물품이 선적되기 전에 거래대금을 수출업자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결제방식은 전적으로 판매자의 신뢰에 의존하는 수 밖에 없으므로 구매자에게 매우 위험한 방식이다. 판매자가 고의로 물품 발송을 지연시킬 수 있고 심지어는 물품을 발송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2) 직불 방식(Pago Directo)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가장 일반적인 지급수단은 수표(Checks), 지급명령서(Payment Orders), 환어음(Bank Drafts) 또는 환(Transfers) 등이다. 이 방식은 주로 당좌구좌 또는 배서에 의한 현금 지급조건인 경우 사용된다.

3) 서류 추심(Documentary Collection)방식

은행이 중간에서 물품 수령관련 서류를 관리해주는 방식으로, 당사자의 지시에 따라 대금지급 또는 인수가 이뤄진다. 수출업자는 거래은행을 통해 추심은행으로 물품수령 관련 서류를 지급지시서와 함께 송부하면, 수입업자가 서류를 인도받으면서 대금을 지급 또는 환어음을 인수하고, 추심은행은 수령한 대금을 수출업자에게 송금하게 된다.

□ 서류지급인도 방식(Document against Payment, D/P)

추심은행이 수출업자가 송부해 온 물품수령 관련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제시하여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하면 서류를 인도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수입업자가 대금을 지급할 때까지 수출업자가 서류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 서류인수인도 방식(Documents against Acceptance, D/A)

추심은행이 수입업자가 정해진 날짜까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는 환어음을 인수하면, 서류를 인도하여 물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서류 추심 방식은 한 개 이상의 은행이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선불 또는 직불 방식에 비해 위험성이 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식도 수출입 계약상의 의무사항을 강제적으로 이행하도록 보증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4) 신용장(Letter of Credit, L/C)방식

신용장 또는 화환신용장은 국제 상거래의 당사자들간에 위험의 형평을 맞추고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에 관한 객관적 보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대금지급 방식 중 가장 특별한 제도이다. 신용장은 은행이 지급을 약속하는 지급보증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은 신용장이 취소불능(Irrevocable L/C)이고 확인신용장(Confirmed L/C)인 경우 더욱 확장된다. 신용장 방식은, 신용장에 명시된 조건과 제시서류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할 경우, 수입업자의 요청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은 무조건 대금을 지급할 법적 의무를 가지므로 수출업자에게 위험이 매우 낮은 방식이다.

직불 방식은 선불 방식의 일종이지만 구매자에게 모든 혜택이 주어지는 변형된 형태이다. 물품이 발송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이므로 판매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방식이다. 수입업자는 물품수령을 거부할 수도 있고, 대금지급을 고의로 연기하거나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수출업자에게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수출업자가 다행히 물품을 반송 받는다고 해도 관련비용을 보상받지 못하므로 실질적인 손해를 입게 된다. 이러한 경우, 은행의 역할은 고객의 지시에 따라 환어음을 지급해주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수출업자의 보호측면에서는 아무런 보장이 없다고 할 수 있다.

13. 주요 전시회 개최일정

2014	행사명	산업 분야	날짜	개최 도시	장소	홈페이지
3월	섬유 전시회 Xpotex 2014	섬유 패션 자재 재료	3.12- 3.14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xpotex.com.ec
	광산 전시회 expo minas 2014	광산 자원 환경	3.26- 3.28			www.hjbecdachferias.com
4월	가구 전시회 Mueble hogar 2014	목재 가구 인테리어	4.4- 4.13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madi.ec
6월	2014 자동차 전시회 Feria profesional de transporte	교통수단, 차량	6.6-6.8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http://www.expoguayaquil.com/
	2014 부동산 전시회 Salon de la Vivienda	부동산주 택 사무실 가게	6.20- 6.29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salonviviendaquito.com
7월	2014 국제 신발 전시회 FICCE- Feria internacional de calzado y componente	구두 기술 재료 자재	7.3-7.5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fice.com.ec
7월- 8월	2014 보완·안전 전시회 Seguri Expo Ecuador 2014	안전 보완	7.31- 8.2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www.seguriexpoecuador.com
8월	2014 철물 전시회 Ferreteria	철물 철제	8.16- 8.17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expoceq.ec
	2014 건축, 설계 전시회 Construye y Remodela	건축 설계 리모델링	8.20- 8.24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http://www.expoguayaquil.com/

2014	행사명	산업 분야	날짜	개최 도시	장소	홈페이지
9월	21 th 키토 건축 전시회 XIX Feria Quito Construcción	건축	9.10- 9.14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expoceq.ec
	치과 전시회 Expo Dental	치과 장비 재료	9.18- 9.21			
	2014 복지, 건강 전시회 Expo Salud	건강 복지	9.19- 9.21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http://www.expoguayaquil.com/
	2014 자동차, 철제 전시회 PromExpo 2014	차량 철제 철물	9.19- 9.21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expoceq.ec
	2014 국제 관광 전시회 FITE 2014	관광 산업	9.22- 9.30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http://www.expoguayaquil.com/
	2014 Oil & Power 전시회 Expo Ecuador Oil & Power 2013	석탄 석유 에너지	9.24- 9.26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hjbecdachferias.com
10월	2014 뷰티 박람회 Feria de Belleza	화장품 건강 유행	10.17- 10.20	과야킬	Centro de Convenciones Guayaquil	http://www.expoguayaquil.com/
	2014 공산업 전시회 EXPOINDUSTRIAL 2014	공업 금속 전자 기계	10.22- 10.25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expoceq.ec
11월	CLAVE잡지사 부동산 전시회 Feria de la Vivienda	부동산주 택 사무실 건축	11.07- 11.16	키토	Centro de Exposiciones Quito	www.feriadelavivienda.com.ec
	EXPOHOME 부동산 전시회 2014	부동산	11.20- 11.22			www.madexpoecuador.com

14. 수출 성공 실패사례

가. 성공 사례: 한국산 농기계 안데스산맥을 누빈다

1) 기업개요

- 기업명: D사
- 품목: 트랙터

2) 성공 사례

- 금액: US\$ 1백만
- 계약시점: 2012년 10월 Latin America Business Plaza 행사 방문 시
- 바이어명: P사

3) 진출 시 기업 상황

- 에콰도르 기업 P사는 40년 이상 미국의 John Deer 농기계를 취급해 왔으나 2012년 독점권 갱신이 어려워지면서 다른 공급선을 모색 중이었음.
- P사는 한국 D사의 KOITI 트랙터 수입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D사와 이메일, 전화로 초기 교신을 추진하고 있었음.
- D사 역시 P사의 거래요청을 받고 본사의 해외 에이전트 계약 조건 등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사업추진에 대한 확신은 갖지 못한 상황
- 무역관은 P사를 방문하여 현재의 상황을 청취하고 지원을 약속한 이 후 D사의 담당자와 연락하여 향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약속
- 마침 수출지원을 위한 특별사업으로 KOTRA가 추진하는 Latin America Business Plaza 사업에 P사를 초청하기로 결정
- P사와 D사는 거래를 위한 사전검토를 위해 많은 시간과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P사의 방한 날짜에 맞춰 계약에 필요한 많은 부분을 일괄 타결시킴.
- 수출상담회를 통해 계약을 위한 최종 조건을 검토한 후 P사는 D사의 대구 생산시설을 방문하고 계약을 체결함.

4) KOTRA 지원 내역

- 해외 바이어, 한국 수출기업간의 거래에 대한 우려를 긴밀한 조사와 연락을 통해 해소, 조기 수출계약을 지원

5) 성공 내역(성과)

- 한국산 농기계(트랙터)의 에콰도르 수출기반 마련

6) 향후 사업 추진 방향

- P사는 D사의 트랙터를 에콰도르 키토시 인근(해발 2850m) 농가에 보급, 운영할 예정으로, 충분한 운영능력이 검증되면 콜롬비아, 볼리비아 등 안데스 고산지대 국가에 수출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15. 수출 시 애로사항

가. 수입제한 조치의 갑작스러운 도입

에콰도르는 국가의 환경보존을 위해 다양한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고 있다(에어컨 저에너지효율 제품 수입금지, 자동차수입쿼터 운영 등). 하지만 관련규제 발표 시 사전에 충분한 고지 없이 관보에 발표되는 당일부터 적용되는 조치가 많아 선적 후 통관 불가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일례로 2013년 6월 5일 발표된 저효율 에어컨 수입제한 조치는 사전홍보 없이 이루어져 각국 수출기업, 현지 도매상이 저효율 에어컨을 발주하고도 통관이 불가능하여 혼란을 겪고 있다.

나. 외환송금세 부과에 따른 수출가격 상승

에콰도르는 모든 해외송금에 대하여 5%의 외환송금세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바이어와의 가격 협상 시 수출기업이 최초에 제시한 가격보다 바이어가 납부해야 하는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가격 협상 시 외환송금세 반영 필요하다고 본다.

다. 기술인증기간 장기간 소요에 따른 수출 지연

에콰도르는 소비자안전에 직결되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며 인증제도는 에콰도르기술표준원(INEN)이 관리하는데 일반적으로 인증획득에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다. 또한 INEN 측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 실험을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서류제출로만 심사하는 반면, 담당자별로 요구사항이 다른 경우가 있어 예상치 못한 품질증명서를 요청 받을 우려가 있다.

라. 신규 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통관 지연

에콰도르 세관은 2013년 2월 부로 전자통관시스템 구축을 완료함으로써 모든 통관이 전자문서로 이루어져 업무적으로는 통관시간이 단축되고 종이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 효율화 되었으나, 시스템 도입 초기인 관계로 통관기간이 일정하지 않다. 이에 따라 화물 도착 후 최대 2~3주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많다.

마. 국제우편 무게 제한으로 샘플송부 애로

에콰도르 세관은 국제우편(일반소포 포함) 중 무게가 4kg가 넘는 화물에 대해서 물품종류를 불문하고 관세를 부과(초과 Kg 당 약 U\$ 1.59)한다. 또한 4Kg 초과 소포에 대해서는 통관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적용하여 장시간이 소요된다. 이에 따라 회사 홍보용 카탈로그, 샘플 송부 시 수령자 측과 관세를 누가 납부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협의를 필요하다.

바. 언어 장벽

현지 바이어 중에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바이어는 20% 미만이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는 바이어가 대다수이므로 상담 시 통역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업체 홈페이지도 대부분 스페인어 버전만 지원하기 때문에 다양한 외국어 구사인력을 보유하지 못한 우리 중소기업의 경우 현지 바이어 발굴과정 및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고충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진출계획 시 스페인어 카탈로그(또는 PDF파일) 구비 및 간단한 스페인어 표현 및 비즈니스 스페인어에 대한 지식 축적이 필요하다.

IV. 투자

1. 투자환경

가. 개요

에콰도르의 외국인 투자에 대한 방침은 진보와 후퇴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몇년간 에콰도르의 외국인 투자에 관한 법적 틀은 몇몇 의미 있는 변화를 겪어 왔다. 2008년 개정된 헌법에서는 “정부는 국내, 그리고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며…… 국내 투자를 우선 순위에 둔다”고 하였으며, “외국인직접투자는 국내 투자를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가개발계획에 정의된 우선 순위와 필요에 합치하도록 한다”고 하였다. 즉, 외국인투자는 국가개발계획 2009-2013의 우선 순위들을 반영하여야만 하며 국내 투자를 보완해야 한다.

또한 2008 헌법은 공공 기업이 “전략적 분야”에서 단독으로, 혹은 합작 기업에서 과반수의 지분을 가지고 운영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전략적 분야’는 석유, 광산, 텔레커뮤니케이션, 언론, 어업 등을 포함한다. 2008년 헌법 개정으로 인해 국가의 경제에 대한 통제 강화 및 외국인 투자보다 국내 투자를 우선 순위화하여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이 불투명해졌다. 헌법 개정 외에도 잦은 투자 관련 법제의 변경은 외국인 투자의 안전성을 위협하는 또 다른 요인이다.

반면 외국인투자법이 진보된 측면도 있다. 2010년 이전까지는 투자법의 조항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으로 인해 계약 효력 발생 과정이 복잡하였고 비즈니스의 위험성과 비용을 높여 왔으나, 2010년 제정된 생산통상 및 투자기본법으로 인해 비즈니스 관련 행정적 절차가 간편해지고 조항 해석의 모호성도 줄어들었다.

2010 생산통상 및 투자기본법(이하 2010 기본법)은 에콰도르의 외국인투자의 기반을 제공하는 법으로, 1997년 제정된 투자촉진 보장법 및 13개의 외국인투자 관련 법들을 대체하였다.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0 유기법은 정책들, 정책 수단, 무역 행위들 간의 유기성을 강화하였다.

현재, 생산분과협의회(Sectoral council for Production)가 투자 정책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산업 및 생산성부(Ministerio de Industrias y Productividad, MIPRO)가 이 협의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다. 2009년부터 에콰도르 투자청(INVESTECUADOR)이 생산분과협의회 하위 기구로 설립되어 투자 프로젝트의 준비 및 실행을 지원하고 있다. INVESTEUCUADOR는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원 스톱 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2010년 기본법은 생산과 마케팅의 자유, 행정적 절차, 불공정 행위에 대한 통제 조치, 상품과 서비스의 수출 및 수입의 자유, 획득한 외화의 해외 송금의 자유에 대한 투자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보장받기 위해 투자자는 사회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투자를 요구하는 국가적 정책을 따라야 한다.

2010년 기본법은 외국인 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들을 신설하였고, 이 인센티브의 수여를 위해 동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 외에 다른 기관/법적인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음을 확실시하였다. 2009년 5월 개정된 회사법은 에콰도르의 기업들이 경영을 지속할 수 있는 허가를 받기 위해 기업 감독기구(Superintendency of Companies)에 매년 주주의 이름을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2004년부터 원스톱 창구/싱글윈도우가 새로운 회사 설립 등록의 과정을 도와주고 있으며, 등록 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서류는 지역 상공회의소에 제출 가능하다. 중앙정부와 많은 주정부들이 새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관료제 및 기타 사업 유치의 장애물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 투자지로서의 장점

낮은 정치 안정도 및 정권의 잦은 변화가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흔한 중남미에서, 에콰도르는 대중의 지지를 등에 업은 꼬레아 대통령 아래 정치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다. 게릴라 행위나 폭력적인 시위는 드물며, 학생/노동조합/인디오 그룹의 평화적인 시위는 정기적으로 일어나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정도이며 그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2000년부터 에콰도르에서는 미 달러가 화폐로 사용되고 있어, 인플레이션 및 급작스러운 환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낮다. 거시경제 또한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08년 디폴트 이후 국제신인도는 중남미 최하 수준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 Moody사에서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조정하였고(Ca에서 Caa3) 2010년 S&P 사에서도 뒤이어 신용 등급을 한 단계 상향 조정하는 등(CCC+에서 B-) 서서히 리스크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1 km² 당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생물다양성, 근대화되고 있는 투자 및 무역 시스템 등이 투자지로서의 장점으로 꼽힌다.

다. 투자지로서의 단점

2008년 헌법 개정 이후 정부가 전략적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수입대체전략을 펼치는 등 경제에 대한 개입도가 높아졌으며, 여러 규제 사항들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않고 있어 투자지로서의 입지가 약화되었다. 또한 법제가 예고 없이 자주 바뀌는 것 역시 투자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다.

자본 시장이 전반적으로 미발달된 상태에 있어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고, 만연한 부패 역시 고질적인 문제이다. 에콰도르는 국제투명성지수 2010년에 178개 국 중 127개 국을

차지했으며, 중남미 지역에서는 니카라과, 온두라스, 아이티, 파라과이, 베네수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에 속했다.

투자에 대한 행정적인 규제는 비록 정부 차원에서 간소화/투명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은 낮은 상황이다.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Doing Business 2013년에 에콰도르는 185개 국 중 기업하기 좋은 순위로 139위를 차지해 작년보다 5위 하락한 모습을 보였다. 기타 부문에서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Topic Rankings	DB 2013 Rank	DB 2012 Rank	Change in Rank
Starting a Business	169	165	-4
Dealing with Construction Permits	104	96	-8
Getting Electricity	146	137	-9
Registering Property	101	75	-26
Getting Credit	83	80	-3
Protecting Investors	139	136	-3
Paying Taxes	84	90	+6
Trading Across Borders	128	126	-2
Enforcing Contracts	99	99	No change
Resolving Insolvency	137	142	+5

저렴한 미숙련 노동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미 달러화 이후 주변국들보다는 임금이 다소 높은 상태이며 숙련 노동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 노동 여건은 그리 좋지 않다.

라. 투자 제한/허가 분야

국내 개인투자자에게 개방되어 있는 대부분의 경제 분야에서 승인 혹은 심사 없이 외국인 지분 100%까지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통제가 강화된 전략적 분야에 더해 다른 특정 분야들에서 외국인 투자가 제한되어 있다. 수산업, (유생 동물을 재료로 하는) 실험실 및 연구소에 대한 투자는 국가어업진흥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의 어업은 에콰도르 어민에 국한되어 있으며, 새우 및 랍스터 어업선 역시 에콰도르인 소유여야 한다. 외국 기업에 의한 어업 활동은 그 생산품이 에콰도르에서 가공될 것임을 보장한 뒤에만 허가가 난다.

광산 채굴권을 획득한 외국인 근로자 및 화석연료 분야의 계약자들 역시 여러 부분에서 제약이 있다. 화석 연료의 수송은 에콰도르 국내 운송업체가 하도록 되어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법에 따르면, 라디오 및 텔레비전 방송권은 개인의 경우 에콰도르 태생에게만 주어지도록 되어 있으며, 법적 주체 역시 에콰도르 국적이어야 하고 지분의 25% 이상이 외국인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외국 기업이나 외국 개인은 부동산을 획득할 수 없으며 국가안보위원회의 승인 없이는 국경 50km 이내에서 산업, 혹은 농업 행위를 할 수 없다(그러나 이 조항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몇몇 민간 석유 기업들이 콜롬비아와의 접경 지역에서 유전을 경영하고 있는 것이 그 예임).

WTO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에 맞추어, 에콰도르는 10개 부문의 서비스 분야를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개방하고 있다. 여기에는 특정 비즈니스 서비스, 특정 텔레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채굴현장준비 작업, 환경 서비스, 건강 및 사회 서비스, 관광 서비스, 그리고 오락/문화/스포츠 서비스들이 포함된다. 또한 안데안 공동체 회원국으로부터의 투자자들에게는 모든 분야의 서비스 시장이 개방된다(안데안 공동체 결의문 659에 명시된 분야들 제외).

마. 투자 장려 분야

2010년 기본법은 특정 우선순위 분야에 있어 국내 투자 및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자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우선순위 분야는 비가공 및 가공음식, 임업, 산림농업, 금속세공업, 석유화학, 의약, 관광업, 신재생 에너지, 운송서비스, 생명공학, 응용 소프트웨어 및 기타 '전략적 수입 대체 분야로서 대통령에 의해 선정된 분야'를 포함한다. 이 세제 인센티브는 세금 면제, 소득세 감세, 그리고 5년간의 조세 휴리데이의 형태로 주어지며 키토와 과야퀸 밖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투자를 대상으로 한다.

INVESTEQUADOR 프로그램을 통해, 에콰도르 정부는 특히 개발에 특수 이익이 있는 분야에서 지방 및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방정부들도 투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 지방정부와 개인 기업 혹은 대학 등이 연계하는 민관협동 형태인 경우가 많다. 중앙 정부의 자원 조달을 받을 수 있는 몇몇 큰 지방정부는 대규모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및 해외 투자가 유치에 힘쓰고 있다.

2. 투자 인센티브 제도

가. 개요

투자기업들은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상의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 동 법 제 14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어떤 종류의 인가도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으나 다만, 법으로 명기된 사항과 해당 국토계획에서 파생된 사항은 예외로 한다.

투자 인센티브의 세부적인 적용메커니즘은 “생산개발, 투자 및 생산촉진 수단의 제도와 구조”(la Estructura e Institucionalidad de Desarrollo Productivo, de la Inversion y de los Mecanismos e Instrumentos de Fomento Productivo)의 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1) 산업전체 인센티브

- 일반적 인센티브로 국내의 모든 생산투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소득세율을 매년 1% 포인트씩 인하해서 2013년에 22%가 되도록 한다.
 - 에콰도르 중앙은행(Banco Central del Ecuador, BCE)이 정하는 최고금리 미만의 금리로 1년 이상의 해외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외화유출세(2%)를 면제한다.
 - 다음의 경우 2011년부터 최소세금 계산을 면제함. 신규고용 또는 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 생산성 향상, 기술개선 및 청정생산용 신규자산의 취득, 이 법의 모든 인센티브 수여
 - 기술혁신을 위한 생산재 취득에 재투자된 소득분에 대해 소득세의 10% 감면
- 생산적 변혁을 위한 민주화 차원에서, 자본을 일반에 공개하거나 지분을 종업원들과 공유기로 결정한 기업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진다.
 - 소득세 납부 및 소득세 선납을 5년간 유예
 - 지분취득을 위한 자금 차입 시 그 이자비용을 소득세에서 공제함.
- 환경 기준에 충실한 생산
 - 청정생산을 위한 기계설비 구입비용, 재생산 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또는 환경피해를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현비용 등은 소득세 계산에 있어 지출액의 100%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산업별 인센티브

다음 우선적 산업과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산업에 신규 진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그 소득에 대해 최초 5년간 최소세율 납부 및 소득세 납부 완전 면제라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이는 무역수지 균형과 달러화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에콰도르 어느 지역에서나 투자가 이뤄질 수 있다. 다만, 키토와 과야킬의 도시지역은 제외된다. 그러나 이 두 도시의

농촌지역은 포함된다.

- 우선적 산업
 - 신선, 냉동 및 가공식품
 - 농림업 및 그 가공품
 - 금속가공
 - 석유화학
 - 의약품
 - 관광
 - 재생에너지(바이오 에너지 포함)
 - 대외무역 물류 서비스
 - 바이오기술 및 응용소프트웨어

- 수입대체 및 수출촉진 산업
 - 퇴비 및 비료
 - 농화학, 농약 및 살균제
 - 비누, 세제 및 화장품
 - 기타 화학제품
 - 도기, 타일 및 바닥재
 - 라디오, TV, 휴대폰 등 가전일반
 - 의류 및 섬유소재
 - 신발류 및 가죽제품
 - 기기(appliances)

3) 기술혁신(INNOVATION) 인센티브

□ 중간 규모 기업의 기술혁신 투자 인센티브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 법은 기술혁신에 재투자할 시 소득세의 10% 포인트 감면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특히 중간 규모 기업에게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를 규정하고 있다.

- 아래와 같은 용도에 지출 또는 투자된 자금을 대해서는 소득세 계산에서 추가 공제함.
 - 연구, 개발 및 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기술교육 (연간 임금 및 급여비용의 1%까지)
 - 기업 생산성 개선을 위한 지출 (매출액의 1%까지)
 - 기업 및 그 제품의 국제홍보용 지출 (홍보 및 광고비용의 50%까지)

□ 중소기업 및 AEPS49에 대한 인센티브

- 소규모 기업들이 민간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국가가 “국가보증기금”(Fondo Nacional de Garantias)을 통해 공동보증을 제공
- 증권시장을 통해 소규모 기업을 재정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제도
- 중소기업 및 AEPS에 대한 포괄적 구매 의무규정
- 벤처자본 지원계획을 통해 고가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일시 투자 공급자, AEPS 및 근로자의 참여 민주화
- 생산성, 기업가 정신, 기술혁신, 품질, 수출 오피 및 판촉의 개선을 위한 정부의 공동 재정지원 프로그램
 - 산업·생산성부(MIPRO)의 “중소 및 극소기업생산성개선프로그램”
 - 생산조정·고용·경쟁력부(MCPEC)의 Emprend Ecuador 프로그램
 - 생산조정·고용·경쟁력부(MCPEC)의 Innova Ecuador 프로그램
 - 서민연대경제원(Instituto Ecuatoriano de Economía Popular y Solidaria) 프로그램

에콰도르 중소기업 분류 기준

기업형태	종업원수	연매출액	인센티브유형
극소기업 (micro Enterprise)	1-9	~\$10만	비과세
소기업 (small Enterprise)	10-49	\$10만~\$100만	
중기업 (Medium Enterprise)	50-199	\$100만~\$500만	과세

자료원: PRO EUCADOR

□ 경기침체 지역을 위한 최빈(最貧) 지역의 사업소

이러한 투자는 전술한 일반 및 산업별 인센티브 이외에, 신규 투자 시 근로자 신규고용에 따른 비용의 100%를 5년간 추가로 공제하는 혜택이 주어진다.

□ “경제개발특별구”(ZEDE) 인센티브

경제개발특별구(ZEDE)에 대한 인센티브 등 법적 규정은 마련되어 있으며, 2013년 9월 20일에 야차이 신도시에 설립되었다.

ZEDE는 기술이전, 수출품 가공생산, 물류 등 세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 ZEDE에는 다음과 같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 ZEDE에서의 생산 및 사무활동에 대한 소득세는 5% 포인트 추가 공제한다. 그 투자가 우선적 산업에 대한 투자이거나 신규투자인 경우 5년간 소득세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단, 키토 및 과야킬 도시지역 이외의 곳만 해당)
- 물품 수입에 대한 부가세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 외국물품은 해당 구역 내에 있는 동안 관세의 납부를 유예 받는다.
- 생산공정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의 국내 구매분에 대해 기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세액 공제된다.
- 수입 및 국제금융에 따른 대외 지급 시 외화유출세의 면제

ZEDE는 환경보존, 영유권, 지역 잠재력, 도로망, 기반 서비스, 다른 지역과의 연계성 등의 조건을 감안하여 국토 내의 매우 제한된 지역에 설치되며 생산·개발의 관점에서 주무기관이 국가계획 담당부처와 협의하여 결정되고 대외무역, 세제 및 금융에 있어 특별대우를 받게 된다.

물류 서비스는 허용된 여건 하에서 대외무역 및 국내공급 물량을 증대시키기 위해 항만, 공항 및 국경의 유형설비를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별구에 입주한 개인 또는 법인은 위에 언급한 형태 중 한가지 형태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인가지역 내의 사업체들과 생산적 유대를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동일 구역 내에서 상기 형태 중 몇 가지 형태로 영업을 다양화할 수 있다. 그리고, ZEDE는 설립하고자 하는 영업활동의 형태를 인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다.

ZEDE의 모든 경계를 출입하는 사람 및 운송수단은 세관 당국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관통제는 입장 전, 역내체류 중 또는 경계 밖으로 나간 이후에도 행해질 수 있다. ZEDE의 인가는 20년간 유효하며, 규정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그러나, 인가 취소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인가가 취소될 수 있다.

ZEDE의 설립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발의로, 당사자 일방에 의해 요청될 수 있다. 이 특별구 개발에 사용되는 투자는 공공투자일수도 있고 민간투자일수도 있으며 혼합된 투자일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이 특별구 내에 설립되는 사무소 및 영업소는 모두 개인일수도, 법인일수도 있으며, 민간, 공공, 민관혼합,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능하다. 사무소는 영업소의 자격을 동시에 가질 수 없으며, ZEDE 내의 다른 영업소와 경제적 또는 기업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 위반 시 인가 취소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별 사전 요건

인센티브	사전 요건
일반	없음
ZEDE	제45조 관련 규정
산업별	신규기업
기술혁신	없음
청정생산	환경부 기준요건 충족 등
지분발행	없음
중소기업	없음
국토개발	산업별 위원회가 경기침체지역으로 인가공표한 지역일 것

자료원: PRO ECUADOR

3. 외국인 투자동향

가. 개요

외국인투자통계를 발표하는 에콰도르 중앙은행이 순유입량(net flow)에 기반한 수치 밖에 제공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직접투자의 정확한 규모 및 증가량 추이를 알기는 어렵다. EIU country report의 추정치에 따르면 외국인투자는 정부의 일관되지 않은 정책 운영과 에너지 부문의 국영화 정책 등으로 다른 중남미 국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조금씩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산업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US\$ 천, Net Flow)

산업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농업, 임업, 수렵 및 수산업	20,433	52,258	10,622	-400	17,786	25,088
상업	119,945	84,162	93,473	77,594	82,975	105,228
건설	49,352	-13,897	27,774	50,068	31,112	68,650
전기, 가스 및 수도	-6,764	3,008	-5,945	-10,641	46,853	28,118
광산 및 채석	244,114	5,802	178,001	379,201	224,945	239,698
제조업	197,997	117,729	118,102	119,706	142,311	134,353
서비스업						
- 지역, 사회, 개인 대상	13,125	18,122	22,581	27,824	1,698	2,406
서비스업						
- 기업 대상	142,259	-23,644	68,015	44,863	39,452	112,975
서비스업						
- 운송, 창고, 통신	277,275	64,238	-349,577	-47,432	4,179	8,883
총계	1,057,740	307,778	163,046	641,583	591,315	702,823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산업별로는 정부의 국영화 추진에도 불구하고 광산 및 채석 분야에 자본이 몰리고 있으며,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로 인한 건설, 그리고 에콰도르에서 발달한 농업, 수산업 등에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인건비가 인근 중남미국에 비해 저렴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산업 시설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아 제조업에의 투자는 주변 국가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준이다.

국가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US\$ 천, Net Flow)

순위	국가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1	멕시코	312,567	620,962	278,540	70,133	83,135	91,031
2	캐나다	58,187	64,720	104,635	252,206	59,071	27,327
3	중국	46,538	56,297	44,960	80,128	85,867	88,303
4	스페인	189,750	50,779	16,854	52,264	49,571	67,482
5	바르바도스	6,676	3,788	18,878	17,620	25,471	680
6	미국	28,502	607,083	535,180	11,621	93,513	41,200
7	이탈리아	16,784	825	10,413	25,124	27,410	58,861
8	페루	31,726	14,408	13,123	7,172	12,761	11,730
9	콜롬비아	20,900	346	18,789	21,012	17,038	3,278
10	칠레	4,667	19,111	7,500	15,530	15,894	22,684
11	파나마	66,789	116,591	138,931	32,645	25,617	52,874
12	아르헨티나	56,088	53,484	6,772	27,442	25,338	18,289
13	베네수엘라	19,585	7,975	13,628	24,081	17,936	18,921
14	스위스	34,049	24,239	6,316	7,995	17,736	28,549
총계		1,057,740	307,778	163,046	641,583	591,315	702,823

자료원: 에콰도르 중앙은행

에콰도르에 투자하는 국가들은 주로 아메리카 대륙의 이웃 국가들과 식민 본국인 스페인 등이며 중국 역시 특히 에너지 자원 쪽에 관심이 있다.

최근의 외국인 투자의 사례를 보면, 2011년 10월 중국의 SinoHydro가 2억 달러를 1500메가와트의 수력 발전소 건설에 입찰하였는데, 이는 당시 에콰도르의 라틴아메리카의 가장 큰 엔지니어링 프로젝트로 평가되었으며,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 러시아의 에너지 기업인 Inter Rao는 Guallabamba강에 위치한 다섯 개의 수력 발전소를 확장하기로 정부와 이야기하였다. 이 확장 공사에는 약 15억 달러 정도가 책정되었다.

2011년 12월 캐나다의 Kinross사는 에콰도르의 “Fruit of the North” 금광 개발의 대가로 6천 5백만 달러의 로열티를 선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금광에서는 300,000톤의 은과 금이 연간 생산될 것으로 전망했지만 2013년 6월에 광업법 개정으로 금의 국제시세가 높아지면서 그 수익의 배분 문제로 2013년 8월에 Kinross사는 철수하였다. 에콰도르의 일간지에 따르면 다른 칠레, 카타르, 중국 기업이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이후 진행상황에 대해 발표된 사항은 2014년 8월 기준으로 확인되고 있지 않다.

4. 한국기업 투자동향

한국의 대에콰도르 투자는 아직까지는 괄목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양국 간 정치적 협력이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타고 증가 추세에 있으며, 대기업의 플랜트, 정유 공장 수주 등의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의 대에콰도르 투자 연도별 추이

(단위: US\$ 천, 건, 개, 회)

연도	신고건수	신규법인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1980	2	1	59	2	59
1993	1	1	40	1	40
1994	4	2	1,500	2	294
1995	1	1	800	2	649
1996	2	1	10,000	6	4,294
1997	1	0	5,000	0	0
2006	3	3	520	4	93
2007	5	3	7,298	10	4,988
2008	8	3	28,702	19	3,687
2009	3	3	272	7	404
2010	0	0	0	0	0
2011	10	3	23,234	9	21,221
2012	7	0	25,992	3	1
2013	4	2	765	5	818
총계	51	22	104,182	70	3,548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2011년의 신고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건설업 부문에서, 2012년 신고된 투자 금액의 대부분은 광업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업종별 누적 수치로 봐도 광업 및 건설업 부문에 신고된 금액이 많아 우리 기업의 광업 및 건설업 부문에의 진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다만 신고 금액과 투자 금액 간 차이가 있고 투자 금액의 대부분이 2~3개 대기업의 대규모 수주로 인한 성과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에콰도르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업종별 투자 누적 수치(2010-2013년)

(단위: US\$ 천, 건, 개, 회)

업종 대 분류	신고건수	신규법인 수	신고금액	송금횟수	투자금액
총계	51	23	104,182	70	36,549
농업, 임업 및 어업	6	3	15,099	8	4,230
광업	10	4	48,395	10	118
제조업	5	3	1,346	6	86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498	0	0
건설업	10	4	25,804	11	21,74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9	4	543	10	543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1	1	20	1	20
도매 및 소매업	3	2	1,330	3	45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	1	10,898	19	8,32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	1	250	2	250

자료원: 한국수출입은행

주: 2014년 6월 확인 기준정보

5. 한국기업 진출현황

가. 진출 현황

- 2001. 10월 삼성전자 지사설립
- 2002. 2월 LG전자 지사설립
- 2007. 3월 대우 일렉트로닉스 지사설립(2009년초 미국 마이애미로 철수)
- 2008. 12월 SK 건설 지사 설립
- 2011년 Posco 건설 투자진출

나. 최근 투자 진출 사례

1) SK 건설

2008년 에콰도르에 지사를 설립한 SK건설은 2009년 2월 첫 프로젝트로 7,600만 달러 규모의 에스메랄다스 정유공장 보수공사를 단독 수주했다. 에콰도르 신시장 개척의 시발점이 된 에스메랄다스 공장은 에콰도르 북부 에스메랄다스 지역의 페트로인더스트리얼 산업단지에 위치하며, 1977년 건설되어 설비가 노후화되어 정유처리능력이 저하돼 생산규모의 40%밖에 생산해내지 못했다.

SK건설은 2009년 이 정유공장 내 FCC(중질류분해시설)공장을 보수해 성능을 향상시키고 정제시설에 대한 정밀진단업무를 수행하는 1단계 현대화 공사를 수주·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원유정제시설과 유틸리티시스템과 폐수처리장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공사를 수행했다. 이 공사는 2015년 12월 준공을 예정으로 하고있다.

이어 2010년 3월에는 이 프로젝트의 3배 규모인 마나비 정유공장 신설 프로젝트의 기본설계(FEED)를 담당하는 공사를 수주하였다. 계약금액은 2억 6천만 달러였다. SK건설 관계자는 "에콰도르 진출 1년 만에 미국, 유럽 등 선진업체들이 주로 담당했던 기본설계를 수주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지속적으로 신시장을 개척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말했다. SK건설 관계자에 의하면 SK건설이 2009년 이후 수행해온 정유공장 현대화 공사에서 발주처의 무한신뢰를 얻은 것에 힘입어 2013년말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추가 수주를 이뤄내는 쾌거를 거뒀다

또한 SK건설은 2012년 10월 남미 에콰도르 동부의 아마존 열대림 '야수니(Yasuni)'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야수니 프로젝트(Yasuni-ITT)'에 5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에콰도르 현지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자료원: 머니투데이

2) 포스코 건설

포스코 건설은 2011년 초 에콰도르 최대 플랜트 시공업체인 SANTOS CMI S.A 사의 지분을 인수해 중남미 건설시장 입지를 한층 강화했다. 포스코 건설은 계열사인 대우엔지니어링과 함께 SANTOS CMI 지분 70%를 800억 원에 인수해 설계와 기자재 조달, 시공을 통합한 EPC 분야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 건설은 지난 2006년 국내 건설사 중 처음으로 칠레 에너지플랜트 시장에 진출한 데 이어 M&A를 통해 에콰도르를 포함한 남미 시장에 진출한 첫 번째 기업이 됐다.

포스코 건설은 SANTOS CMI 인수가 중남미 지역의 사업영역 확장과 수주 증대에 시너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SANTOS CMI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와 기술력을 기반으로 중남미 시장에서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쳐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료원: 한국경제

6. 투자진출 성공실패사례

가. 성공사례: 포스코건설, 현지기업 M&A로 중남미 진출 교두보 확보

포스코 건설은 2011년 에콰도르 최대 플랜트 시공업체인 SANTOS CMI S.A. 사의 지분을 인수해 중남미 건설시장 입지를 강화하였다. 키토에 본사를 두고 있는 SANTOS CMI는 자국내 최대 규모의 플랜트 시공업체로, 멕시코, 칠레, 브라질, 미국 등 중남미 지역의 현지 법인을 통해 사업 다각화에 나서며, 성공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다. 포스코는 SANTOS CMI 지분 70%를 800억 원에 인수해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분야에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춘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포스코 건설은 2011년 5조원 대의 브라질 CSP 일관제철소를 수주하여 당시 국내 건설사가 수주한 사상 최대 규모의 제철플랜트 건설공사라는 기록을 세웠고, 2012년 칠레에서는 총 사업비 17억 달러(한화 2조 원)에 달하는 석탄화력발전소 두 개를 잇따라 수주한 바 있다.

이처럼 포스코가 남미 플랜트시장의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며, 한층 공격적인 수주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에콰도르 SANTOS CMI 인수는 중남미 지역 사업영역 확장과 수주 증대를 위한 베이스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2012년 당시 사례임)

나. 실패사례: 현지법에 대한 이해 부족, 수익성 판단에 장애 요인

에콰도르 정부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기업들 중 진출 초기 현지 세법과 회사법, 노동법에 대한 세밀한 검토 없이 뛰어들었다가 추후 사업성을 재검토하고 법률 자문을 통해 수익성을 감하는 요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시행착오를 겪는 경우가 많이 있다.

기본적으로 외국기업 또는 개인이 에콰도르에서 획득한 소득은 과세대상 재원으로 간주되어 본국 송금 시 소득세의 개념으로 23%(2013년 22%)의 원천징수를 받게 된다. 이는 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를 대체하는 개념으로, 현지에 법인을 설립한 외국기업의 경우는 당연히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법인세(2012년 23%, 2013년 22%)를 납부하게 된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로 송금되는 모든 외화에 대하여 5%의 외화유출세(Impuesto de Salida de Divisa, ISD)를 따로 징수하고 있다. 또한 에콰도르 내 모든 기업들(외국 기업의 현지법인 포함)은 세전 수익의 15%를 근로자들에게 의무적으로 배당해야 하는 규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계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들은 영업의 수익성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사업성 검토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사안들이다. 사업성 판단의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는 현행 법률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이중과세 방지, 외국인 투자인센티브, 부가세 환급, 외화유출세

면제 등 수익성 보전을 위한 규정도 꼼꼼히 점검해 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투자 결정 이전에 현지 법률자문을 받아볼 것을 권하고 있다.

7. 주요 투자법 내용

가. 관련법규

에콰도르의 외국인투자에 적용되는 법규정은 2010년 12월 29일 법령 351호로 공포된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Codigo Organico de la Produccion Comercio e Inversiones)”이다. 이 법은 1997년 12월자 “투자촉진 및 보증법(Ley de Promocion y Garantia de las Inversiones)”과 기타 투자관련 13개 기존 법령을 대체하는 것이다. “생산위원회(Consejo Sectorial de la Produccion)”는 에콰도르의 투자정책을 수립하는 기관인데,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의 목적 가운데 g항과 h항에 이 기관의 목적이 잘 나타나 있다.

- g항;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며 환경적으로 수용 가능한 생산활동 및 서비스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고 제어함.
- h항; 국가개발계획에 의거한 전략산업 부문에 대한 생산투자를 제어함.

외국인투자는, “외국에 소재한 자연인 또는 법인의 소유·통제하에 있거나, 에콰도르에서 발생치 아니한 자본을 포함하는 투자”로 정의되고 있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이 법은 내국인투자와 외국인투자가 경영, 영업, 확장 및 자본이전 등에서 동일한 대우를 받도록 하는 헌법적 비차별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원칙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자는 임의적이고 차별적인 조치의 대상이 되지 않을뿐더러 에콰도르 기업이 자국 영토 내에서 받는 것과 동일한 완전한 보호를 향유하게 된다. 이 원칙은 또한 이른바 투자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이 권리에는 생산 및 마케팅의 자유는 물론,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수립한 행정절차 등에 접근할 수 있는 자유, 상품 및 용역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유, 벌어들인 외화를 자유롭게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자유 등이 포함되고 있다.

당연히, 이러한 투자들은 고용증진, 피해방지 등과 같은 사회·환경적 지속 가능한 투자를 최우선으로 하는 에콰도르 정부의 정책과 모순되어서는 안 된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은 정책과 통상활동 및 통상활동 지원책 간의 강한 연계성을 만들어낸다. 더구나, 이 법령은 투자자들이 보다 안전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냄으로써 투자의 대우에 관한 조건을 정한 투자계약서에 서명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2008년 헌법은 정부가 국내외 투자를 진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직접투자가 “국가개발계획”에 정의된 필요성과 우선순위에 따라 내국인투자를 보완한다고 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는 2009년-2013년의 “국가개발계획”상의 우선순위를 반영하여야 하고 내국인 투자를 보완하여야 한다. 2008년 헌법에서 국영기업은 독점 또는 전략부문의 합작투자로서 지분의 과반을 점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8. 투자방식

가. 개요

기업법(La Ley de Companias) 제 2조에 따르면, 기업에는 다음 5가지 유형이 있다.

- 주식합자회사(La compania en comandita dividida por acciones)
- 유한책임회사(La compania de responsabilidad limitada)
- 주식회사(La compania anonima)
- 혼합자본회사(La compania de economia mixta, 공공자본과 민간자본혼합기업)
- 합작회사(La compania accidental o cuentas en participacion, Joint venture)

1) 유한책임회사

□ 회사명

기업법 제 98조에 따르면 상호명은 기업감독관청의 장 또는 키토 지역 기업감독청의 장이나 꾸엥가, 암바토, 마찰라, 보르도비에호, 로하 등의 기업감독관으로 임명된 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법 제 16조에 따르면 회사명은 “소유권”, “차별성” 및 “특이성”의 원칙에 지배를 받는다. “소유권의 원칙”은 각 회사의 회사명이 해당 회사의 지배하에 있으며 다른 회사가 차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차별성 및 특이성의 원칙”은 기업감독관청의 통제하에 회사명이 다른 회사명과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적재산권법 제 293조에 따르면, 상표, 상품명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의 소유자는 기업감독관청이 해당 상표, 상품명 또는 기타 지적재산권과 동일한 표시를 포함하는 한가지 이상의 연관된 이름을 인가한 경우, “에콰도르 지적재산원”(Instituto Ecuatoriano de Propiedad Intelectual, IEPI)에, 해당되는 상호, 상품명 등의 불법 사용에 따른 혼란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그 상호 또는 상품명 등의 사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 인가신청

회사설립계약의 승인에 필요한, 변호사가 서명한 신청서와 공증된 회사설립증서 사본 3부를 첨부하여 기업감독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에게 제출한다. (기업법 제 136조)

□ 파트너

파트너의 자격으로 고용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부모, 자녀 및 배우자는 허용되지 않는다. (기업법 99조)

기업법 92조에 따르면 최소 2명의 파트너가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며 파트너 숫자는 최대 15명을 넘을 수 없고 이를 넘으면 다른 형태의 기업으로 전환하든지 해산하여야 한다. (기업법 95조)

매년 1월 유한책임회사의 법적 대표자는 기업감독원에 파트너 혹은 주주의 이름, 국적, 주거지를 공증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사항은 법인에 모두 적용된다.

□ 자본

유한책임회사는 US\$400의 최소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자본금은 전액 출자하여야 하고 최소한 주당 액면가액의 50%는 납입되어야 한다. 출자금에는 현금 및 물건뿐 아니라 동산, 부동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이 포함된다.

다만, 동산과 부동산은 회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 출자금이 동산 및 부동산으로 이뤄진 경우, 그 물품들은 각각 증빙을 통해 인지되어야 하며, 그 평가액은 파트너 또는 파트너가 지명한 전문가가 평가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한다.

파트너는 투자된 동산 및 부동산의 할당된 가치범위 내에서 회사와 제 3자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기업법 102, 104조)

매년 이윤의 5%만큼 법적 보유금을 위해 저장해 놓아야 하며, 이는 보유금이 총 자본의 20%에 달할 때까지 시행되어야 한다.

□ 지분

투자지분은 평등하며 누적적이고 불가분적이다. 회사는 각 파트너에게 출자금에 상당하는 지분수와 양도 불능성임을 기재한 출자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사업 목적별 요건

유한회사는 은행, 보험 등을 제외한 법이 허용하는 모든 형태의 민간사업, 통상업 등의 수행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 (기업법 94조) 회사가 사람이나 화물의 육상운송을 업으로 하고자 할 경우 “육상운송, 교통 및 도로 안전위원회”에 반드시 사전신고 하여야 한다. (2008년 7월 7일자 Official Record 398 호에 의한 육상운송 및 도로안전법)

경비·안전 관련 회사들은 단일의 독점적 목적을 가지게 되며 최소한 1만 달러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선박대리업의 경우 자본금이 4천 달러 이상이어야 한다.

□ 투자 원천의 제한

갈라파고스: 1998년 3월 18일, Official Record 제 278호로 공표된 “갈라파고스 지역보호 및 지속발전법 일반규정 제 12호에 따르면, 갈라파고스에 주소를 갖지 아니한 비거주 개인 및 법인은 갈라파고스의 영주권자와 제휴한 경우에만 갈라파고스 지역에 투자할 수 있다.

외국인: 개인 또는 법인이 자본을 투자하여 회사를 설립할 경우, 반드시 그 투자의 형태에 관하여, 즉 외국인 투자인지 내국인 투자인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1991년 5 월 13일자 Official Record 제 682호로 공표된 까르타헤나 협정의 제 291호 결정에 따라야 한다.

2) 주식회사

□ 요건

주식회사 설립에는 회사명, 인가신청, 목적 및 투자재원 등에 있어 유한책임회사의 설립요건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식회사의 회사명은 몇몇 명백한 예외적 경우가 아닌 한 제한 받지 아니한다.

□ 창립의 형태

동시창립 Simultaneous Creation: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자가 되는 출자인 및 출자약정인들 간의 합의라는 단일절차에 의해 설립된다.(기업법 제 148조, 149조)

연속창립 Successive Creation: 공개출자약정을 위해, 발기증서에 최초 서명한 사람들이 발기인이 된다.

□ 주주

자격: 주식회사 창립에 발기인(연속창립) 또는 설립자(동시창립)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는 포함될 수 없다. (기업법 제 145조)

주주의 수: 주식회사는 2명 이상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한다. (기업법 제 147조)

주식회사의 주주가 2명 이하로 될 경우, 그 자본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공공법인에 의해 소유되지 않는 한, 존속할 수 없다.

□ 자본

주식회사의 최소자본은 US\$800이다. 자본금은 전액 출자되어야 하고 최소한 주당 액면금액의 25%는 납입되어야 한다. 출자는 현금, 동산 및 부동산, 그리고 무형자산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회사의 목적이 국내 및 국제항공 운송서비스의 제공인 경우 회사설립을 위한 최소자본금은 기업법상 일반주식회사 최소자본금의 20배(US\$16,0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는 1998년 8월 8일 Official Record 제 379호로 공표된 법령 제 126호인 개정민간항공법 제 46조의 적용을 받는다.

또한 1998년 8월 26일 Official Record 제 12호로 공표된 “보건 및 선불의약 민간기업법” 제 4조에 따른 보건 및 선불의약회사를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출자 주식회사여야 하며, 회사의 목적은 보건 및 의약서비스를 위한 자금운용이어야 하고, 최소한 80,000 UVC(US\$210,312) 이상의 자본금을 가져야 한다. (“선불의약[醫藥]”이란 개인이 가입 병원에 일정금액을 선납하고 의료서비스를 받는 제도임)

주식회사는 주식발행 최대한도 인수권자본을 정해야 하며 이는 출자약정자본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기업법 제 160조). 주식회사의 수권자본한도 및 출자된 부동산을 포함한 유형 및 무형자산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은 주식회사 설립에 유효하다.

□ 지분

지분의 합법적 소유자에게는 주주명 및 기업법상 기본권리가 주어진다.

지분은 기업법 제 170조에 따라 보통주이거나 우선주일 수 있으며, 동법 제 190조에 의거, 자유로이 양도 유통될 수 있다.

기업법 제 168조에 따라 회사는 임시증명서 또는 최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3) 혼합자본회사

□ 요건

혼합자본회사의 설립을 위해서는 기업법 제 308조에 의거, 공법 상법인 이거나 민법 상법인 및 개인간의 준공공법인이어야 한다.

혼합자본회사는 반드시 복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이사회 등의 행정기구를 두어야 한다. 또한 회사규칙에 회사의 자본증자, 지분양도 등에 관한 요건과 특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기업법 제 312조)

기타 혼합자본회사의 설립에 관해서는 기업법 제 3장의 주식회사 관련 규정들이 준용된다.

4) 주식합자회사

주식회사 설립요건과 법적 요건이 동일하나 다음 사항에 있어 약간의 차이가 있다.

회사의 자본금은 동일한 액면금액의 기명식 지분으로 분할된다. 자본금의 10분의 1은, 공동책임파트너(comanditados)들이 출자해야 하며, 이들에게는 양도불가능 기명식증서가 교부 된다.

공개적인 합의가 있지 않은 한, 공동책임파트너(comanditados)를 퇴출시키는 것이 회사해산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

주식합자회사는 1명 이상의 공동책임파트너(comanditados)의 이름 뒤에 “compania en comandita” (주식합자회사)라는 문구를 붙이거나 그 약자를 사용하여 설립된다.

회사의 경영은 공동책임 파트너들이 맡게 되며, 이들은 특정사유가 아니면 경영자의 직에서 해고되지 아니한다. 출자약정서에 의거, 경영자는 공동책임 파트너들 중 한 명 또는 수명으로 제한될 수 있다. 회사의 경영책임을 맡은 공동책임 파트너들은, 지분에 따른 배당금 이외에, 출자약정서가 정한 추가이익배분 또는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해진 규정이 없는 경우는 공동 책임파트너들에 대한 배당금의 25%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경영자가 수명인 경우, 공동 책임파트너들의 참여기회는 출자약정서에 정한대로 분배되며 정해진 것이 없는 경우 균등 배분된다.

5) 합작회사(Joint Venture)

합작회사는 거래의 일방이 하나 이상의 거래 또는 모든 거래에 있어 수익과 손실을, 하나 이상의 다른 거래 상대방과 공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비영리적 거래에서도 가능하다.

합작회사는 당사자간의 약정내용에 따라 운영되며, 법 인격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법인 회사에 관한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9. 투자진출형태

가. 법인

법인은 기업의 법적 형태 중 가장 유연한 형태이며, 외국 자본과 지역 자본의 혼합을 허용한다. 개인 유한 책임 회사는 비공개회사로서는 좋으나 자본의 판매 및 이전에 대해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에게 특별한 혜택은 없다. 에콰도르에서 법인은 다른 국가들과 비슷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 주주의 책임이 출자한 자본의 금액만큼으로 제한됨.
- 주주들은 제약 없이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
- 법인은 어느 때나 해임될 수 있는 관리자에 의해 대표됨.
- 기업의 관리자 혹은 소유자의 변경이나 죽음에 관계 없이 기업의 지속성이 보장됨.

1) 자본

법인의 자본은 내규에 주주의 수와 각 주주의 지분율의 곱으로 계산되는 총 가치로서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자본은 1) 내규에 명시된 공인 자본, 2) 주주들이 지불하기로 약속한 자본, 3) 불입 자본금으로 구성된다. 법인 설립에 요구되는 최소 자본은 \$800이며, 적어도 25%의 자본이 법인 설립 시에 불입 자본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나머지는 2년 안에 처리되어야 한다. 회사는 재정 상태 및 기타 적절한 정보를 담고 있는 연간 보고서 및 법적 대표자, 법인 커미셔너, 외부 이사로부터의 보고서를 기업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기업감독원의 통제 아래 있는 회사들은 또한 6월과 12월에 지역 신문을 통해 재정 상태를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나. 지점

지점을 설립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은 다음과 같은 준비 요건을 갖춰야 한다.

- 모회사가 본국에서 적법하게 설립되었다는 증명 서류
- 모회사 본국의 법에 의해 회사가 지점을 설립하고 해외 영업을 할 권리를 보장받는다는 증명 서류
- 에콰도르에 거주하는 법적 대리인
- \$2,000 이상의 자본

이와 관련된 서류들은 외국 기업의 본사와 가장 가까운 영사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와 함께 기업감독원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본국에서 모회사가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다는 사실과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다. 혼합경제회사

혼합경제회사는 민간 및 공적 자본이 혼합된 형태의 회사이다. 공공 부문의 기금은 중앙 정부나 방 정부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공 혹은 준 국영 기관의 법적 대표자로부터도 차출될 수 있다.

라. 1인 회사

기업법은 한 명에 의해 설립되는 1인 회사의 설립을 허용하고 있다. 법인은 한 명의 파트너나 주주만 남았을 때 1인 회사로 전환될 수 있다.

마. 프랜차이즈

최근 에콰도르에서도 프랜차이즈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에콰도르 내에서는 프랜차이즈를 규제하는 특별한 법은 없으나, 카르타헤나 조약의 결의문 291에 프랜차이즈 관련 법적 조항들이 있다. 상업법은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부터 라이선스를 통해 승인 받은 상인 혹은 대리인이 비즈니스를 온전히 상인/대리인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기를 명령하고 있다. 주인-대리인은 상호간의 의뢰 계약 및 시민법과 상업법에 의해 명시된 권리들과 의무들을 제외하고는 법적 행위에 있어서도 완전히 독립적이다.

바. 합작 회사

둘이나 그 이상의 회사는 특정 사업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계약을 맺을 수 있다. 이 계약을 상업등록국에 기록을 남겨야 할 필요는 없다. 기업법에 따르면, 합작 회사는 제휴 (association) 혹은 참여 동의(participation agreement)로 간주된다.

기업법에 따르면, 사업체는 파트너에게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권리는 사용된 자금, 창출된 이윤, 발생한 손실에 관한 정보 획득에 국한된다. 제휴는 제3자에 대해 의무를 지지 않는다. 만약 사업이 도산하게 되면, 제휴는 그들이 투자한 만큼의 자본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다. 기타 사항들은 제휴 계약서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에콰도르에서 이러한 형태의 합작 회사는, 외국 기업이 정부 기관과 특정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계약을 맺는 경우 주로 만들어진다. 외국 기업이 이러한 형태의 동의를 직접 설립을 위해 맺는 경우도 흔하다.

10. 진출형태별 절차

가. 법인 설립 절차

법인 설립의 절차는 보통 지역 법조인에게 위임된다. 법조인 의뢰 비용은 회사의 지분율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된다. 외국인들은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서 회사를 소유할 수 있다.

상업 행위를 에콰도르 물품을 수입하거나, 혹은 에콰도르 소비자/중개인/판매자에게 직접적으로 수출하는 데 국한하는 외국 회사들은 보통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콰도르에 생산 시설을 소유하거나, 에콰도르 기업과 합작 회사를 만들었거나, 지역 에이전트에게 수출품을 판매하여 수출품에 자사의 이름이 붙지 않게 되는 외국 기업들은 지역에 사무소를 설립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형태의 사업 구조보다 법인을 선호하며 자회사가 있는 경우는 지점을 선호한다. 다른 대안으로는 유한책임회사, 파트너십, 혼합경제회사(정부가 참여하는 형태)가 있다. 법인, 지점, 유한책임회사, 그리고 혼합경제회사는 기업감독원(Superintendency of Companies)에 등록되고 통제되며 기업법을 준수해야 한다.

회사의 법적인 대표는 에콰도르 시민이거나 에콰도르 거주, 혹은 상업 비자를 소유한 외국인이어야 한다. 외국 회사들은 출자한 자본이 그들의 파트너 혹은 주주의 이름으로 발행된 주식 혹은 지분의 형태일 때만 에콰도르 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회사 설립 절차

연번	절차	소요 시간	소요 비용
가정 조건: 키토, 유한주식회사, 초기 자본은 1인당 GNI의 10배, 최소불입자본: 4.3%			
0	회사명의 기등록 여부 IEPI 확인	-	없음
1	기업감독원에 회사 이름 제출 기업감독원이 발행한 증명서는 30일 동안 유효함	하루	없음
2	법인격 부여의 초안 작성 위해 법조인 고용 초안은 설립 계약(constituting contract), 정관(Article of association), 내규(bylaws of the company), 자본의 형성에 대한 사항을 담고 있어야 한다. 법무사는 법인격 부여에 필요한 계약서의 초안을 준비하고 서명해야 한다. 또한 공증인이 이 문서를 공증하여야 하며, 법무사는 공증할 수 없다.	하루	USD 780-1000(수수료 및 대행비 포함)

연번	절차	소요 시간	소요 비용
3	<p>불입 자본금의 50%를 회사 이름으로 “자본 완성 계좌”(special account of completion of capital, integración de Capital)에 예치</p> <p>자본 완성 계좌 개설을 위한 최소 예치금은 지분 자본의 50%임. 회사명이 승인되었다는 증거 필요</p>	하루	없음
4	<p>법인격 부여의 설립 조항 및 내규 공증</p>	2일	첫 USD 25,000: USD 245,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0.2%의 공증비
5	<p>법무사가 회사 설립 승인을 위해 서류들(공증된 설립 조항 및 내규의 복사본 3부 첨부)을 기업감독원에 제출</p> <p>등록비는 기업감독원에 매년 지급, 총 자산의 1% 회사 창립자는 온라인으로 등록 절차의 상황 확인 가능</p>	5일	없음
6	<p>설립 조항의 초록을 회사가 운영하는 지역에 배포되는 일간지에 발행</p>	2일	USD 75
7	<p>일반 주주 회의는 설립 조항 및 선언들을 상업 등록국에 기입하고 법적 대표자(들)의 이름을 상업 등록국에 등록</p> <p>상업 등록국(Registro Mercantil)은 기업 설립 날짜와 함께 등록 번호(Número de código)를 발급</p>	5일	USD 80
8	<p>납세자단일번호(Registro Unico de Contribuyentes, RUC) 신청</p> <p>회사 설립 절차가 완료되고 나서, 그리고 회사가 법적 대표자를 지명하고 상업 등록국에 등록한 후에는 RUC를 취득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SRI(Servicio de Rentas Internas)에서 진행되며 모든 필요 서류가 제출된 시점에서 48시간이 소요된다. 필요 서류 등록된 증서(deed), 법적 대표자 등록 증서, 발행 증명서이다. 부가가치세는 동일한 RUC를 통해 납세되며 별도의 등록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RUC는 바로 취득되지만, 영수증은 우편으로 3일 안에 발송된다.</p>	4일	양식 당 USD 5
9	<p>공인한 회사를 통해 송장 및 부가가치세 양식 인쇄</p> <p>RUC를 통해 회사는 SRI가 공인한 회사에서 송장을 인쇄, 구입해야 하며 특별 양식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매달 해야 한다.</p>	하루	USD 40 (100장짜리 책으로 된 송장. 원본 1 사본 2)

연번	절차	소요 시간	소요 비용
10	<p>IESS(Instituto Ecuatoriano de Seguridad Social, 사회보장기구)에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온라인 시스템 이용 위한 패스워드 취득</p> <p>회사는 고용자고유번호(cédula patronal)를 위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용주 의무 사항인 사회보장금은 건강, 연금, 사고, 산재 등에 사용된다.</p> <p>고용주는 IESS의 홈페이지에서 사회보장등록을 할 수 있다. 온라인 등록을 마치고 나면, 고용주는 시스템 사용을 위해 패스워드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고용주는 고용인의 행적을 모두 기록할 수 있다. (직원의 고용, 해고, 기여, 등)</p>	2일	없음
11	<p>모든 고용 계약서를 노동부에 제출</p> <p>노동 관련 계약 등록은 SENRES(인적 자원 개발 및 공공 부문 보수 국립 기술 사무국, Secretaría Nacional Técnica de Desarrollo de Recursos Humanos y de Remuneraciones del sector Público)에서 담당한다. 이 사무국은 노동부 소속이다.</p>	2일	없음
12	<p>지방 정부의 검사</p> <p>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사업체가 경영을 시작하기 전에, 지방 정부에서는 사업이 운영될 건물/사무실/가게를 검사하고 입지가 시 당국의 요구 조건에 들어맞는지를 확인한다. 검사가 끝나고 사업의 운영이 승인되고 나면, 시 당국은 사업 운영이 가능함을 선언한다. 승인에 필요한 평균 시간은 한 달이다.</p>	29일	없음
13	<p>“자격세(tasa de habilitacion)”를 취득하고 지방 정부에 상업 특허세(commercial patent) 납부</p> <p>지방 정부는 특정 ‘자격세’를 지방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 자격세를 통해 ‘상업적이고 산업적인 설립체의 운영과 통제에 대한 능력을 승인’한다. 2004년을 기준으로 자격세 제도는 폐지되었으나, 실제로 아직도 이 세금을 내야 하는 회사들이 있다. 요금은 회사의 유형, 지리, 규모 등에 따라 다르다.</p> <p>기업은 또한 모든 상업적이거나 산업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회사가 시 정부에 내는 세금인 상업 특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업 특허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며 첫 상업특허세는 회사가 운영을 시작한 달의 말일로부터 30일 안에 납부되어야 한다.</p>	1일	USD 50

나. 추천 법무회사

키토에서 활동하는 법무회사로, 규모가 있으면서 다양한 정부 프로젝트 및 민간 기업의 법률자문을 맡고 있는 회사로는 다음이 있다.

- 하상욱 (중남미 변호사), Paz Horowitz 로펌
 - 전화: (593-2) 398-2900 / Mobile: (593-9) 9554-0142
 - Email: harryha@pazhorowitz.com
 - 홈페이지: www.pazhorowitz.com
 - 주소: Calle del Establo y Calle E, Cumbaya Site Center, Torre I, Ofic. 301, Quito
 - 주요 경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중남미법), 에콰도르, 스페인, 칠레 변호사 자격증 보유, 한국관세종합행정연합회(KCingle-Cupia) 싱글윈도우 구축사업 법률자문 등 한국기업 자문 다수
- Bustamante & Bustamante
 - 전화: (593-2) 2562-680 / 2562-681
 - 대표메일: bustamanteybustamante@bustamante.com.ec
 - 홈페이지: www.bustamante.com.ec
 - 대표자: Dr. Juan Carlos Bustamante (Email: jcbustamante@bustamante.com.ec)
- Romero Arteta Ponce
 - 전화: (593-2) 2986-666 / 2986-667
 - 대표메일: dromero@law.com.ec
 - 홈페이지: www.rap.com.ec
 - 주소: Av. 12 de Octubre N. 26-97 y A. Lincoln, Edificio Torre 1492, 8vo Piso, Quito
 - 대표자: Dr. Gustavo Romero Ponce (Email: rap@law.com.ec)
- Bermeo & Bermeo Law Firm
 - 전화: (593-2) 2556-027 / 2556-028
 - 대표메일: mail@bermeolaw.com
 - 홈페이지: www.bermeolaw.com
 - 주소: Av. 12 de Octubre y Cordero, World Trade Center B-12, Quito
 - 대표자: Dr. Rodrigo Bermeo (Email: rbermeo@bermeolaw.com)

11. 투자법인 철수 및 청산

에콰도르는 회사법(Ley de Compañías)상 합병과 해산이 아닌 경우 법인청산을 진행할 수 있고 청산하는 동안 법인유지를 할 수 있다. 이 과정 동안 회사 이름에 ‘청산 중’이라고 표시해야 하며 새로운 사업거래는 금지되어 있다.

가. 청산대리인

- 완전한 법률의 해산일 경우, 기업감독원에서 청산을 결정하고 청산대리인을 임명함.
- 자체 청산일 경우, 법령이 청산대리인의 임명에 대한 규칙을 설립하지 않았다면 총회에서 청산대리인을 임명함.
- 청산의 과실 또는 고의적인 위법행위가 있거나 민사능력이 없는 회사의 청산대리인, 채권자, 채무자, 은행, 주주 또는 관리자 등은 청산대리인 자격이 없음.

나. 청산 절차

- 이사회(주주총회)를 통한 해산 결의
 - 청산기간 동안 청산대리인은 회원, 주주에게 청산 진행상황을 보고하고 이사회 회의에 관한 소집을 해서 청산대리인이 의장이 되어 결정함.
- 일간지에 공고
 - 법인의 주요 거주지 일간지에 청산결정 후 연속 3일 동안 게시함.
- 기업감독원에 해산 등록
- 청산대리인의 청산작업 및 자산 등 처리
 - 청산대리인은 기업의 동산/부동산 자산처분, 채권징수, 채무변제, 재고물품처분, 직원 퇴직금정산, 사회보장청에 납부금 정산, 이익금이 남을 경우 주주들에게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이익금 배당 등 기타 청산업무를 담당함.
 - 청산대리인이 임명되면 청산대리인은 이사회를 대체하며 이사회에서는 자산관련 모든 서류를 이전해야 한다.
- 자산처분 및 유관기관에 통지 및 등록취소
 - 기업감독원에 해산통지를 하면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함.
 - 청산의 결정을 알리고 1년 동안 해산 및 청산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기업감독원 기업명부(Registro Mercantil)에 등록 취소를 할 수 있음.

다. 해외법인의 기업감독원을 통한 해산 조건

- 본부가 그 원지역이면 어떤 이유로든 해산 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음.
- 에콰도르에 설립된 지사에 분명한 법정대리인 없이 운영될 경우
- 지점이 할당된 자본의 50%이상 손실을 입거나 기업감독원을 통해 정해진 기간 내에 다시 증가되지 않은 경우
- 법 위반, 규범 또는 외국자본 승인의 규정이나 심각한 불이행, 정상적인 기능에 대해 불쾌감을 일으키거나 제3자에게 손상을 준 경우

기업감독원은 운영허가를 취소하고 해외법인 지점의 지역에서 가장 큰 일간지에 등록하고 게시한다.

12. 투자입지여건

가. 일반입지여건

INEC 통계에 따르면, 에콰도르 전체인구의 75%는 도시지역에, 나머지 25%는 농촌지역에 살고 있으며 주로 해안지역과 안데스지역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도시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2.3%로 추정되고 있는 반면,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율은 도시지역으로의 이주 및 해외이민의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

에콰도르의 주요도시를 인구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에콰도르의 주요도시

(단위: 명)

도시명	인구
과야quil(Guayaquil)	2.350.915
키토(Quito)	2.239.191
꾸엥까(Cuenca)	505.585
포르도비에호(Portoviejo)	280.029
마찰라(Machala)	245.972
산토도밍고(Santo Domingo)	368.013
암바또(Ambato)	329.856

주: 2013년 기준

자료원: 에콰도르 문화부, PRO ECUADOR

다음의 3개 주요도시는 정치, 금융 및 상업적 활동 등에서 가장 두드러진 도시들이다.

- 과야quil: 상업활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로서 에콰도르의 가장 중요한 출입관문인 시몬볼리바르 항구가 있어 에콰도르 대외교역 물동량의 70% 이상이 이곳을 통과한다.
- 키토: 에콰도르의 수도로서 중앙정부와 각종 공공기관은 물론 많은 국내외기업이 자리잡고 있다.
- 꾸엥까: 에콰도르의 3대 도시로서,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유산 및 조용한 도시환경을 가지고 있어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며 공예품 및 도자기산업이 발달해 있다.

나. 특수경제개발지역(ZEDE)

2010년 생산무역투자기본법(COPCI)은 에콰도르의 1991년 자유무역지대법을 대체하면서 경제개발특별구(Special Economic Development Zones, ZEDes)의 형성을 규정하였다. 중앙정부가 인가하는 경제개발특별구(ZEDE)는 영토내의 일정 공간을 특수관세 구역으로 지정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규투자를 유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 구역에 반입되는 수입품들은 관세가 면제되고, 무역관련 세금 및 재정적 특별대우를 제공받게 된다.

ZEDE는 전략적 목표에 따라 세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기술혁신 및 기술이전을 수행하기 위한 특별구(ZEDE tecnológica), 산업다변화를 이루기 위한 특별구(ZEDE Industrial), 물류서비스를 위한 특별구(ZEDE logística)가 그것이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자유무역지대는 최초 허가 받은 사항에 따라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나, 운영자 및 사용자는 ZEDE에 맞게 새롭게 규정된 행정적 절차들을 따라야 한다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 주도하에 2011년부터 ZEDE 지역선정과 전략 수립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고, 마나비(Manabi)주의 만따(Manta)시 공항과 항구를 잇는 구역이 최초의 ZEDE가 될 후보지로 손꼽히고 있다. 지리적 또는 자연조건에서 경쟁력 있는 항구와 국제공항(인근의 자유무역지대를 포함하고 있음)이 인접한 이 지역은 에콰도르 해안의 다른 항구들은 물론, 남미·북미의 서해안과 아시아, 대양주, 대서양 등의 항구들을 연계할 수 있는 물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또 다른 ZEDE 후보지로는 에콰도르 바나나 수출의 대부분을 처리하고 있고, 페루와 북미 또는 유럽시장 운송 화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는 볼리바르항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에콰도르 정부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국가프로젝트인 “야차이(Yachay) 지식기반도시” 사업은 한국의 송도국제도시를 모델로 한 에콰도르 신성장 거점도시를 개발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이다. 국제비즈니스와 첨단산업 연구도시를 컨셉으로 하여 남미 경제권의 새로운 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는 도시를 건설하겠다는 목표를 지니고 있는 동 사업에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이 기획 및 설계 단계에서 파트너로 참여하고 있다. 2012년 11월 생산고용경쟁력조정부는 ZEDE 법안의 기술 부문에 대한 세칙을 승인하였고, 이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야차이 신도시가 ZEDE tecnológica로 편입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후, 2013년 9월 20일에 에콰도르 생산 분야위원회는 특수경제개발지역으로 야차이 신도시에 기술, 산업 및 물류 특별구(ZEDE) 설립을 발표했다.

13. 무역투자 진출 시 애로사항

가. 제조용 부품 조달 애로

에콰도르는 원유 및 농산품을 위주로 한 1차 산업 중심의 경제로 국내 제조업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중남미 진출 확대를 희망하는 전자제품, 자동차, 기계류 등의 제조업체가 투자를 희망할 경우 연관산업 부재로 인한 부품의 현지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제조 공정의 기본 자재들인 종이, 플라스틱, 금속류 등의 공급에서부터 생산을 위한 기계, 설비 등의 현지 공급에 있어 상품의 질이 매우 떨어지거나 그마저도 현지 공급처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제조업 투자에 앞서 현지조달 품목 및 공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나. 에너지·자원 분야 투자 애로사항

전반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가 극히 저조한 가운데, 에콰도르의 외국인 투자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자원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분야 대부분의 투자에서는 정부기관 또는 공기업이 사업주체로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유화에 준하는 국수적인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지분, 수익분배, 가격 및 생산통제 등에서 정부의 일방적인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나, 문제는 이러한 기준이 정부정책 변화 또는 대통령의 명령에 따라 자주 변경됨으로써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있다. 이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외국 기업의 철수(Occidental, Petrobras) 및 소송(Perenco, Texaco 등)이 적지 않게 발생하였다.

다. 숙련노동 부족과 노동시장 경직성

에콰도르는 저렴한 미숙련 노동의 확보는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취약한 제조업 기반과 뒤쳐진 교육제도로 인해 숙련노동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 급여수준은 달러화 이후 다른 중남미 국가와 비교하여 높은 편에 속한다. 또한 헌법상 아웃소싱과 하청이 금지되어 있는 등 강력한 노동자 권익 보호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2008년 신헌법에서 노동자 권익을 강조한 이래 현 정부는 근로관계법을 수 차례 개정하여 노동자 권익을 더욱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해고 용이성, 임금의 신속적 조정 가능성, 유연한 근로시간 등의 노동유연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중 크고 작은 노무소송을 겪어보지 않은 업체가 없을 정도로, 이러한 엄격한 근로관계법은 기업 활동에 큰 애로사항이 되고 있다. 따라서 현지 진출을 희망하거나 활동중인 업체들은 에콰도르 근로관계법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현지 근로기준의 존중, 그리고 분쟁의 여지를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예를 들어 근로자 해고 관련 사전에 그

근거 사유를 문서화, 공식화하는 등-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라. 노무관리 상의 애로사항

노동자 권익을 강화하는 정부 정책과 함께 권리에 대한 근로자 의식도 향상되어 사용자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최근 에콰도르 정부 프로젝트로 수력발전소 건설을 수행하고 있는 중국기업이 근로현장에서 노동학대를 자행한다는 이유로 진정서 제출, 근로자 파업 등이 발생한 바 있다. 이 사안은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켜, 차관을 빌미로 현지 노동법을 준수하지 않는 중국기업과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정부의 자세에 국가 주권논쟁까지 불러일으키게 하였다.

한편 에콰도르에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모 한국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 처우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으나 발 빠른 대처로 큰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무리된 바 있다. 이처럼 현지진출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노동 분쟁은 해당 기업은 물론, 국가 전체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으므로 현지 근로기준과 노사관계에 대한 사전 이해와 기업 활동 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근로기준 관련 법률적 문제보다도 진출기업들이 실제로 더 빈번하게 겪는 고충은 현지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 여타 중남미 국가들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근로자들의 불성실한 근무태도, 적극성의 부족, 시간약속의 불철저함, 근무시간 외 업무에 대한 거부감 등 한국적 정서로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잦은 마찰을 빚게 된다. 그러나 이는 문화와 가치관의 차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현지에서의 기업활동이 거칠 수 밖에 없는 적응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4. 노무관리제도

가. 개관

에콰도르의 미발달된 교육 제도와 비중이 높은 비공식 경제 부문으로 인해 에콰도르에는 숙련 노동력이 부족하다. 그러나 중남미 전반적으로 숙련 노동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이는 에콰도르도 마찬가지이다.

노동법은 꼬레아 행정부에 들어서 더 엄격해지고 있다. 이론상으로는 노동자들은 노동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공공 부문의 근로자들은 노동 조합 행위를 통해 석유 생산 및 분배 등의 기초적인 서비스를 마비시켜서는 안 된다. 꼬레아 행정부는 전 행정부보다 정부의 중요한 재원의 흐름(석유로부터 오는 수입)을 막거나 기초 서비스의 공급을 위협하게 하는 파업을 억제하는 데 더 주력할 것임을 밝혔다.

2008년 5월 의회를 통과한 Mandate8에서는 아웃소싱과 하청을 금지하였다. 정부와 노동계에서는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였다고 하지만, 재계의 비평가들은 노동계에 지나친 경직성을 불러오는 조치였으며 이 조치로 인해 실업률이 증가했다고 주장한다. 2008년 헌법의 327항에서는 아웃소싱 및 하청 금지 조항을 다시 한번 천명하였다.

나. 고용 관련 통계

에콰도르 통계청에 따르면 도시경제활동인구의 실업률은 2011년 기준 5.52%였으며, 2010년의 7.44%보다 하락세를 보였다. 불완전 고용률(underemployment rate)은 2011년 10월 기준 45.71%였으며, 2010년의 49.6%보다 역시 하락하였다. EIU 추정치에 따르면 전체 노동 인구는 2011년 기준 470만 명이며, 이는 전체 인구의 약 30%이다.

에콰도르 통계청(INEC)에 따르면, 2010년 기준 0-14세의 인구는 전체의 30.31%, 15-64세의 인구가 63.3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6.31%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인구 분포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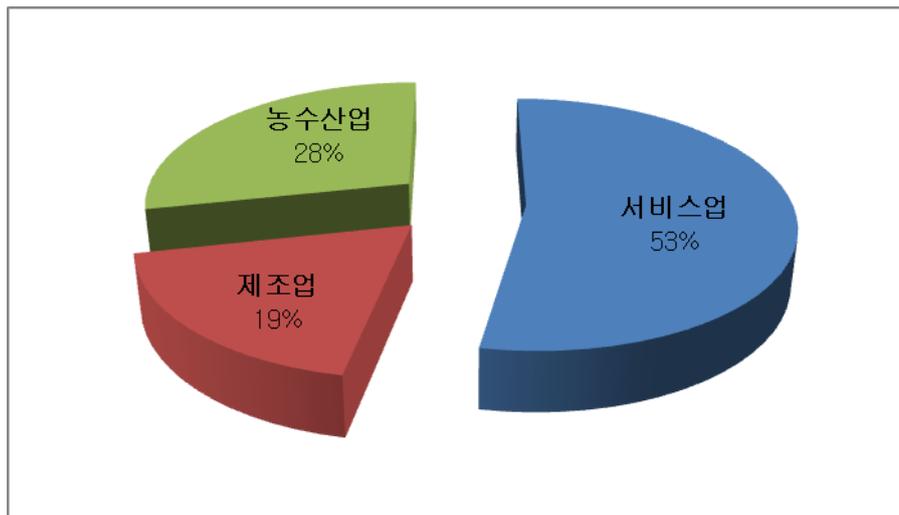
연령대	남자	여자
0-4	729,658	699,286
5-9	732,520	704,218
10-14	733,902	706,269
15-19	697,754	674,976
20-24	659,047	674,976
25-29	598,999	591,994

연령대	남자	여자
30-34	532,857	532,362
35-39	473,855	477,168
40-44	420,767	426,866
45-49	362,447	369,661
50-54	307,863	316,652
55-59	259,636	269,964
60-64	188,298	198,069
65-69	146,500	158,308
70-74	113,430	126,816
75-79	81,878	95,278
80+	76,572	97,625

주: 2010년 기준, 예측통계

자료원: 에콰도르 통계청(INEC), PRO ECUADOR 자료 재인용

산업별 경제활동 인구 비중



자료원: 에콰도르중앙은행, PRO ECUADOR 자료 재인용

다. 계약서

노동법은 모든 고용자와 피고용자간의 관계가 계약서를 통해 합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 11조에서 분류하는 계약서는 다음과 같다.

- 명시적 또는 묵시적, 구두 또는 서면 계약
- 봉급제 또는 임금제 계약
- 고정기간, 임의기간, 계절간, 목적별 및 부정기 계약
- 수습계약

- 특정직무 및 과제별 계약
- 초빙 계약
- 개별, 그룹별 및 팀별 계약
- 시간제 계약
- 외국인 근로자

노동부는 외국인에게 취업비자 12-VI 및 관련서류를 발급하기 전에 외국인의 근로활동을 인가한다. 이 서류들을 신청하기 위한 양식은 노동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종류가 있다.

- 일반: 비자(비이민) 또는 09-IV(이민 거주자)를 발급받기 전에 먼저 취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국익을 위한 업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비자 12-VI(비이민)을 발급받기 전에 취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국익을 위한 활동을 벌이는 국제기관에 고용된 외국인: 비자 12-VI을 발급받기 전에 취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운동선수: 비자 12-VI을 발급받기 전에 취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 외국인 예술가: 비자 12-VI을 발급받기 전에 취업인가를 받아야 한다.

라. 급여 및 근무시간

1) 급여

노동법 제 117조에 의하면, 임금 및 봉급은 자유롭게 정하되 결코 법정 최소금액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

□ 제 117 조 (통합 보수)

이는 2000년 1월 1일 발효되어 다른 산업 또는 근로활동에 적용되는 산업별 보수의 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에콰도르 경제개혁법 발효 이후 포함된 봉급요소에 추가하여 근로자들이 받는 산업별 보수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말한다.

“국가급여위원회”(CONADES)는 매년 근로자들의 통합 최저임금을 정한다. 산업별위원회가 제의한 산업별 또는 업종별 급여의 조정뿐 아니라 CONADES가 정하는 임금 및 봉급은 민간부문의 노동법 적용 근로자들의 봉급을 참조한다. 2013년 최저임금은 한 달에 318 달러였다. (2012년에는 292달러) 생산법에 따라 수익성 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2차 임금 요구’가 적용된다. 동 법은 회사들로 하여금 ‘품위 임금(dignified salary)’을 지급하도록 하기 위해 순이익을 보고하도록 한다. 이 ‘품위 임금’은 통계청이 지정한 기본 생필품(‘장바구니 물가’에 포함되는 품목)을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이며 근로자의 가족 구성원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게 되어 있다. 회사의 수익률이 기준치 이하이면, '품위 임금'에 맞추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품위 임금'의 계산은 근로자가 받을 권리가 있는 모든 급여와 혜택을 포함하여 한다.

모든 근로자는 노동법에 규정된 다음 보수들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 13번째 보수(또는 크리스마스 상여금)
 - 당해 년도에 수령한 12번째 보수와 동일하다.

- 14번째 보수
 - 근로자는 최소 기본급여에 해당되는 금액을, 급여일에 또는 해안 및 도서지역은 4월 15일까지, 안데스 및 아마존지역은 9월 15일까지, 연간상여금으로 추가 지급받을 수 있다. (동 지급은 각 지역의 학기제도를 반영하는 것임) 단, 수공업업 운영자 및 그 도제는 이러한 추가 보수의 지급에서 제외된다.
 - 13번째 보수와 14번째 보수는 그 해의 신학기 시작일과 12월에 모든 직원에게 지급된다. 13번째 보수와 14번째 보수가 지급되는 달의 최소 패키지(급여와 보너스를 포함)는 400 달러이다.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임금의 11.15%를 에콰도르 사회보장기구(IESS)에 기여해야 하며, 피고용인은 월급의 9.35%를 사회보장세로 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월급의 0.5%를 직업훈련비에, 0.5%를 교육신용프로그램(Educational credit programme)에 내야 한다. 고용주는 또한 매년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모든 1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을 위해 IESS에 기여해야 한다. 이 돈은 IESS가 근로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보유 기금'에 저장된다. 의회는 이 보유 기금을 3년마다 한번 근로자들에게 돌려줄 것을 2005년 입법화하였다.

고용주는 세전 이윤의 15%를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줄 의무가 있다. 이 중에서, 10%는 근로자들에게 똑같이 분배되어야 하며 나머지 5%는 각 노동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에 기반해 분배되어야 한다. 석유 부문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경우, 2010년 발효된 탄화수소법이 세전 이윤의 3%만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12%는 지역 커뮤니티에 기부하도록 하였다.

출산 휴가는 출산 2주 전에서 출산 후 10주 뒤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아이를 출산한 후에는 9개월 동안 2시간 빨리 퇴근할 수 있다. 2008년 헌법은 남성도 5일간의 출산 휴가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아기가 아플 경우 연장 가능)

외국계 기업의 평균 임금은 현지 회사의 임금보다 평균적으로 높은 경향이 있다. 공식적인 통계치는 없으나, 석유 회사 및 은행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이 높다. 외국 회사들은 현지 기반의 회사와 같은 임금 규제를 받으며, 외국계 회사가 제공하는 부가 혜택(fringe benefit) 역시 현지 기반 회사와 비슷하다. 과거 외국계 회사는 몇몇 근로자들에게 처음으로 의료 보험을 제공하는 차별성을 보였으나 오늘날에는 현지 회사들에서도 널리 보여지는 관행이 되어 있다. 국가에 의해 결정된 최저 임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임금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간의

협상을 통해 정해진다.

2)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혹은 하루에 8시간이다. 최대 추가근무 시간은 주당 12시간, 하루에 4시간이다. 이러한 제한 사항은 직업고용부(Ministry of Work and Employment)의 승인 하에, 혹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상호 합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은 자정까지 일반 임금의 150%여야 하며 자정~아침 6시 사이, 혹은 주말 근무일 경우, 혹은 추가근무가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일반 임금의 200%여야 한다.

아동청소년법(Childhood and Adolescents code, law 737, 2003)에 따라,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할 수 없다. 이 법은 12세 이상의 청소년을 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노동법(Labour code, No.198, January 2006)에 우선한다. 15세 청소년의 경우 하루에 6시간, 주당 30시간 일할 수 있다. 16세~17세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주당 35시간 일할 수 있다. 야간 근무, 혹은 청소년의 도덕적, 신체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일은 금지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 사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노동은 에콰도르에서 흔한 편이다.

마. 휴가

- 연가
 - 모든 근로자는 매년 비근로일을 포함하여 15일 간의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1년 이상 일한 근로자의 경우). 동일회사에서 또는 동일고용주를 위해 5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초과 연수 1년 당 1일의 추가 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또는 그 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일 년에 얻을 수 있는 최대 연가 일수는 30일이다.
- 공휴일
 - 근로자들은 최소 9일의 유급 공휴일을 누릴 자격이 있다.

바. 기간제 및 파트 타이머

노동법의 17항은 특수한 상황, 예를 들면 연가, 병가, 출산 휴가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기간제 근무 계약(temporary work)을 규정하고 있다. 기간제 근무계약은 단기간 동안 노동 수요 및 생산이 급증했을 때에도 사용될 수 있다. 기간제 근로자는 1년에 6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다. 노동법은 또한 1년에 30일까지 근무하는 계절 및 임시 근로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파트 타이머는(Part-time work)는 하루에 최대 네 시간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하며,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초과 근무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파트 타이머와 기간제 근로자는 직업

안정성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동일한 권리를 누린다. 고용주는 풀 타임 근로자가 특정 시간 동안 일하기를 거부할 경우 파트 타이머를 고용할 수 있다. 파트 타이머는 풀 타임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지 않은 사람만 가능하다(두 개 이상의 시간제 근무는 가능). 파트 타이머는 15세 이하의 청소년 및 아동에게 금지되어 있다.

2008년에 의회를 통과한 Mandate 8에서는 시간 단위로 노동자와 계약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일의 구분 상 특정 시프트(shift)를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 고용의 종료

노동법의 9장은 고용 종료의 법칙들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 169항과 172항은 고용주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적법하게 고용을 종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 계약에 명시된 이유
- 양자에 의한 상호 합의
- 계약이 형성된 목적인 일 혹은 서비스가 완료되었을 경우
- 고용주나 피고용인의 죽음 혹은 무력
- 고용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고용주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예를 들어 자연재해)
- 반복적이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결석 혹은 지각
- 규율의 부재, 불복종
- 비도덕적 행위

만약 해고 사유가 위와 같은 사항들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188항은 고용주로 하여금 피고용인의 임금 및 근로 기간에 의해 정해지는 만큼의 퇴직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만약 근로자가 해고 당시 기준 앞선 24달 동안 한 달에 500달러 이하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3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3달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3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 근무 1년 당 한 달치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퇴직금은 최대 25달치 월급까지 수령 가능).

만약 근로자가 해고 당시 기준 앞선 24달 동안 한 달에 500달러를 초과하여 받았다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된다. 5년 이하로 근무했을 경우, 1달치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 지급, 5년에서 10년까지는 2달치, 10년에서 15년까지는 3달치, 15년에서 20년까지는 4달치, 20년 이상은 5달치 임금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했을 경우, 정부에서 30일간 고용주의 주장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한다. 이 '노동 검사관'은 피고용인의 30일 간의 임금을 맡아 두고 있다가, 고용주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면 피고용인에게, 고용주의 주장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고용주에게 되돌려준다. 고용주가 해고에 대해 정당한 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을

경우, 고용주는 해고 후 48시간 내에 피고용인에게 법으로 정해진 액수의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집단 계약은 종종 더 높은 퇴직금의 지급을 포함하는 조항들을 삽입한다.

아. 외국인 고용

에콰도르 회사와 근로 계약을 맺었을 경우 에콰도르에서 근로 비자를 취득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투자 비자”를 획득하는 것은 조금 더 까다롭다. 투자가로서 비자를 획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US\$25,000의 자본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에서 반영구, 혹은 영구 거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은 그에 따르는 비자를 취득하여야 한다. 근로 비자에 기반한 반영구 거주 의 경우 12-VI 비자를 취득해야 한다. 외국인법(Law 887, 1979)은 12-VI의 신청서를 에콰도르 영사관 혹은 이민국에서 작성할 것을 요구한다. 신청서는 만료 기간으로부터 6개월 이상 남은 유효한 여권, 노동관계부(Ministry of Labour Relations)의 인적자원담당자(National Director of Human Resources)로부터 발행된 인증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이 인증서는 해당 외국인이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일하고자 하는 근무지에서 일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허가하여야 하고, 해당 외국인의 에콰도르 거주가 국가의 인적자원정책 혹은 국가 고용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여야 한다. 공증된 근무 계약서도 요구된다. 회사의 법적 대표자, 혹은 에콰도르에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질 예정인 회사의 수장은 노동관계부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사업 관련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에콰도르에 가고자 하는 외국인은 비자 12-IX를 취득하여야 하며, 이 비자는 6개월간의 체재를 허용한다. 유효한 여권, 에콰도르에서 돌아가는 비행기표, 지불 능력의 증거가 요구된다. 허용된 6개월 간의 체재 동안, 이 비자는 필요한 서류와 함께 12-VI 비자로 전환될 수 있다(변경 신청서는 처리에 72시간이 소요됨).

허가된 활동을 위해 에콰도르에 정착한 외국인은 ‘이민자’로 분류된다. 이민자에게 발행되는 비자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된다.

- 이민자가 에콰도르 바깥에서 발생하는 소득 혹은 은행에 예금한 금액으로 생활비를 충당할 것인가?
- 이민자가 실자산, 유가 증권, 혹은 국채를 구입하기 위해 자본을 투자할 것인가?
- 이민자가 산업, 농업 혹은 수출을 위해 투자할 것인가?
- 이민자가 행정적이거나 기술적인 직능을 담당할 것인가?

외국인은 제한 없이 에콰도르에서 근무하기 위해 이민자 비자를 취득할 수 있다. 이민자 비자는 “10”비자로 분류되었으나, 2004년 외국인법에서 “9”비자로 바뀌었다. 그러나 카테고리는 동일하게 유지되며 “10”비자를 소유한 이민자들의 권리 역시 유효하게 유지된다.

9-I 이민 비자는 만약 외국인이 한 달에 US\$800 (추가로 피부양자 한 명 당 US\$100) 이상의 투자 수익을 해외에서 수령하고 있음을 증명할 경우 수여된다. 9-II는 외국인이 US\$25,000만큼에 해당하는 금액을 투자했을 경우(추가로 피부양자 한 명 당 US\$500의 부동산 혹은 예금/국채 등 금융에의 투자) 수여된다. 정부경찰부(The Ministry of Government and Police)는 이러한 최소 요구 수치를 개정할 수 있다. 비자가 영사관에서 신청되었을 경우, 영사관이 금액을 지정할 수 있다. 9-III 비자를 취득하여 산업, 투자, 혹은 수출 활동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US\$30,00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자. 사회보장

“사회보장기구(IESS)”가 2002년 8월 6일 Resolution No. ADM-2002-5983을 통해 발족되었고 2006년 2월 24일 Resolution No. ADM-2006-7550을 통해 “국립사회보장기구”로 승격되었다. 이 기관의 목적은 사회보장을 위해 시민이 납부한 기금을 보호하고 올바르게 운용하며 사회보장관련 법령을 제정하고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1) 군인사회보장원(Armed Forces Social Security Institute)

군인연금의 창설은 군 제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성과로 간주되고 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은, 군인연금기금법과 같은 날짜에 Registry 601로 발표된 군인 퇴직법 제정과 함께 1928년 3월 26일 완료되었다. 이로써 에콰도르는 군인사회보장 시스템을 갖춘 남미 최초의 국가가 되었다.

2) 사회보장법 2001-55

새로운 사회보장법 2001- 55 는 2001년 11월 30일 발효된 것으로, 5대 사회보장제도의 각 기금에 대한 회계 및 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 수혜자

직무를 수행하거나 물리적 또는 지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모든 개인들은 고용관계의 여하를 불문하고 의무사회보장의 보호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특히,

- 임금 근로자
- 자영업 근로자
- 개인영업 전문직
- 기업 관리자 또는 소유자
- 1인 기업소유자
- 독립근로 미성년,
- 기타 법령 및 특별법에 의거, 의무사회보장에 가입이 의무화된 자

이들도 사회보장제의 보호를 요청할 의무가 있다. 이들은 단독 또는 집단으로 일하면서 민간 및 공공의 어떤 고용주에게 급여를 받지 않고 그 집단의 어느 개인을 고용하지도 않는 공예가, 어촌 및 농촌 거주 근로자이며 또는 그러한 의존관계 하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제 3자이다(제 2 조).

상기한 대상 각각의 규정 요건은 다음과 같다.

a. 의존관계의 근로자란 피고용자, 근로자, 공무원 및 근로계약, 특별대리권 또는 법정 지정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의 성격, 사업장, 근무일 범위 또는 계약기간, 특별대리권 또는 지정인에 관계없이 연금 또는 봉급을 수령하는 모든 개인들이다.

b. 자영업 근로자란 의존관계 없이 개업 또는 경제활동을 수행하면서 수수료, 지분, 수당 등 봉급 이외의 보수를 받는 모든 개인들이다.

c. 개인영업 전문직이란 단독 또는 다른 개인과 합동으로 의존관계 없이 대학학위, 다양한 기능과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개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수수료, 지분 등 봉급 이외의 보수를 받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d. 기업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직무를 수행케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e. 1인 기업 소유자는 서비스 또는 위험자본을 제공하는 업무 또는 기업을 시작하는 모든 개인이다.

f. 독립근로 미성년이란 의존관계 없이 자신을 위해 또는 동일조건외 다른 사람과 합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18세 이하의 모든 개인이다.

g. 연금수급자란 시간, 납입금, 나이 등 모든 요건을 갖추었거나 육체적 정신적으로 전신 또는 부분적인 영구장애를 입어 국가 또는 사회보장제도로부터 정기연금을 수령하거나 고령 또는 장애를 근거로 보험회사로부터 평생연금을 수령하는 모든 개인을 말한다.

h. 수혜자란 연금수급자 또는 사망한 가입자의 친인척이면서, 그 배우자 또는 자녀로서의 수급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기타 상속법에 의거, 수급 청구권을 가진 자를 말한다.

□ 보장혜택

의무일반사회보장은 그 가입자가, 아래와 같은 경우로 인해 근로 및 평상시 활동에 의한 소득 창출 능력에 영향을 받게 되는 상황으로부터 보호한다.

- 노령, 사망, 장애를 포함한 심신미약
- 실업
- 질병
- 출산
- 산업재해

□ 노령연금

2001년 11월 30일 발효된 “사회보장법” 2001- 55에 따르면,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360개월 이상이고 나이가 60세 이상이거나 또는 가입기간이 480개월 이상이면 나이에 상관없이 노령연금의 권리를 가지도록 되어있다.

□ 장애연금

현행 보험목적상 장애인이라 함은, 질병 및 신체적 변화로 인해 자신의 역량과 훈련 등에 의한 직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득이, 동일 조건에서 건강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통상임금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

장애연금으로 알려진 이러한 수급혜택은 가입기간과 5년간의 최고임금 평균액 등 두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산출한 영구 또는 일시 연금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IESS는 장애로 인한 퇴직자에게는 노령 퇴직자에게 주어지는 생활비 증가분에 대한 보상뿐 아니라 13번째 및 14번째 연금도 지급하게 된다.

□ 실업

실업이라 함은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모든 직무관계로부터의 이탈로 정의된다. 에콰도르의 사회보장 시스템은 실업을 재정분배 시스템 상의 중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

□ 질병 및 출산: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건강 관련 혜택이 주어진다.

- 건강증진 프로그램
- 전문의 예약, 전문 정보, 진단절차, 약품 및 수술 등을 포함하는 예방활동
- 치과의 예방 및 치료
- 전문의 예약, 검진, 수술, 입원 및 투약 등 치료 및 재활에 필요한 모든 지원활동
- 만성 퇴행성 질병의 치료. 보험자가 체결한 집합적 의무보험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수급권의 제한 없이 보험자의 책임 하에 이뤄진다.
- 중대한 재해에 따른 질병의 치료. 이는 가입자, 고용주 및 국가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금을 재원으로 공공보건의 차원에서 국가가 인정하는 재해에 적용된다.

질병이 있는 경우,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 의료지원, 수술, 의약품 및 재활치료. 이는 IESS 및 현행 보험자 소속
- 전문의가 설계한 진단 및 치료 절차에 따른다.
- 일시 자금지원.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할 능력이 상실된 경우에 한하며
- 가입자의 친인척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출산 시, 피보험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임신의 위험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임신 및 분만과 관련된 의료 및 산부인과적 지원.
- 근로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기간중의 자금지원,
- 출산 후 1년 동안 자녀에 대한 약품 및 수술을 포함하는 예방 및 치료 등 의료지원. 이는 생후 6세까지의 의약품 지원혜택과는 별개이다.

근로자가 현행법령상 “개인 및 가족 건강보험”의 수급권 자격에 미달하는 경우는, 고용주가 노동법 제 42조 9항 및 제 153조의 지원혜택을 위한 질병 및 출산보조금을 책임진다. 비직업적 질병 후 처음 3일간 봉급의 50%를 지급할 책임도 고용주에게 있다.

□ 직무상 재해

근로자는 근로활동의 결과, 우발적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이를 직무상 재해로 간주한다. 직무상 사고 및 직업 관련 질병은 직무상 재해이다.

직무상 사고는, 근로자가 본인 고유의 또는 타인을 대리한 직무 수행 중이거나 직장과 집 사이를 곧장 왕복하는 도중, 신체적 상해를 입게 되거나, 신체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거나, 심지어 사망에 까지 이르게 되는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사건을 말한다.

직업 관련 질병은 근로자가 직무 수행과 직접 관련하여 얻게 된, 직무 수행 불능을 초래하는 심각하거나 만성적인 질환상태를 말하며, 직무상 재해보험의 목적상 만성적 직업병은 직무상 사고로 간주된다.

차. 의무 고용 제도

□ 장애인 고용

2009년에 개정된 노동법의 42조에서는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은 면세 및 기타 정부 인센티브를 수여 받을 수 있다. 동 법은 고용주들로 하여금 2010년 말까지 전체 노동력의 4%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 비율을 끌어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몇몇 대기업들이 2010년 12월 1일 기준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 벌금형에 처했다. Telmex와 Copa 사는 각각 백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다.

□ 여성 고용

여성노동법(The Law of Labour Coverage for Women, Law 124, 1997.2)에서는 여성의 노동 참여를 명령하고 있다. 고용주는 노동부에서 정하는 특정 비중만큼 여성을 고용하여야 한다. 2008년 헌법의 331항은 여성 노동자에게 남성과 동등한 임금을 지불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카. 노동 조합

노동조합과의 계약은 1인 이상의 고용주 또는 고용주 단체와 1개 이상의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집합적 합의이다. 그 목적은 동일한 고용주와 계약체결 노조가 대표하는 근로자들 간에 서명된 개별 계약 내용을 규정하는 조건과 기본요건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민간부문에서 노동조합과의 계약은 회사 위원회와 체결되어야 한다. 그러한 위원회가 없으면, 노동조합과의 계약은 가입 근로자수가 더 많은 노동조합과 체결되어야 하는데 다만, 해당 기업근로자의 50%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정부기관 및 공기업 또는 공공목적을 가진 기관 및 기업의 경우 노동조합과의 계약은 근로자의 50% 이상을 점하고 있는 단일 중앙위원회와 체결되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근로자의 성명, 서명 또는 지장(指章), 주민번호, 사업장 등을 기재한 서류제출을 통해 다수의 의사를 대변할 대표자는 주대표자 15인, 대리대표자 15인을 초과할 수 없다.

노동법의 224항과 226항은 집단 계약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노동법은 민간 부문의 고용주들은 근로자의 50% 이상이 요청할 경우 집단노동계약에 서명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집단 계약은 홀로 효력을 발휘해서는 안되고 개인 계약을 보완해야 한다. 집단 계약의 조건들은 고용주가 상임 근로자를 계약에 명시된 보상 없이 해고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비숙련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고용주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고용주들은 집단 계약보다는 개인 계약을 통해 근로자를 고용한다.

노동 조합은 특정 동료들 사이에서 형성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설립될 수도 있고, 피고용인 전체를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될 수도 있다. 노동 조합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0명 이상의 근로자가 모여야 하지만, 일단 형성하고 나서는 30명 이하가 되어도 노동 조합이 유지된다.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만 같은 산업군에 있는 노동자들의 대표인 직종별 조합(trade union)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해당 산업의 절반 이상의 근로자들이 조합의 회원이어야 하며 숫자로는 30명 이상이어야 한다. 노동법 258항은 전체 산업에 적용되는 의무집단계약의 협상을 허락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에콰도르에서 집단 계약은 임금 정책과 관련해 자주 사용된다. 집단 협상은 국가적인 차원에서보다는 산업 차원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노동 계약은 근무 시간, 보상, 근무의 질, 연가, 가족 보조금을 포함한 당사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포함한다.

15. 조세제도

가. 일반구조

세금은 재정수입의 수단인 한편 투자와 저축 등을 통한 경제개발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따라서 세금제도는 사회안정과 발전을 충족해야 하며 국민의 소득분배에도 기여해야 한다.

세법은 과세대상, 징수권자 및 납세의무자, 세액 및 그 결정방법, 세금면제 및 공제, 이의청구 등의 사항을 정하고 있다.

세금제도를 지배하는 기본원칙은 법정주의, 보편주의, 평등주의, 비례주의 및 비 소급주의 등이다.

세법의 적용을 위한 제반 규정을 입안하는 것은 에콰도르 대통령의 의무이다.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은 각 해당부문에서 세법이 효율적이고 조화롭게 적용되는데 필요한 세부 규칙 등을 만든다.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에 의해 징세권을 부여 받은 경우도 이와 같다.

어떠한 규정들도 세법의 목적을 수정, 변경할 수 없으며 법에서 정하지 않은 세금을 새로 만들 수 없는 것은 물론 공제항목을 설정할 수도 없다. 세법의 적용은 중지되어서는 안 되며 추가할 수도, 수정할 수도 없다. 법률해석을 핑계로 불법명령을 발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 된다.

세금 관리기관은 법률에 의해 설립되며, 세액결정, 세금징수, 이의청구에 대한 결정, 세무조사 면제 등의 의무를 가진다.

세법, 관련 규정 및 일반규칙 등은 해당 법령이 발효일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한 “관보”(Registro Oficial)에 공고된 날의 익일부터 모든 영토, 영해 및 영공 내에서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세액의 결정 또는 납부가 연간단위로 이뤄지는 경우는 차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단기일 경우는 익월의 초일부터 적용된다.

국세청(Servicio de Rentas Internas, SRI)은 법률 규정에 의거, 내국세를 징수하는 자치기관이다. 그 목적은 납세자들이 자율적으로 세금을 납부해 나갈 수 있도록 에콰도르의 조세문화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나. 조세시스템

에콰도르의 조세 시스템은 국세와 지방세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기관으로,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다. 다음은 지방세로 간주된다. a) 도시재산세, b) 농촌재산세, c) 판매세, d) 자동차세, e) 등록 및 특허세, f) 공연세, g) 도시지역 토지양도세 및 토지과실세, h) 도박세, i) 종합재산세 0.15%

또한 국세는 다음 항목들이다. 소득세, 부가가치세(Impuesto al Valor Agregado, IVA), 특별소비세. 이밖에 석유, 광산 및 관광회사에 대한 특별세금 제도가 있으며 상속, 자동차 및 사치품 소유, 건강위해품목 등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

다. 세금의 종류

1) 소득세

소득세는 현행 세법에 따라 개인, 불가분 상속인 및 국내외 단체들이 획득한 국내외 소득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다음은 조세목적상 소득으로 간주된다.

- 현금, 동산, 부동산, 물품 및 용역 등의 근로 또는 자본으로부터 무상 또는 유상으로 획득된 에콰도르 원천의 소득
- 세법 98조에 따라,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국내단체가 해외에서 획득한 소득

해외로부터 획득하는 소득의 경우,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국내외 단체가 행한 대외수출에 따른 소득은, 직접 수출했건 위탁 수출했건, 자회사나 대표사무소를 경유했건 여부와 관계없이 에콰도르 원천의 소득으로 간주한다.

□ 징수주체

소득세의 징수권자는 국가이며, 국세청에 의해 관리된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개인, 불가분 상속인 및 국내외 단체들로서, 주소를 에콰도르에 두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법령에 따른 과세소득을 획득했을 때 소득세를 납세하여야 한다.

과세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단위로 하며, 1월 1일 이후에 소득 창출활동이 시작된 경우 과세년도는 해당년도 12월 31일 종료된다.

□ 소득세 세율

개인 및 불가분 상속자의 소득세는 다음과 같은 구간별 세율로 산정된다.

소득세 및 세율(2010)

소득구간		기초구간세액	현재구간세율
하한	상한		
-	8,910	-	0%
8,910	11,350	0	5%
11,350	14,190	122	10%
14,190	17,030	406	12%
17,030	34,060	747	15%
34,060	51,080	3,301	20%
51,080	68,110	6,705	25%
68,110	90,810	10,963	30%
90,910	이상	17,773	35%

자료원: 내국세 기본법

근로소득세 원천공제는 2011년 중 다음 표 21 의 소득구간별 세율에 따라 산정되었다.

소득세 및 세율(2011)

소득구간		기초구간세액	현재구간세율
하한	상한		
-	9,210	-	0%
8,910	11,730	0	5%
11,730	14,670	126	10%
14,670	17,610	420	12%
17,610	35,210	773	15%
35,210	52,810	3,413	20%
52,810	70,420	6,933	25%
70,420	93,890	11,335	30%
93,890	이상	18,376	35%

에콰도르에 거주하지 않는 개인이 비정기적인 서비스 제공으로 획득한 소득은 2011년 중 총소득금액에 대한 24%의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외국기업 지사, 에콰도르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으나 과세대상 소득을 획득한 외국기업 영업소 등을 포함하여 에콰도르 내에 설립된 기업들은 2011년 중 24%의 세율을 적용 받는다.

기업이 재투자를 통해 새로운 기계 및 설비를 구입하거나, 생산성 개선 및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및 연구 관련 물품을 획득하는 등 기업이 이익을 에콰도르에 재투자하고

상당한 자본증가를 이루는 경우, 생산적 자산에 재투자된 금액만큼 소득세율에서 10% 포인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협동조합, 신용조합 등 민간금융기관의 경우도 중소기업들의 생산적 투자 및 자본증대 활동에 용자를 제공한다면 위와 같은 감면 받을 수 있다.

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해외에서 소득을 획득하고 다른 나라의 세법 적용을 받고 있는 모든 개인 기업은 에콰도르의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소득이 조세피난처로부터의 소득이고 납세자 소득의 일부라면 이러한 면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

2) 부가가치세

□ 개요

부가가치세는 모든 거래의 단계마다 소유권의 이전가액 또는 물품의 대외수입가액에 대해 부과된다. 법에 정해진 조건과 방식에 따라 제공된 용역가액과 저작권, 산업재산권 등 관련 권리에 대해서도 부과된다. 기본적으로 12%와 0%의 두 가지 세율이 있다.

부가세법에서 “이전”이란

- 개인 또는 기업이 물품이나 권리를 양도할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 등의 행동, 쌍방향 합의에 대한 자격여부를 불문하고 무상인 거래에도 적용됨.
- 위탁판매 및 판매조건부 리스를 위해 수령한 물품의 판매(모든 형태의 상업리스 포함)
- 생산 또는 판매된 물품을 납세자가 소비

부가가치세는 다음의 경우에 부과되지 않는다.

- 기업에 대한 물적 출자
- 결혼을 포함한 협력관계의 상속 또는 청산에 따른 대가
- 자산과 부채의 양도를 수반하는 사업체의 매매
- 기업의 합병, 분리 및 구조변화
- 공기업, 법에 의해 설립된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공부문의 기관에 대한 관련 규정에 따른 기부
- 지분 또는 기타 증권의 양도
- 수평적(공동) 재산권 제도에 의거, 건설된 공동주택의 유지보수를 위해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수수료 또는 기부금. 공동주택 개발을 위한 공동비용의 용자에 대한 수수료 포함

다음 품목의 이전 및 수입에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 식료품: 농산물, 가공류, 가축, 양봉, 토끼, 수중생물, 임산물, 신선 및 가공육류, 수산물 등
- 우유: 신선우유, 살균우유, 균질우유, 분유, 치즈, 요구르트, 유아전용 우유 등
- 빵, 설탕, 흑설탕, 소금, 버터, 마가린, 오트밀, 옥수수전분, 국수, 식용밀가루, 통조림(참치, 고등어, 연어, 정어리 및 송어), 식용유(올리브제외)
- 인증된 종자, 구근, 초목, 초목의 가지 또는 뿌리, 동물사료 및 어류양식용 사료, 비료, 살충제, 진균제 등
- 쌀 경작(갈이, 파종, 추수 등)에 사용되는 200마력까지의 트랙터 타이어
- 인체용 의약품
- 분드지, 도서 및 그 재료
- 대외 수출된 물품
- 관세 및 세금이 면제되는 외교관 및 국제기구, 지역기구 등의 직원이 반입하는 물품. 입국 여행객이 관세법이 정한 한도 금액 내의 반입물품
- 공기업 및 공공기관에게 해외로부터 제공된 기부물품; 수입되지 아니한 상태로 임시 통과 반입된 물품 포함.
- ZEDE 관리 및 운영자. 수입된 물품이 허가된 구역으로만 반입되거나 또는 그 안에서 가공절차에 제공되는 경우
- 전기에너지
- 형광등
- 여객 및 화물 운송용 상업 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 하이브리드 자동차
- 국제우편 및 택배를 통해 반입된 물품 중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것. 즉, 화물의 FOB 가격이 개인소득세면제구간금액의 5% 이하이고,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최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상업목적이어서는 안되고 수취인 본인이 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국내구매와 수입에 있어 세법상의 면제는 기타 다른 기본법, 일반법 또는 특별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

□ 부가세 환급

대외 수출된 물품을 구매하면서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은 납부한 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제조업체는 대외 수출된 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수출이 완료된 후, 국세청에 관련 수출서류 사본을 제출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러한 환급권은 수출업체에 직접 납품한 공급자에게만 양도될 수 있다.

또한 제조업체는 완제품을 수출하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특별관세제도에 의거, 국내에서 수출용 원재료에 사용할 물품을 생산하기 위해 국내에서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단, 그러한 물품은 수출업체가 실제로 구매한 것이어야

하고 외국인 납세자가 생산한 물품을 수출업체에게 양도할 경우는 0%의 세율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항공운송 등 사업장의 이동을 수반하는 경우, 국내에서 항공유 급유 시 납부한 부가세는 환급 받을 수 있다. 왕복운송 서비스가 제공된 때에 납세자는 규정에 의한 서식과 조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특별경제개발구”(ZEDE)의 관리자 및 운영자는 ZEDE 내의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위하여 원재료, 부품 및 용역을 국내에서 구매할 때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다. 납세자는 관련 규정에 의한 서식과 조건에 따라 국세청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해당물품 및 용역이 ZEDE 내의 생산공정에 투입되었음을 ZEDE의 감독 및 통제기관으로부터 확인 받아야 한다.

□ 과세표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이전된 물품 또는 제공된 용역의 총액으로서, 기본가격에 부가되는 각종 세금, 서비스료 및 기타 법정비용들을 포함한 최종 판매가격 또는 용역제공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렇게 산정된 가격은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금액만 공제될 수 있다.

- 상관행에 따라 계산서에 기재되어 제공되는 정상적인 할인 및 텀
- 구매자가 환불하는 물품 가액
- 할부판매 시 이자 및 보험비용
- 수입물품의 과세표준 - 수입물품의 과표는 물품가격에 수입관세 및 기타 세금
- 수수료, 과징금, 수입신고 및 기타 관련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 된다.
- 국내거래에서 부가세의 발생시점은 물품이 인도되거나 대금이 일부 또는 전부 지급되거나, 구매의 증빙이 확실한 외상거래가 성립된 때이다. 수입된 물품의 경우는 세관 구내에서 반출되는 시점에 부가세가 발생한다.

□ 과세절차의 주체

부가세 과세의 주체는 국가이며 국세청이 이를 관리한다. 징수된 부가세는 일단 국세청이 에콰도르 중앙은행에 개설한 특정구좌에 예치된다. 이 세금은 관련 회계기록을 마친 후, 24 시간 내에 국고 구좌로 이동한다.

부가세의 납세주체는

- 납세의무자로서 수입을 행하는 자. 자가수요 및 수입대행 모두 해당
- 과세된 자산을 인도하는 개인 또는 기업
- 과세된 용역을 제공하는 개인 또는 기업

납부대리인으로서

- 공공기관 및 공기업과 국세청이 특별 납세자로 간주하는 개인 또는 기업
- 거래상대에게 부가세 납부대상 거래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사용된 신용카드 발급자
- 부가세 납부대상 거래의 대금지급에 대한 보험 및 재보험 업자
- 수출업자인 개인 또는 기업
- 국내 또는 국외에서 국내여행 패키지 대금의 대금 청구서를 작성한 여행업자
- 과세 대상 용역을 수입한 개인 또는 기업
- 연료 판매 시 추정 부가세에 대한 석유 및 연료 판매업자

□ 부가세 신고, 세액산정 및 납부

납세의무자는 월별 거래실적을 익월 말까지 신고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이상의 지급기한이 허용된 거래는 제외하며, 이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한 서식과 기한에 따라 해당월의 익월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가세 0%의 세율 또는 면제된 물품이나 용역을 단독 이전한 납세의무자는 납부대리인이 아닌 한 반년마다 이전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액산정- 규정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납세의무자는 과세 대상 거래의 총 금액에 대한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세액공제 금액은 세법 제 66조에 의해 납부된 세액에서 공제된다.
- 전 조항의 공제에 따른 차액은 신고서 제출과 동일한 기한 내에 납부되어야 하는 금액이다. 만일 신고서 금액이 납세의무자의 잔액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잔액으로 간주하고 익월의 신고 시에 지급될 것이다.

대외수입의 경우, 부가세 납부는 수입신고 시에 이뤄지며, 관할세관으로부터 물품이 인도되기 전에 납부가 완료되어야 한다. 수출용 물품과 수출용 물품의 생산 및 판매에 사용된 원재료, 부품, 물품 및 용역을 국내에서 구매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할 때 부가세를 납부한 개인 또는 기업은 90일 이내에 이자 없이 대변전표(credit note), 수표 또는 기타 지급수단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자는 위 기한까지 환급되지 아니한 경우 그 기한 이후부터 인식된다. 수출업자는 부가세 환급신청 이전에 국세청에 등록해야 하며, 국세청은 납세의무자의 법적 대리인의 공식 신고서 제출에 대해 납부된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3) 특별소비세

특별소비세(Impuesto a los consumos especiales, ICE)는 내국세법 제 82조의 규정에 의거, 국내 생산품과 수입물품에 부과된다.

□ 납세주체

-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을 제조하는 개인 및 기업
- 특별소비세 대상 물품을 수입하는 자
- 특별소비세 대상 용역을 제공하는 자

□ 과세표준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의 과세표준은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소매가격에서 부가세와 특별소비세를 뺀 금액으로 하거나 국세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 납세액은 과세표준에 세법이 정한 증가세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시한 소매가격을 근거로 산정된 과세표준은 최소 25%의 추정 판매마진을 적용할 때, 공장도 가격 또는 세관반출 가격의 상승 분 이상이 될 것이다. 만일 제품이 최소 추정 판매마진보다 높은 마진으로 판매되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결정함에 있어 그 차이 이상의 영향이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별소비세가 최소 추정마진을 적용하여 세액산정 및 납부된 경우, 그 제품이 실제에 있어 더 높은 마진을 받고 판매되었다면 이는 탈세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발생한다.

특별소비세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으며, 앞서 언급한 품목에 대해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자가 단 1회 납부하게 된다.

참조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은 다음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다.

- 권장소비자가격(PVP) 기준:
 - 과세표준 = $PVP / ((1 + \text{부가세율}) * (1 + \text{실효 특별소비세율}))$
- 공장도 가격 또는 세관반출 가격 기준:
 - 과세표준 = (공장도 가격 또는 세관반출 가격) * (1 + 25%)

□ 납부시기

특별소비세 대상 제품의 제조업자와 용역제공업자는 매달 전월에 이뤄진 특별소비세 대상 거래를 규정에 정해진 서식과 기한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대외수입의 경우에는 수입신고 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관에서 물품을 인도받기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 대상 품목 및 용역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및 용역은 그룹 I - IV로 구분되며, 그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및 용역 그룹 I

그룹I	특별소비세율(%)
담배, 담배제품 및 담배대용품 (원재료로 담뱃잎을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한 것으로, 피우고, 흡입하고, 씹고, 냄새 맡는 용도의 것)	150
맥주	30
탄산음료	10
알코올 및 알코올 제품(맥주 이외의 것)	40
향수 및 화장수	20
비디오게임	35
소총, 스포츠용 무기 및 탄약(공공목적의 것 제외)	300
백열전구(자동차부품용의 것 제외)	100

자료원: 내국세법

국내시장에서 최고 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담배브랜드에 대해서는 위의 특별소비세가 아닌 별도의 과세제도가 적용된다. 즉, 국세청은 1년에 두 번 담배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최고 판매실적을 나타내는 담배브랜드와 그에 대해 부과할 세액을 결정한다. 또한 최소가격제도를 적용하여, 담배가격은 국내시장에서 최고판매실적을 기록하는 브랜드의 가격과 동일하여야 한다.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및 용역 그룹 II

그룹II	특별소비세율(%)
1. 3.5톤까지의 화물차	-
- 소매가격 20,000US\$까지의 자동차	5
- 소매가격 30,000US\$까지의 픽업, 밴, 트럭 및 구급차	5
- 소매가격 20,000US\$ 초과, 30,000US\$ 이하의 픽업, 밴, 트럭 및 구급차를 제외한 자동차	10
- 소매가격 20,000US\$ 초과, 30,000US\$ 이하의 픽업, 밴, 트럭 및 구급차를 제외한 자동차	15
- 소매가격 40,000US\$ 초과, 50,000US\$ 이하의 자동차	20
- 소매가격 50,000US\$ 초과, 60,000US\$ 이하의 자동차	25
- 소매가격 60,000US\$ 초과, 70,000US\$ 이하의 자동차	30
- 소매가격 70,000US\$ 초과, 80,000US\$ 이하의 자동차	35
2. 항공기, 경비행기, 헬리콥터 (이상 여객 및 화물 상업 운송용의 것 제외), 제트스키, ATV(3륜 및 4륜), 요트 및 유람선	15

자료원: 내국세법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및 용역 그룹 III

그룹 III	특별소비세율(%)
유료 TV 서비스	15
카지노서비스, 도박(빙고, 기계게임), 기타확률게임	35

자료원: 내국세법

특별소비세 대상품목 및 용역 그룹 IV

그룹 IV	특별소비세율(%)
사교클럽 등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수수료, 회비, 가입비 및 기타 유사한 대금으로서 합계액이 연간 1,500US\$를 초과하는 것	35

자료원: 내국세법

□ 특별소비세 신고, 세액산정 및 납부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는 전월 중 이뤄진 특소세 대상 영업내역을 규정에 정해진 방법과 기한 내에 매달 신고하여야 한다.

특소세 납세의무자는 납세대상 총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세금 납부 기한은 신고서 제출 기한과 같다.

대외수입의 경우, 특소세는 수입신고 시에 세액이 결정되며 세관에서 물품이 반출되기 전에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라.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제도

내국인 투자와 외국인 투자는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에서 예외조항을 정한 경우가 아니고는 동일한 세금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에서 정한 인센티브 내용은 이 법의 마지막 부분인 개정조항에 명시되어 있다.

“생산, 통상 및 투자 기본법”이 정하고 있는 조세 인센티브는 다음 3가지이다.

□ 일반

에콰도르 영토 내 모든 지역의 투자에 적용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소득세에서 3% 포인트의 누진적 감면
- 특별경제개발구(ZEDE)를 위한 설비. 단, 해당 구역들은 그 설립기준을 충족해야 함.
- 생산성 개선, 기술혁신 및 환경 친화적 생산을 권장하기 위한 장치로서 소득세 산정에서 추가 공제
- 종업원에게 회사의 자본 공개 시 혜택
- 대외무역에 대한 세금의 납부수단
- 통상급여 외의 추가 지급액에 대한 소득세 공제
- 해외 자금조달에 대한 외화유출세 면제
- 모든 신규투자에 대한 5년간의 소득세 사전 면제
- 소득세 산정의 변경

□ 산업 및 지역균형개발

에너지 구조 개선, 수입의 전략적 대체, 수출촉진, 전국의 농촌환경 개선, 제 2차 개정조항에 명시된 도시지역 등에 대해서는 투자장려를 위해 신규 투자 시 5년간 소득세 전액을 면제

□ 침체지역

이상의 혜택 이외에, 침체지역에 투자 시에는 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비용의 100%를 5년간 세금에서 추가로 공제

16. 금융제도

가. 금융제도 개요

에콰도르 금융 시스템은 시중은행, 협동조합은행, 상호저축은행, 금융공사, 공공기관, 신용카드사, 역외 금융그룹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별 금융기관

기관명	화동기관수
일반보세창고	4
역외은행	2
외국민간은행	2
국내민간은행	24
신용정보회사	2
환전소	1
저축신용연맹	41
해외영업법인	7
금융그룹	17
공공금융기관	8
상호법인	4
외국은행대표사무소	6
금융공사	10
신용카드회사	2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으로는 중앙은행, 예금보증공사, 주 은행, 은행감독원, 증권감독원 등이 있다. 이들 기관은 모두 “금융시스템 총괄법”(Ley General de Instituciones del Sistema Financiero) 및 부속법령에 의거, 업무를 수행한다.

“금융시스템총괄법”은 공공이익 보호를 위한 금융시스템의 감독 및 통제의 책임을 맡은 은행감독원의 조직 및 의무뿐 아니라 민간금융기관의 조직, 활동, 영업 및 소멸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서 이 감독기능은 “감독원(la Superintendencia)으로 불리고 있다.

보험회사 및 재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공공금융기관은 자체규정에 의거, 조직, 활동 및 영업 등을 수행한다. 그러나,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감찰, 재정운용의 신중성 및 지불능력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은행감독원은 강제적 청산에 관해서도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판명되면 동 현행법령의 규정들을 적용할 것이다.

일반 보세창고, 리스회사, 신용카드사, 환전소, 보증회사, 제 2모기지 시장 개발공사 등 금융서비스기관뿐만 아니라 주택신용 상호저축 조합들도 독자 규정에 의해 업무를 수행하되 그 법적 성격에 따라 은행감독원의 감찰, 재정운용의 신중성 및 지불능력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해서는 현행법의 적용을 받는다.

금융시스템의 보조 서비스 기관, 즉 증권 및 현금 수송, 추심, ATMS, 회계 및 컴퓨터시스템, 수출촉진, 부동산 등 관련기관과 금융기관 및 규제기관의 사무실 전용자산의 소유자 그리고 은행감독원이 감독권을 가지고 권리의 침해 없이 인가한 기타기관들은 은행감독원이 이들 기관에 전체적으로 적용코자 제정한 규정에 따라 감독을 하게 된다.

은행, 금융회사 또는 투자 및 개발회사, 주택신용저축조합 등은 “금융시스템총괄법”에 따라 설립된다. 은행, 금융회사 또는 투자 및 개발회사는 공중으로부터 예금 등의 형식으로 자금을 모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출 및 투자에 사용하는 것을 통상업무로 하는 금융시장의 중개 역할을 주로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주택신용저축조합은 공중의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주택, 건설 및 가족복지 등에 용자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이다. 이는 그들의 자산 구성에서 확실히 구분된다.

17. 외환제도 및 자금조달

가. 국제신용공조 및 다자간 금융협정

최근 에콰도르 정부는 전략적 산업 부문과 관련된 계약들을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를 들어, 전기부문에 “차침비로 지열발전” 프로젝트의 금융지원을 위한 일본과의 초기협약이 체결되었고, 중국으로부터는 수력발전 68금융시스템총괄법 및 관개시스템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유자를 획득하였다. 또한 에콰도르는 안데스개발공사(CAF), 미주개발은행(BID) 등 국제금융기관과의 국제신용 공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국제신용 공조와 관련, 에콰도르는 “에콰도르 금융공사”(CFN), “에콰도르 개발은행”(BNF) 등 금융프로젝트 중심의 몇몇 금융기관에 의존하고 있다.

“에콰도르 개발은행”(BNF)은 70여 년 전 “에콰도르 모기지은행”으로 설립되었는데 그 동안 수차례 구조조정을 거쳐 1974년 3월 28일 “에콰도르 개발은행법”의 제정과 함께 지금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이 법령은 BNF에 경제적, 재정적, 기술적 독립성을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나, 이 은행은 90년대 경기침체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었고 농업부문에 대한 금융활동을 차단하는 정치적 방해로 겪기도 하여 청산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CFN은 자치권과 법적 권한을 가지고 1964년 설립된 공공금융기관이다. 이 은행의 목적은 에콰도르의 산업을 진흥시키는 것으로서 에콰도르의 경제 각부문의 중대한 변혁을 지원하는 것이 주된 역할이다. 기업법 시행, 키토 및 과야킬의 증권시장의 기업감독원 설립, 수출촉진기금(FOPEX), 안데스개발공사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나. 자본의 본국 송금, 외환통제 및 해외수취·지급 규정

1) 외화유출세(El Impuesto a la Salida de Divisas, ISD)

이는 금융시스템을 통합하는 기관의 개입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서 이뤄진 모든 영업 및 자금거래의 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ISD라고도 불리는 이 세금의 세율은 5%이다.

ISD는 개인, 민간, 공공, 내국인, 외국인을 불문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고객이 외화를 해외송금할 경우 금융기관(IFI)이 세금을 징수하며, 중앙은행(BCE)은 지불명령서(환)에 의한 해외송금 및 IFI를 대리한 해외송금 시세금을 징수한다. 해외로 외화를 반출하는 택배운송회사는 고객의 요청으로 금전을 외국으로 보낼 때 세금을 징수한다. 다만, “외교·영사·국제기구 면책법” 등 국제협정 및 상호면제 시스템에 의해 합당한 인가를 받은 국가기관, 공기업, 국제기구 및 외국인사무소 등은 외화를 해외로 송금, 탁송, 반출 시 외화유출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외화유출세는 해외에서 이뤄진 모든 금전적 영업 및 거래의 금액에 대해 부과되는데, 이에는 금융기관의 개입여부를 따지지 않으며 해외로부터의 물품수입을 위해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외화유출세를 징수하는 기관은 고객들이 “금융기관 또는 택배운송사를 통한 외화유출세 과세대상 거래신고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세금을 납부토록 해야 한다.

내국인 또는 외국인이 출국 시 현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개인소득세 감면기본구간 (9.210US\$)까지 외화유출세를 면제한다. 그러나, 이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신청서 106호 양식의 세금코드란에 코드 4580을 기재하여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에콰도르 세관공사는 개인의 출국 시 ISD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은 1,000 USD까지의 송금은 ISD를 면제하며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단, 그 지급액은 해당규제기관이 인가한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어야 한다.

“생산, 통상 및 투자기본법”에 규정된 개발투자를 위해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차입한 금액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해서도 ISD는 면제된다. 이들 거래의 금리는 등록시점의 기준금리보다 낮아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은 조세피난처 또는 법정 저세율 지역에 설립되거나 주소를 둔 금융기관들에 의해 양허된 차입 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한다.

ISD를 면제받은 외화가 금융기관 또는 택배 운송사를 통해 해외로 송금될 경우, 그 지급인은 신청서 양식에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화유출세 면제 거래신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ISD를 징수 또는 수납하는 기관은, 송금 및 자금이동과 관련된 세금과 함께 고객으로부터 징수 또는 수납한 세금을,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도록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여야 한다. 동 신고는 신고서 제 109호 양식을 사용하여 인터넷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개인이 외화를 금융기관이나 택배 운송사를 경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 및 탁송하는 경우는, 신고서 제 106호 양식에 세금코드 4580을 기재하여 송금 및 탁송이 행해진 날로부터 최대 2일 내에, 신고접수 관할기관에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한다.

소포 또는 봉인된 봉투가 택배 운송사 또는 특급우편회사를 통해 발송되는 경우, 이 회사들은 외화가 발송되고 있지 않다는 신고서를 고객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이 외화유출세 신고서는 소포 및 봉투가 해외로 발송될 때 필수적인 구비서류이다.

고객의 요청을 받아 외화를 해외로 송금하기 위해, 다른 ISD 징수 및 수납기관을 이용하는 금융기관 및 택배 운송사는 “IFI 및 택배운송사의 외화송금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에콰도르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기업이 외국으로부터의 수입 또는 수입상품의 거래를 하면서, 그에 대한 대금지급이 외국에서 이뤄지는 경우도, 외화가 유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외화유출세가 부과된다.

에콰도르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내국인, 외국인, 내국기업 및 외국기업들의 모든 대외 수입은, 그 대금지급이 송금 등의 방법으로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에 예치된 수입업자 또는 제 3자의 자금에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에콰도르의 과세대상 재원으로 그 대금이 지급되었다고 간주한다.

이 같은 가정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규정들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한다.

- 소비재 수입에 대한 대금지급에 있어, 세금은 수입상품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에콰도르로 변경되는 순간 부과된다.
- 특별관세제도에 있어, 세금은 소비영역으로 이동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단, 보세창고 및 판매용 저장품에 대해서는 특별제도의 신고를 하는 순간 발생한다.
- 수입관세의 적용을 받는 국제우편 또는 특급우편 등 예외적인 경우, 외화유출세는 카테고리 A, B, E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카테고리 C, D, F에 있어 세금은 소유권이 외국에서 에콰도르로 변경되는 순간에 발생한다.
- “여행자비면세수하물”로 분류되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에콰도르 국내로 반입되었음을 인지하는 지점은 국제여객 대합실에서부터이며 외화유출세는 발생하지 않는다.

판매용 수입상품에 대한 대금이 전부 또는 일부 외국으로부터 지급된 경우, 해외지급분에 대한 외화유출세가 해당 물품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에콰도르로 변경된 날짜에 신고 및 납부되어야 한다, 수입업자는 신청서 제 106호 양식에 세금코드 4580을 기재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세금이 위 날짜에 납부되지 아니한 경우, 납세준칙(Codigo Tributario)에 정해진 소정의 이자가 발생한다.

V. Business 참고정보

1. 물가정보

구분	항목	가격(US\$)
식품류	쌀 1kg	\$1.20
	계란 12개	\$1.80
	쇠고기 등심 1kg	\$6.80
	돼지고기 등심 1kg	\$9.00
	우유 500ml	\$1.45
	식용유 1L	\$1.80
	생수 1L	\$1.00
	맥주 (국산 필세네르 355cc, 6팩)	\$6.50
	담배 1갑 (말보로)	\$4.00
	햄버거 (맥도날드 빅맥)	\$5.05
	김치찌개 1인분	\$10.00
의료비	의료보험비 (4인 가족, 초과제외 Full Cover 1년) - 의료보험 x	\$220.00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X, 몸살감기 내과초진)	\$50.00
차량관련	중형승용차 (2000cc신차, 오토, 에어컨포함 기본사양)	\$24,000.00
	무연휘발유 1G(Gallon, 3.8L)	\$2.00
	자동차 등록비	\$410.00
	자동차보험료(2000cc신차,운전경력 10년,대인/대물커버,1년)	\$850.00
교통비	도심 1시간 주차료	\$0.80
	시내버스 기본요금	\$0.25
	택시 기본요금	\$1.00
	시내전화 요금 (1분)	\$0.02
통신	국제전화 요금 (1분, 한국으로 걸 때)	\$0.70
	휴대전화 요금 (월 표준 1분)	\$0.28
	인터넷 월 사용료 (ADSL 기준)	\$30.24
주택	아파트 월 임차료 (1Bedroom, 키토 평균, 2012.12월 기준)	\$250.00
교육	외국인학교 초등 1년 수업료 (중급) - 사립	\$2,880.00
	외국인학교 중고등 1년 수업료 (중급) - 사립	\$3,600.00
숙박	특급호텔(5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스탠다드) - Swissotel 기준	\$225.00
	중급호텔(4성급) 1박 정상요금(싱글/스탠다드) - Hotelquito 기준	\$158.60

구분	항목	가격(US\$)
임금/노무	대졸초임(중상급대졸, 영어구사, 외국인회사) 초임 월급여	\$800.00
	일반 사무직(학력무관)	\$1,000.00
	매너저급 급여 (프로젝트 매니저, IT)	\$1,500.00
	주당 법정근무시간	40시간
	출산휴가일수	3개월
	연간 국경일수 - bank holiday 기준	11일
	주5일 근무 여부	0
기타	드라이클리닝 (정장 1벌 기준)	\$7.15

2. 취업유망분야 및 유의사항

가. 주재국의 제도적 여건

에콰도르의 한국인 인력수요는 한국투자진출기업이 압도적이다.

에콰도르의 비교적 낮은 임금체계를 고려할 때 에콰도르기업이 한국인을 채용하는 것은 수요를 찾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현지인 대졸 초임 US\$ 900 ~ US\$ 1,000 수준이나 스페인어 능통 한국인 직원의 경우 초임 기준 US\$ 2,500 ~ US\$ 3,000 수준이다.

무역관이 한국진출기업에 대한 취업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현지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없다. 또한, 취업비자의 경우, 주한에콰도르대사관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하고 입국 후 갱신할 경우에 제도적인 어려움은 없다.

나. 한국인들의 취업유망분야(직종) 및 사유

한국진출기업은 현지에서 3~4년의 프로젝트(건설, IT 등) 수행에 필요한 서반아어 능통자를 선호한다.

현지에 교포인력도 있으나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한국어 문서작업이 불가능하여 현지 진출기업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

다. 유의사항

한국진출기업에 대한 정보 조사 및 신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간혹 유명회사나 사기를 위한 모집광고도 있다.

일반적으로 현지인과 만나고 생활하기에 영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서반아어를 할 수 있어야 한다.

3. 비즈니스 에티켓

가. 개요

에콰도르에서는 키토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산간 지역과 과야킬을 중심으로 한 해안 지역 사이에 지역적, 문화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유념하는 것이 비즈니스 수행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키토 지역의 사업가는 사회적인 엘리트로서 더 보수적이고, 공식적이며 거래에 있어 신중하다. 과야킬 지역의 사업가들은 더 기업가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에 비교적 열려 있는 편이며,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전반적으로 남성과 여성에 차별을 두지 않는 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에콰도르 사람들은 비교적 공손하고 매너가 좋은 편이다. 만나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을 경우 이름 앞에 doctor(독토르), economista(에코노미스타), Ingeniero(잉헤니에로) 등의 타이틀을 사용하여 공손함을 나타내는 것이 흔한 관례이다.

에콰도르에서 의사결정은 일반규정이나 논리적 원칙에 의해서 보다는 주로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내려진다. 더구나 에콰도르의 거래협상 담당자들은 쉽게 자신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에콰도르인들은 법적인 목적의 서류에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두 개의 성(姓)을 모두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며 단순히 소개할 경우는 아버지의 성만 사용한다. 사업설명을 하는 경우는 구체적인 데이터와 수치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하며 모든 결정을 내리기 전 반드시 사업의 수익성을 검토한다.

1) 사업적 만남

에콰도르의 상관습은 다른 중남미 국가들과 비슷하다. 비즈니스 관계에 있어서 공식적이다. 비즈니스 미팅은 사무실이나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지며,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제의가 들어온다면 그 파트너와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생각해도 좋다.

사업적 만남은 에콰도르 사람들의 정확하지 않은 시간 관념 때문에 약속했던 시간보다 15분~20분 정도 늦어지는 경향이 있지만, 외국 사업가에 대해서는 시간 엄수를 한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 본인 측에서 15분~20분 정도 늦는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지 않는 사람이 많으므로 불쾌해하지 않는 것이 좋다.

만남 시 비즈니스 주제에 앞서 짧은 일상적인 대화를 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권장된다. 에콰도르인들은 비교적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편으로, 에콰도르인이 선호하는 대화의 주제는 갈라파고스 등 에콰도르 자연경관, 키토의 식민지시대 건축물, 아마존 열대우림 등이며 국민적 인기 스포츠인 축구도 좋은 대화의 소재이다. 종교나 정치적 이슈에 관한 이야기는 권장되지 않는다. 비즈니스 주제와 관련된 대화 중에도 코멘트를 달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연관 있는 개인적인 경험 등에 대해 이야기할 때가 많다. 보통 약속은 2주쯤 전에 잡고, 3일~4일 이전에 확약하면 좋다.

에콰도르 가정을 방문할 때에는 꽃이나 와인 등의 선물을 준비하면 좋다. (꽃의 경우 백합은 주지 않도록 함) 선물의 가격은 US\$25-\$50 정도가 적당하다. 저녁에 초대받았을 경우 감사의 카드를 주는 것도 좋다.

점심은 보통 오후 1시-2시, 저녁은 오후 7:30-8시에 한다. 식사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떠나는 것은 예의 없는 행동이고 식사가 끝난 후에는 관습적으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식사 도중에 여성들이 자리를 뜨거나 돌아 올 때 남성들이 일어나는 관습이 있기도 하다.

2) 언어

스페인어와 부족 언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키추아(Quichua)가 에콰도르의 공식 언어이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영어를 사용할 줄 알지만, 좋은 거래 관계를 위해서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이것이 여의치 않다면 카탈로그 등의 홍보 자료라도 스페인어로 준비하는 것이 좋다.

3) 복장

산간 지역에서는 정장 차림을 제대로 갖추는 것이 좋고 해안 지역에서는 더 캐주얼한 복장도 흔하다. 금기시되는 색깔의 옷은 없으며, 여성의 경우 너무 드러내는 옷은 입지 않도록 한다.

4) 협상

에콰도르에서 사업을 할 때, 특히 키토에서는, 좋은 거래 상대와 연락선이 닿는 것이 매우 중요하나 쉽지 않다. 지역 회사의 도움이 없이는 거래선을 얻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수출-수입 에이전시나 로펌이 이 과정에서 유용할 수 있다.

협상에 있어서는 끈기를 가질 필요가 있다. 처음에는 열정적이지 않다가도 설득에 마음을 여는 에콰도르인들이 많다. 또한 사업적인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사적으로 친해지는 것이 성공적인 협상에 도움이 되며, 협상팀의 사람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다. 협상을 할 때에는 카운터-딜이나 심지어 물물 교환 등 자신이 원하는 바에 대한 반대 급부를 언제든지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시장 점유율을 획득하기 위해 “loss leaders”(특수한 목적을 위해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파는 것)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협상은 다소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의사결정은 고위급 간부가 하게 된다. 따라서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에콰도르인들은 계약이 상대방을 대표하는 회사와 체결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협상 당사자 개인과 체결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중간에 계약협상팀을 바꾸는 것은

계약의 지연 또는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결코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

5) 제스처

에콰도르 사람들은 개인 간의 거리가 상당히 가까운 편이며, 적절한 수준의 스킨십은 불쾌해한다기보다 친근감의 표현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주장할 때 상대방의 팔에 손을 놓는다거나 하는 행위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사적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친근한 등 쓰다듬을 받았다면 인정을 표현한 것이며, 포옹을 받을 수도 있다. 이야기할 때 제스처가 없다고 해서 부적당하거나 불쾌하게 여기지 않는다.

남자들이 처음 인사를 할 때는 악수를 하는 것이 보통이며 여자들은 첫인사 시 악수를 하고 이미 구면인 경우는 볼에 키스를 하는 관습이 있다.

4. 이주정착 가이드

가. 사증 및 노동 허가

일반여권 소지자는 관광 등의 단순 체류 목적이면 3개월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하다.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체결로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근무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하며, 관용여권 소지자는 3개월 체류가 가능하다.

1) 영주권

- 명칭: Cedula de Identidad (카드 형태로 발급)
- 유효기간: 12년
- 신청자격: 에콰도르의 해외공관에서 발행한 유효한 이민사증을 소지하여야 함. 일반 여권 소지자는 3개월 간 무비자 체류가 가능함에 따라 입국 후 이민사증으로 체류자격 변경 후 신청 가능
- 수속절차
 - 이민사증 소지자
 - 에콰도르 입국 30일 내에 이민청에 사증등록
 - 사증 유효기간 내에 이민사증 종류에 따른 관계서류 구비, 이민청에 제출(이민사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9-III의 경우, 투자자본금 \$30,000 이상의 회사설립, 사업자등록증 등 요구)
 - 이민청장 명의의 신분증(Cedula) 발행 허가서를 Departamento de Cedulacion에 제출, Cedula 수령 (통상 입국 후 2-3개월 걸림)
 - 무비자 입국자
 - 에콰도르 입국 후, 이민사증으로의 체류자격 변경을 위해, 거주외국인관리국 (Direccion General de Extranjeria)에 이민사증 신청서류 구비 후 신청
 - 이민사증 발급 후의 절차는 상기 이민사증 소지자의 경우와 동일
- 효력상실 사유
 - 외국인 소지 영주권은 사증이 무효화되면 그 효력이 자동 상실
 -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90일, 둘째 해 90일, 2년 후 18개월 이상을 외국에 체재할 경우에는 사증이 무효화
- 부활절차: 없음(최초의 신청절차와 동일)
- 반납제도: 특별한 효력의 자동상실 요건 이외에 반납제도 없음.
- 영주권자 국외체재 허용기간: 영주권 취득 후 첫 해 90일, 둘째 해 90일, 2년 후 18개월 미만
- 재입국 허가제도: 별도 사항 없음.
- 법적 지위 및 복지혜택 등: 선거권 및 복지혜택 부여제도 없음.

나. 주택 및 사무실 임차

주택, 사무실 및 창고 등을 임차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소유자를 접촉해야 하고 그 사람이 실제 소유자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임대차 계약서의 서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임차료 금액, 지급일, 임차기간, 보증금 등을 정해야 하며, 특히 가구 및 가재도구가 비치된 상태로 임차하는 경우는 그 상태를 일일이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어 두는 것이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서에 대한 공증료는 임차인의 부담이며, 이러한 공증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의 결정권은 쌍방 모두에게 있다.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이며 연장될 수 있다. 보증금은 1개월 내지 2개월 치의 임대료 수준이다. 계약서의 서명은 부동산의 법적 소유권자와 직접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부동산중개업소는 임대인에게 1개월치의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개수수료로 부과한다.

다. 이사 화물

- 전기 및 전자제품
 - TV는 NTSC 방식 사용(한국과 동일), 2020년 디지털 방식으로 완전 전환 예정 (브라질-일본 공동개발 방식)
 - 전기는 주로 110V, 60Hz이나 신축 아파트 등에는 220V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비되어 있음.
 - 한국 가전 제품은 전부 사용 가능하나, 전압의 차이로 변압기가 필요하므로 2~3개 정도 가져 오는 것이 좋음.
- 가구, 비품 및 장식품
 - 가구가 완비된 주택은 구하기 어렵고 가격도 비싼 편임.
 - 가구 운송비용은 가구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운송비 감안 시 현지구입 유리
- 자동차
 - 수도 Quito시내 주요도로는 포장되어 있으나 유지 보수 미비로 파인 곳이 많으며 시외에는 비포장 도로가 많아 승용차보다는 SUV 차량이 적합함.
 - 자동차에 대한 제세금은 40-60% 정도로 판매 이윤을 고려하면 현지 판매가는 공장도가의 2배 정도로 고가임.
- 기타 필요 물품
 - 압력밥솥, 전기담요(최소 2개-3개)
 - 수도 Quito는 연중 7°C ~ 25°C를 유지하나 겨울철이나 아침, 저녁으로 쌀쌀함에도 주택에 벽난로 외에는 난방시설이 되어있지 않아 많은 외국인들은 전기담요를 사용하기도 함.

- 이사회물 및 탁송
 - 에콰도르 항구 도착 후에도 화물 인도까지는 상당한 시일(약 3~5주)이 소요되고 있으며 Door to Door가 편리함.
 - 이사회물은 대개 과야킬 항구에 도착하며, 인수는 대개 도착 후 30일(약 3~5주)일 정도 소요됨. 선적서류(선하증권 등) 수령 후 세관에서 면세 통관 승인을 받아 통관을 하게 되며 선적 서류를 미리 받아 절차를 진행하면 화물 도착 후 2주 이내에 수령 가능
 - 통관을 위해 선하증권(B/L), 여권사본 등 필요

라. 식품

소형 한국 식품점과 중국 가게 등에서 수량은 많지 않으나 기초적인 배추, 무 등의 야채 구입이 가능하다. 떡도 구입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식품은 현지 구입이 어려우므로 한국, 또는 미국에서 구입해 오는 것이 좋다.

마. 각종 증명서

- 운전면허증
 - 한-에콰도르 운전면허협정 발효로 교환발급가능
 - 보험가입 시 무사고 운전 증명은 필요치 않음.
- 자녀 입학 관련 서류
 - 여권 사본, 학교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 입학신청서, 예방접종 증명서
- 이사회물 관련 서류
 - 선하증권(B/L)등 선적관련 서류, 여권사본, 신분증 사본

바. 의료

현지 의료 수준이 한국에 비하여 낙후되어 있어 일반 진료는 문제가 없으나 중요한 수술 및 치료는 가급적 한국에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현지 치료비는 상당히 비싼 편이며 필수 의약품은 한국에서 준비해 오는 것이 좋다. 특히 소화제, 감기약(어린이 감기약) 등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응급 치료 시 치료비 지급보증이 없으면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신용카드 또는 SOS 사전 가입이 권장된다.

사. 교민 현황

총 1,000명 정도로 수도인 Quito에 800명, Guayaquil에 200명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80%가 의류 판매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기타 제조업, 자동차 관련업 등에 종사하기도 한다.

아. 교육

초등학교 6년(의무, 무상), 중등학교 6년이며 대학 교육은 4-6년이다. 학기 시작은 8월부터이며, 1학기는 9-12월, 2학기는 3-8월이다.

국제학교 현황(2010-11년 학기 기준)

(단위: US\$)

학교명	학년제	순수수업료	등록금	기여금	부대비용
Cotopaxi	유치원	12,611	(연)475	4,000	-부대비용: 연 800불 이상 (통학교통비, 중식비 등) -입학신청료: 연 300불
	1-6(초)	13,966			
	7-12(중/고)	16,586			
Allianza	유치원	6,140	(연) 270		-부대비용: 연 800불 이상 -입학신청료: 연 110불
	1-6 (초)	7,820			
	7-8 (중) 9-12 (고)	8,390 8,925			
American School of Quito	유치원	6,804	(연) 378	750	-부대비용: 연 1500불 이상 -입학신청료: 연 140불
	1-6 (초)	10,044			
	7-12(중/고)	10,380			

자료원: 주에콰도르 한국대사관

- 학교 선정 시 참고사항
 - Cotopaxi는 미국계, Allianza는 기독교 계통 미국계 학교, American School of Quito는 현지 학교이며, 그 외 독일, 프랑스계 학교도 있음.
- 입학절차
 - 학교 카운슬러가 학생을 면담. 어학 및 수학 테스트 후 입학
- 필요 서류
 - 재학증명, 성적증명, 예방접종 및 건강기록카드, 학교입학서 양식(모두 스페인어 번역본 필요)

5. 생활여건

가. 기후

1) 에콰도르 날씨

에콰도르에서는 독특한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다양한 기후대를 만날 수 있다.

- 해안지역: 연중 25-31°C 의 기온을 유지하며 건기와 우기의 두 계절이 있다. 12월-5 월의 우기에는 습하고 더우며 나머지 기간은 건기이다.
- 고산지역: 고도에 따라 기후가 다양하다. 연중 아열대 기후를 나타내 고도가 높은 지역은 춥고 인구밀집 지역의 기온은 13-18°C이다.
- 아마존지역: 대체로 습기와 비가 많고 기온은 23-26°C 를 유지한다. 10월-12월 중에는 건기가 된다.
- 갈라파고스지역: 23-32°C 의 건조한 기후이며 연평균 기온은 25°C 이다.

2) 의복

- 고산지역: 따뜻한 의상이 필요함. 야간에는 두툼지 않은 코트
- 해안지역: 해안지역, 갈라파고스, 아마존 지역은 모두 가벼운 옷차림이 좋음.

의복은 현지 가격이 비싸지 않으나 기술 낙후로 제품이 좋지 않아 한국산 의류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여성의 경우 행사용 한복 준비를 가져가면 좋다. 가급적 국내에서 양말, 화장품, 구두, 양복, 와이셔츠, 안경 등의 주요 공산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나. 시차 및 근무시간

한국과의 시차는 -14시간이다. (뉴욕과 동일 시간대)

근무시간

일반기업	09:00 - 13:00, 14:00 - 18:00	월-금
	09:00 - 14:00	토요일
은행	08:30 - 17:00 (Bosque 은행은 19시까지)	월-금
	09:00 - 14:00 (Bosque 은행은 16시까지)	토요일
박물관	09:00 - 17:00	화-금
관공서	08:30 - 16:30	월-금

백화점	09:00 - 20:30	매일
일반 상점	09:00 - 19:00	월-금
	09:00 - 13:00	토
	토요일과 동일하거나 휴무하는 업체가 많음	일

자료원: Andean Community Routes: Virtual Touristic Routes, 주 에콰도르 한국대사관

다. 교통 및 통신

1) 교통

□ 대중교통

- 도시버스
 - 대도시에서는 버스를 타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버스요금은 매우 저렴하며 아침 5시 30분부터 운행을 시작한다. 그러나 저녁에는 10시 이전에 운행을 종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 트롤리
 - 에콰도르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운송수단이다. 버스 2대를 연결하여 도로 중앙의 독립된 길과 정해진 정류장을 이동하는 트롤리는 요금이 25센트로 저렴하나 출퇴근 시간에는 다소 붐빌 수 있다. 키토와 과야quil에서만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고 운행시간은 아침 6시부터 저녁 12시까지이다.
- 택시
 - 에콰도르에서 택시는 여행자의 중요한 운송수단이다. 택시요금은 미터기에 따라 계산되지만 평균거리 운행시 1.5 내지 2달러의 요금이 부과되며 야간에는 2내지 3달러이다. 야간에는 무선호출 시스템을 갖춘 택시회사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여행자가 전화를 하면 늦어도 5분 이내에 요청한 장소로 택시를 보내준다. 추가요금은 택시회사에 따라 없는 경우도 있으나 대체로 1달러이다. 택시호출서비스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 시외버스
 - 버스는 에콰도르 내 여행에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 교통수단이다. 버스를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타면 어느 곳에든 갈 수 있다. 급행버스는 중간 정류장 없이 바로 목적지까지 운행하며 화장실, TV, 뒤로 젖혀지는 의자 등 최신설비를 갖춘 버스들이 많이 보급되고 있다. 시외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도시의 시외버스 터미널로 가야 하는데 터미널에는 수많은 목적지로 가는 버스들이 있으며 일부 목적지로 가는 버스는 별도의 터미널을 갖춘 경우도 있다. 배차시간은 목적지 별로 각각 다르나 운행 서비스는 24 시간 계속된다.

- 철도
 - 에콰도르에 철도서비스가 있긴 하지만 운송수단으로서보다는 관광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안데스 산맥과 많은 강줄기로 인해 철도운송에는 지형이 적합하지 않아서 긴급한 물자 및 여객 수송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고풍스럽고 느린 관광열차로 에콰도르의 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행사를 통하면 이러한 관광열차를 통한 여행 프로그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보트, 모터보트, 카누 등
 - 아마존 지역에는 소형 모터 보트나 카누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도시나 마을들이 많이 있다. 요금은 거리 및 목적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출발 전에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다.

□ 차량 렌탈

- Carmax 과야quil: (04) 239 8305
- Avis 키토: (02) 225 9333 / 과야quil: (04) 239 5236 / 꾸엥가: (07) 286 0174
- Drive 키토: (02) 292 3641

2) 통신

- 전화: 국가코드 593 + 지역코드 + 전화번호

22개 지역별 코드는 다음과 같다. Azuay (07), Bolivar (03), Carchi (06), Canar(07), Chimborazo (03), Cotopaxi (03), El Oro (07), Esmeraldas (06), Galapagos (05), Guayas (04), Imbabura (06), Loja (07), Los Rios (05), Manabi (05), Morona (07), Napo (06), Orellana (06), Pastaza (03), Pichincha (02), Sucumbios (06), Tungurahua (03), Zamora (07)

국외에서 에콰도르로 전화할 때는 지역코드 맨 앞의 0은 생략한다. 예를 들어 피친차의 507560에 전화할 때 593 2 507560을 누르면 된다. 그러나 에콰도르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화할 때는 0을 눌러야 한다.

에콰도르 3 개 주요도시의 지역코드는 Quito (02), Guayaquil (04), Cuenca(07) 등이다.

- 공공 통신사
 - 에콰도르 통신공사(CNT): 국영 통신사이다.
 - 홈페이지 <http://www.cnt.com.ec/index.php>
 - 알레그로: 알레그로는 에콰도르 정부인가를 받은 무선통신 서비스 회사 "TELECSA"의 상표명이다.
 - 홈페이지 <http://www.alegro.com.ec/>

- 민간 통신사
 - 클라로(Claro): 홈페이지 <http://www.claro.com.ec/portal/ec/>
 - 무선서비스: CONECEL S.A.에서 지원
 - 유선서비스: Ecuadortelecom S.A.가 수행
 - 모비스타(Movistar): 홈페이지 <http://www.movistar.com.ec/site/>
 - 남미모바일: 홈페이지 <http://www.ecuacel.net/sms/ecuador/>

3) 인터넷

도시지역에서 인터넷은 매우 보편화되어 있다. 대부분의 상업지역 및 관광지에는 매우 합리적 가격으로 인터넷에 접속하여 인터넷 전화, 이메일, 팩스 서비스 등을 사용할 수 있는 수백 군데의 인터넷 카페가 영업하고 있다. 컴퓨터는 시간당 사용료를 부과하고 지역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인터넷은 매우 급속히 보급되고 있어 도심지뿐만 아니라 이웃마을로 확산되고 있다.

라. 화폐 및 환율

에콰도르의 화폐는 남미에서 가장 많은 논란을 일으킨 사안 중의 하나이다. 이는 에콰도르가 지난 2000년에 미국 달러화를 자국통화로 하는 달러화를 단행하였기 때문인데, 그 후 많은 변화가 뒤따르게 되었다.

1884년부터 법정통화로 사용된 수크레화(Sucre, S/, ECS)는 2000년 1월 9일, 1USD당 25,000수크레의 환율에 의해 미국달러화로 전면 교체되었다. 따라서 현재 에콰도르에서 통용되는 화폐는 미국의 달러화로서, 지폐는 100달러권, 50달러권, 20달러권, 10달러권, 5달러권, 1달러권이 있으며 동전으로 1달러, 50센트, 25센트, 10센트, 5센트, 1센트가 있다.

6. 취항정보

가. 국제항공

한국과의 직항로는 없으며, 국제항공편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 아메리칸 에어라인(American Airlines)
 - Miami - Quito, 1 일 2 편: 16:45 -20:50, 18:45- 22:50.
 - Miami - Guayaquil, 1 일 1 편: 19:02 - 23:12
- 에어 마드리드(Air Madrid)
 - Madrid - Quito, 주 2 편: 화요일, 토요일
- 아비앙까(Avianca)
 - Bogota - Quito, 1 일 3 편: 09:05, 17:10, 22:00
 - Bogota - Guayaquil, 1 일 1 편: 22:00
- 컨티넨탈(Continental)
 - Houston - Quito, 1 일 1 편: 17:00
 - Houston -Guayaquil, 주 2 편: 목요일, 토요일
- 이베리아(Iberia)
 - Madrid - Quito, 1 일 1 편: 18:30
- 산타 바바라(Santa Barbara)
 - Caracas - Quito, 1 일 1 편(성수기), 월, 화, 목, 토(비수기)
- 케엘엠-에어 프랑스(KLM - Air France)
 - Amsterdam - Quito 주 4 편: 월, 화, 목, 토
 - Paris - Bogota - Quito, 1 일 1 편
- 루프트한자(Lufthansa)
 - Frankfurt - Guayaquil, Quito (보고타 및 카라카스 경유) , 1 일 1 편.
- 따메(TAME)
 - Cali - Quito, 주 3 편: 월, 수, 금
 - Buenos Aires - Quito, 1일 1편
 - Sao Paulo - Quito, 주 3편

- 쿠바항공(Cubana de Aviacion)
- Habana - Bogota- Quito, 주 1 또는 2 편

- AeroMexico
- Mexico City - Quito, 1일 1회

국제 공항으로는 과야킬의 호세 호아킨 데 올메도 공항(Jose Joaquin de Olmedo), 키토의 마리스칼 수끄레 공항(Mariscal Sucre)이 있다.

나. 국내항공

에콰도르 국내 주요 도시를 운항하는 항공사는 다음 7 개 항공사가 있다.

- AEROGAL, ATESA, ICARO, SAEREO, TAME, VIPSA, LAN

국내 공항은 다음과 같다.

- 마리스칼 라마르 공항(Mariscal Lamar), 꾸엥까
- 나씨오날레스 루이스 아 만띠야 공항(Nacionales Luis A. Mantilla), 툄칸
- 꼬토팍시 공항(Cotopaxi), 라따공가
- 침보라소(chimborazo), 리오밤바
- 헤네랄 마누엘 세라노(General Manuel Serrano), 마찰라
- 헤네랄리바데네이라(General Rivadeneira), 에스메랄다스
- 발트라(Baltra), 갈라파고스 발트라섬
- 산 크리스토폴(San Cristobal), 갈라파고스 산 크리스토폴섬
- 아따우알빠(Atahualpa), 이바라
- 까밀로 폰세 엔리께스(Camilo Ponce Enriquez), 로하
- 레알레스 따마린도(Reales Tamarindo), 보르도비에호
- 엘로이 알파로(Eloy Alfaro), 만파
- 로스 페랄레스(Los Perales), 바이아 데 까라께스
- 에드문도 까바할(Edmundo Carvajal), 마까스
- 프란시스코 에 오레야나(Francisco de Orellana), 꼬까
- 리오 아마소나스(Rio Amazonas), 뿌요
- 라고 아그리오(Lago Agrio), 라고 아그리오
- 갈로 데 라 토레(Galo de la Torre), 떼나

7. 출입국 및 비자제도

입국 절차	
여권 및 비자	여권심사 시 에콰도르 내 체류기간을 고려하여야 함. 모든 여권은 방문자의 체류기간 동안 유효하여야 함.
	모든 이민 및 비이민 방문자는 도착 후 30일 내에 외교부(Ministerio de Relaciones Exteriores)와 일반이주관리국(Dirección General de Migración)에 등록하여야 한다.
여권 필요 (다음제외)	1. 에콰도르-콜롬비아간 국제항공권을 제시하는 콜롬비아 시민증 소지 여행자
	2. UN 또는 미국정보 기관이 발급한 통행증을 소지한 여행자
	3. 해상상업(Marina Mercante) 소속서비스가입여행자
비자 필요 (다음제외)	1. 90일 이내의 기간 동안 방문하는 영국인
	2. 90일 이내의 방문자, 단 다음 국적인은 제외: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방글라데시, 북한, 한국, 코스타리카, 쿠바, 중국, 과테말라, 온두라스, 인도, 이라크, 이란, 요르단, 레바논, 리비아, 니카라과,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시리아, 스리랑카, 수단, 튀니지, 베트남, 예멘, 팔레스타인 등
	3. 9월 11일 이후, 아랍국적의 모든 여행자는 비자 필요
	4. 베네수엘라 및 파나마 시민은 비자면제(Ref CE 462-98, 98년 9월 23일)
통과여객	1. 동일 항공편 또는 연결 항공편으로 다음 항공일정을 예약 및 확인한 여행자
	2. 해상상업(Marina Mercante) 소속원(단, 북한 국적자 제외)으로 36시간 내에 출항할 선박명이 기재된 해상운송회사의 증명서를 소지한 자
	*여행자는 취업이 금지됨.
세관	여행자휴대품반입 허용 한도: 18세 이상 여행자 1인당 3리터의 알코올 음료, 20개비들이 담배갑 20갑, 향수, 선물용품 및 개인소지품은 적당량
	무기, 탄약, 마약류는 반입 금지
	건조 또는 신선 육류, 화초식물류, 야생동물류는 농업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 반입하여야 한다.
세금	보호구역 출입 수수료: 갈라파고스 국립공원 및 해상보호구역 입장 시 안데스공동체 또는 MERCOSUR 회원국 시민에 대해서는 12세 이상 성인의 경우 50US\$를 부과함(외국인의 50%에 상당하는 수가 이 조건에 해당) 기타 내륙의 국립공원 등 자연보호구역 입장 시는 지역에 따라 5-20\$ 부과함.
보건위생	에콰도르 입국을 위한 사전 예방주사 요건: 없음. 다만, 고혈압, 심장질환을 가진 여행자는 고산지대 방문 후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함.
	말라리아는 아직 근절되지 않고 있는 질병으로 아마존 및 해안지역의 우기에 발생하고 있으며 철저히 통제되고 있음.

자료원: Andean community routes: Virtual Touristic Routes, PRO ECUADOR 무역투자가이드에서 재인용

8. 관광, 호텔, 식당, 통역

가. 호텔

수도 키토의 특급호텔은 1인실(스탠다드) 기준 \$200~\$250 정도이다.

호텔	객실요금 (세금포함)	전화(593+)	홈페이지
Marriot	\$255	2-2972-000	http://www.espanol.marriott.com/hotels/travel/uiodt-jw-marriott-hotel-quito
Sheraton	\$235	2-2970-002	http://www.starwoodhotels.com/sheraton/property/overview/index.html?propertyID=766
Swissotel	\$225	2-2567-600	http://www.swissotel.com/hotels/quito/
Hilton Colon	\$151	2-2560-666	http://www1.hilton.com/es/hi/hotel/QUIHIHF-Hilton-Colon-Quito-hotel/index.do
Hotel Quito	\$158(Simple) \$178(Double)	2-3964-900	http://www.hotelquito.com/
Holyday Inn	\$129(Simple) \$153(Double)	2-2997-300	http://www.hiexpress.com/hotels/us/es/quito/qitex/hoteldetail?sicreative=17972545315&dp=true&siccontent=0&sitrackingid=298910665&siclientid=5016
Mercure	\$142	2-2994-000	http://www.mercurequito.com.ec/
Howard Johnson	\$130	2-2265-265	http://www.hoyo.com/hotels/ecuador/quito/howard-johnson-hotel-quito/hotel-overview

1) 한인민박

- 산마루민박: Av. Del Parque y Calle II N44-179, Quito / ☎ 2464-891, 아침, 저녁포함, 공항픽업 가능

나. 식당

수도 키토에는 에콰도르 전통요리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요리들을 접할 수 있는 고급식당들이 다수 있으며, 보통 1인당 \$20-30 정도이다. 한국 식당은 본가, 아띠, 산마루, 고향집 등 네 군데가 있으며 1인당 \$15-20 정도이다.

- 본가: Av. De los Shyris N43-85(entre Rio Coca y Tomas de Berlanga), Quito / ☎ 2246-893
- 아띠: Av. Coruña E Isabel la Católica Pasaje N24J E12-24 La Floresta, Quito / ☎ 2557-942
- 고향집: Joaquin Paredes y Jose Maria Langada N45-208, Quito / ☎ 3318-016
- 산마루: Av. Del Parque y Calle II N44-179, Quito / ☎ 2464-891

- 일식
 - Noe (1인 \$30): Isabel La Catolica 1245 y Coruña, Quito / ☎ 2895-404
 - Tanoshi (1인 \$30): 12 de Octubre 1820 y Cordero, Swissotel / ☎ 2567-600

- 중식/동양식 퓨전
 - Happy Panda: Isabel La Catolica N94-464 Y Cordero / ☎ 2547-322
 - Gran Shanghai: Whimper N27 - 138 y Orellana / ☎ 2229-256
 - Zao: Av. Eloy Alfaro N10-16 y San Salvador / ☎ 2523-496, 2505-203

- 전통음식
 - Tianguéz (1인 \$10): Plaza de San Francisco / ☎ 2570-233
 - Mea Culpa (1인 \$40): Chile y Venezuela / ☎ 2951-190
 - Pim's Panecillo (1인 \$15): Melchor Aymerich / ☎ 3172-595
 - Mi Cocina: Av. 6 de Diciembre y Alemán(메가막시) / ☎ 2241-213

- 인터내셔널
 - El Ventanal: Calle Carchi y Nicaragua / ☎ 257-2232
 - 구시가지 전경이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 www.elventanal.ec
 - Mosaico: Manuel Samaniego N8-95 y Antepara, Itchimbia ☎ 254-2871
 - Itchimbia 공원 근처에 위치, 구시가지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곳
 - www.cafemosaico.com.ec
 - Paella Valenciana: Av. Diego de Almagro 1727 Y Av. República / ☎ 250-1018
 - 스페인의 전통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
 - El Pobre Diablo: Isabel La Católica N 24-274, y Galavis / ☎ 223-5194
 -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바. www.elpobrediablo.com

다. 관광명소

1) La Mitad del Mundo: 적도탑

지구를 북반구와 남반구로 나누는 적도상에 1736~42년간 지구의 모양을 연구하기 위하여 에콰도르에 온 프랑스 측지단의 적도 발견 성과를 기념하기 위하여 화산석으로 만든 30m높이의 피라미드형 기념탑이다. 에콰도르 원주민들은 잉카시대 이전부터 적도를 Inti Nan(태양의 길)이라고 부르고 이 지역을 지기가 충만한 곳으로 보고 약초 재배 및 휴양지로 삼았다. 적도탑 진입로 양편에는 적도 발견 탐험에 참가한 9명의 파리 과학 아카데미 회원, 2명의 스페인 수학자와 에콰도르 과학자 Pedro Vicente Maldonado의 부조상이 설치되어 있다.

적도탑 진입로 좌편에 18세기 적도발견 관련 역사 과학적 자료를 전시하고 있는 에콰도르, 프랑스, 스페인 및 독일 전시관이 있다. 적도탑 앞에는 스페인 식민시대 축소판 도시가 건설되어 있다. 적도탑으로부터 동쪽으로 5km 떨어진 깊은 협곡 위 조그마한 언덕에 폐허가 된 Ruminucho 잉카유적도 볼 수 있다.

이곳에서는 춘분과 추분 정오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으며, 지구의 다른 곳보다 중력이 상대적으로 약해 몸무게가 약간씩 가벼워진다.

□ El Panecillo(엘 파네시오) 언덕

언제부터인가 3,000m대 언덕 위에 태양의 신전이 있었으나 16세기초 Quito 왕국의 마지막 장군 Ruminahui가 잉카와의 전쟁 동안 파괴했다.

현재는 스페인 조각가 Agustin이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에콰도르 식민지파 조각가 Bernardo de Legarda의 Virgen de Quito를 모델로 1955년 디자인한 7,000조각 이상의 청동, 알루미늄, 주석, 철 등으로 구성된 키토 성모상(높이 31.5m)이 도시를 수호하고 있다.

□ Palacio Presidencial, Plaza de la Independencia: 대통령궁과 독립광장

궁전 건설 대통령의 성을 따라 Carondelet 궁이라고도 한다. 궁전정면은 아마존강 발견 기념벽으로 되어 있다. 독립광장에는 에콰도르 독립 100주년 기념비가 있다.

□ San Francisco 성당(수도원)

남미지역에 밀재배법을 도입한 San Francisco 사제가 스페인의 Palacio Escorial 성당을 모방, 1534년부터 건축한 남미 최고의 성당이다. 현재의 성당은 지진에 의한 건물 파괴로 당초의 건축 모습과는 건축양식 등이 차이가 있다.

성당 내부의 황금색 계단, 식민지 시대의 조각과 그림들이 걸작이다. 특히 화가 Legarda 의 은날개를 단 키토의 성모마리아(La Virgen de Quito) 그림이 유명하다. 동 그림의 성모마리아는 거대한 주석 조각품으로 만들어져 El Panecillo 언덕에 세워져 Quito를 수호하고 있다.

□ Fundacion Guayasamin: 과야사민 박물관

1919년 키토 태생의 중남미의 대표적 화가인 Oswaldo Guayasamin 개인 미술관으로 자신의 작품, 보석, 민예품, 프레 콜롬비아 및 스페인 식민시대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인디오의 피를 이어받은 Guayasamin은 한때 멕시코 벽화 운동에도 참가한 바 있으며, 민중의 고뇌와 분노, 인디오의 생활, 키토 거리 풍경 등을 주제로 독창적이고 강렬한 터치의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

특히, 그가 그린 과장된 '손'은 그 자체만으로도 모든 것을 표현하며 민중의 절규하는 마음을 그리고 있다.

□ Iglesia de San Agustin: 성 아구스틴 성당

17세기에 건축된 수도원 겸 성당으로 성당입구에 돌로 된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 고풍스런 성당이다. 수도원내 소형 박물관에는 스페인 식민지시대(16~18세기)와 에콰도르 독립시기(19세기 초)의 회화들이 전시되어 있다. 성당 내 별실에서 1809년 8월 10일 에콰도르 독립선언문이 서명되었다.

□ Museo del Banco Central: 중앙은행 인류고고학 박물관

잉카시대 이전과 잉카시대(BC4000-AD1533까지)의 유물과 함께 스페인 식민지시대 가구, 그림 등 예술품이 전시되어 있다, 특히 잉카시대 도자기와 금제가면 등이 볼만하다.

□ La Compania 성당

17세기 초에 건축된 예수회 성당으로 바로코식의 건축양식과 내부 장식이 일품이며 키토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다. 1645년 서거한 에콰도르 최초의 성인 Mariana de Jesus 성인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으며 금세 초에 일어난 여러 가지 기적과 관계되어 경외의 대상이 되고 있는 Dolorosa del Colegio 성모마리아상이 모셔져 있다.

□ La Catedral 성당

에콰도르 역사와 가장 인연이 깊고 남미의 가장 오래된 성당중의 하나로 16세기에 전통양식으로 건축이 시작되어 성당 첩탐과 현관 입구는 20세기에 완성되었다. 성당 건물 외벽에는 키토시 건설 주역 6인의 명패가 부착되어 있고 아마존강 발견 기념문도 새겨져 있다.

성당 내부에 키토파의 그림들과 에콰도르 독립영웅 Antonio Jose de Sucre 원수의 유패가 안장되어 있다.

□ Santo Domingo 성당

스페인 식민 통치 초기에 건축된 성당으로 수도원이 있다. 철학과 라틴어 교육을 위하여 창설된 Colegio Mayor de San Fernando로 많이 알려져 있다.

라. 각종 연락처 및 통역

- 주 에콰도르 한국대사관
 - 주소: Embajada de la República de Corea, Av. 12 de Octubre 1942 y Cordero Edificio World Trade Center, Torre B, Piso 3. Quito, Ecuador
 - 대표 E-mail: ecuador@mofat.go.kr
 - 대표 전화: 593(국가번호) - 2(지역번호) - 290 - 9227 ~ 9229
 - 대사관 민원전용전화: 593(국가번호) - 2(지역번호) - 298-7127
 - 민원업무시간: 월-금 08:30-12:30, 14:00-17:00
 - 팩스: 593(국가번호)-2(지역번호) - 250 - 1190

- 키토 한인회
 - 한인회장: 전태호
 - 전화: 0999-458-628(한국에서 연결 시 593 999-458-628)
 - 이메일: thjeonkim@hotmail.com
 - 총무이사: 오태종
 - 이메일: tery106@hotmail.com

9. 출장 시 유의사항 및 참고사항

가. 개요

수도 Quito가 2,850m의 고지대에 위치해있어, 평지보다 산소가 30% 정도 부족한 관계로 개인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고지대 증상인 두통, 신체 말단부분 마비, 소화불량, 현기증, 불면증, 체중 감소 현상이 있어 유의해야 한다. 따라서 초기에는 과격한 운동이나 피로를 삼가고 편안히 쉬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지대에다 적도인 관계로 일사광선과 자외선이 강하여 피부암 유발, 시력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태양이 강한 낮 시간 외출 시에는 "Sun Block Cream"을 바르거나 모자를 쓰는 것이 좋으며, 시력 보호를 위해 선글라스 착용이 필수적이다.

수돗물은 소독처리가 미흡할 수 있어 식수로 부적합하며 끓여먹거나 정수한 물을 음료수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염병 또는 풍토병으로 콜레라, 디프테리아, 이질, 아메바 감염, 말라리아, 뎅기열 등이 있고 수도 키토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화산 폭발 및 대규모 지진 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키토 주변에 많은 활화산이 있고 전국에 18개의 활화산, 약 60여개의 휴화산이 있어 매년 수회 간헐적으로 폭발한다. 진도 4도 이상의 지진이 매년 수 차례 발생하고 있다.

나. 참고사항

일반적으로 국민성은 친절하고 순박하나 외국인에 대해 차별하는 경우가 가끔 있다.

에콰도르 경제난의 영향으로 수도 키토를 비롯하여 대도시(과야킬, 에스메랄다스 등)에는 절도, 강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안전에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현재 키토 및 과야킬 등 대도시, 콜롬비아 게릴라 출몰 지역 등은 여행 경보 2단계로 지정되어 있다.

- 미용/이발: 키토에는 미용 및 이발소가 다수 있다. 수준은 고급부터 저렴한 업소까지 다양하다(가격은 5~15불).
- Tip 제도: 호텔, 식당 이용 시 10%의 서비스 요금이 계산되나 추가로 약간의 팁(1-2불)을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

○ 자동차 사고 시 처리요령

- 대인사고(인명피해 발생시): 우선 구급차를 불러 부상자를 응급 구조한 후 경찰긴급 전화 580-086, 432-263으로 연락하여 교통 순찰차를 호출, 조서를 꾸밈. 이 경우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음.
- 대물사고(충돌사고 및 접촉사고 시): 자동차가 움직일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도로 옆 안전한 곳에 비켜 세운 후 상대방 차의 색깔, 번호, 운전자 이름, 신분증 주소 등을 확인한 후 주위에 있는 증인을 확보 후 가까운 교통경찰 당국에 신고. 자동차가 움직일 수 없는 경우에는 580-086으로 교통순찰차를 불러 사고 경위 조서를 꾸민 후 정비공장에 견인하도록 함. 민사책임이 따르나 보험에 가입했을 때는 보험회사에서 처리함.
- 유의사항: 항상 운전시에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보험가입증서, 차량정비 등록증을 지참하는 것이 좋으며 평소 단골로 이용하는 정비공장 전화번호를 기억해 두도록 함. 경찰이 오지 않거나 상대방 차가 도주하였을 때에는 사후에 신고하여 조서를 받을 수 있음. 상대방 차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최소한 2-3군데 정도의 견적서를 받아둘 필요성이 있음. (차후 소송 시 필요)

○ 도난 사고 발생시 처리요령

- 즉시 경찰에 연락하여 경위를 자세히 진술하여야 하고 이때 인상착의를 가능한 한 정확히 진술하여야 함.
- 범인을 잡았을 경우에는 경찰서나 법원에서 범인 확인 절차가 있을 수 있음. 만인 신분증이나 기타 중요 서류를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신문에 공시해야 될 경우도 있음.

○ 화재 발생시 처리요령

- 거주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모든 상용건물은 방화기구가 설치되어 있음.
-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102번으로 전화하여 소방서를 불러 화재장소를 알리고 제보자는 신문에 밝혀야 함.
- 화재로 인하여 인명에 위해나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거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화재가 성립되며 계획적이거나 공공건물, 항공기, 원유체굴, 삼림 등지에 방화했을 경우 가중죄가 적용됨.

10. 유관기관 웹사이트

가. 정부 부처

- 대통령실: <http://www.presidencia.gob.ec>
- 외교통상통합부: <http://www.mmrree.gob.ec>
- 내무부: <http://www.mingobierno.gob.ec>
- 노동부: <http://www.mintrab.gov.ec>
- 보건부: <http://www.msp.gob.ec>
- 환경부: <http://www.ambiente.gob.ec>
- 관광부: <http://www.turismo.gob.ec>
- 산업경쟁력강화부: <http://www.mic.gob.ec>
- 지역개발부: <http://www.presidencia.gob.ec/modulos.asp?id=223>
- 농축수산부: <http://www.mag.gob.ec>
- 경제사회부: <http://www.mies.gob.ec>
- 교통건설부: <http://www.mtop.gob.ec>
- 교육부: <http://www.educacion.gob.ec>
- 도시개발주택부: <http://www.miduvi.gob.ec>
- 국방부: <http://www.fuerzasarmadasecuador.org>
- 체육부: <http://www.ministeriodeldeporte.gob.ec>
- 법무인권부: <http://www.minjusticia-ddhh.gob.ec>
- 광업석유부: <http://www.menergia.gob.ec>
- 사회개발조정부: <http://www.mcds.gob.ec>
- 문화부: <http://www.presidencia.gob.ec/modulos.asp?id=203>
- 전략부문조정부: <http://www.micse.gob.ec>
- 국립통계청: <http://www.inec.gob.ec>

나. 주요언론매체

- 신문사
- EL COMERCIO : www.elcomercial.com
- DIARIO HOY : www.hoy.com.ec
- LA HORA : www.lahora.com.ec
- DIARIO EXPRESO: www.expreso.ec
- EL UNIVERSO : www.eluniverso.com

- TV방송국
 - GAMAVISION(canal 2): www.gamavision.com
 - TELEAMAZONAS : www.teleamazonas.com
 - RTS(canal 5) : www.rts.com.ec
 - ECUAVISA(canal8) : www.ecuavisa.com
 - TC TELEVISION : www.tctelelevision.com
 - CANAL 1 : www.canal1tv.com
 - ETV TELERAMA : www.etvtelerama.com

- 라디오 방송국
 - RADIO VISION(91.7FM): www.radiovision.com.es
 - RADIO QUITO(760AM) : www.elcomercio.com/radio_quito.html
 - RADIO COLON(98.9FM): www.radiocolon.ec
 - HCJB-La voz de los Andes(89.3FM/690AM): www.vozandes.org
 - RADIO ERES(93.3FM) : www.radioeres.com
 - RADIO TARQUI(990AM): www.radiotarqui.com.ec

- 잡지사
 - ECUADOR INMEDIATO : www.ecuadorinmediato.com
 - VISTAZO : www.vistazo.com
 - REVISTA GESTION : www.gestion.dinediciones.com
 - REVISTA EKOS : www.capital.com.ec
 - REVISTA VANGUARDIA : www.revistavanguardia.com

다. 한인회

- 한인회: <http://latin-hanin.net/ec/>

라. 상공회의소

- 키토 상공회의소: www.ccq.org.ec
- 과야킬 상공회의소: www.LaCamara.org
- 꾸엥까 상공회의소: www.cccuenca.com
- 만타 상공회의소: www.mantaecuador.com

마. 기타 유관기관

- 프루에콰도르(Institute for the Promotion of Exports and Investments):
<http://www.proecuador.gob.ec/>
- 에콰도르 중앙은행: www.bce.fin.ec
- 에콰도르 공식 관광 웹사이트: www.visitaecuador.com

11. KOTRA 무역관 안내

가. 개관안내

- 개관일: 2012. 11. 12

나. 위치안내 및 전화번호

- 주 소: Av. Coruña N27-88 y Av. Orellana. Quito, Ecuador
- 전화번호: 593) 2-2237-111 / 2521-559
- 팩스번호: 593) 2-2908-450

다. 공항에서 오는 법

키토무역관은 에콰도르 수도 키토의 오레야나 지역(Orellana)에 위치하고, Ecovia, Orellana 역과 인접해있다.

키토지역의 남쪽(Sur)에 가까운 중앙지역으로 사무실과 호텔이 들어선 지역에 위치한다.

키토국제공항에는 키토무역관으로 찾아오기 위해서는 공항택시 이용이 일반적이다. 택시 승차 후 Av. 꼬류냐(Coruna) y Av. 오레야나(Orellana) 로 하면 대부분 기사들이 아는 곳이고, 택시요금은 \$30 수준이다.